

BECAUS

BECAUS는 Be+CAUs(Chung Ang University Student)의 합성어로 **중앙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중앙대학교 2015학년도 논술가이드북

Section 02

2015학년도 모의논술

Section 03

2014학년도 논술 기출문제

Section 04

2014학년도 글로벌리더 에세이



비카우스하는 자, 중앙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되어 세상이 감탄할 위대한 문장을 남기게 될 것이다.

COVER STORY



김호원
4월 03일

벌써 새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었다!
처음에는 적응 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중앙대학교 학생이 된 것 같다.
좋은 친구들, 좋은 선배들도 많이 만나고,
수업도 재미있다. 앞으로의 대학 생활도 기대된다.



중앙대학교(Chung Ang University, CAU)
4월 10일

안녕하세요? 중앙가족 여러분! 오늘은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중앙대학교에 울산 화봉고등학교 친구들의 즐거운 캠퍼스 투어가 있었답니다!! 울산에서부터 멀리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화봉고 친구들! 수학여행의 일정 중 중앙대학교 캠퍼스 투어가 있었는데요, 아주 호응도 잘하고 무척 들떠있는 모습에 캠퍼스가 더욱 화사해졌답니다!^^ 울산에서 온 화봉고등학교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중앙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CAUnselor
4월 05일

지금 “동국대학교부속여자고등학교”에서는 CAUnselor와 함께하는 전공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로와 꿈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이 길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카운슬러가 함께 응원합니다♥



김호원
4월 14일

동기들이랑 학교 근처 옥루몽에서 팔빙수를 먹었다. 팔빙수와 팔빵! 모두 너무 맛있다! 학교와 가까우니까 자주자주 공강시간에 가서 사먹어야지!



김호원
4월 09일

국제교류 프로그램 설명회에 참석했다.
교환학생 선배들의 인터뷰와 비디오 클립을 보고 나니, 나도 얼른 떠나고 싶어졌다!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도 교환학생으로 세계 속에서 공부해야지.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고사 주요 변경사항



●자연계열

‘통합형 논술’ → ‘단일교과형 논술’

[문제1] 수학기초(20점)

[문제2] 수학기초

문제 2-1(10점), 문제 2-2(10점)

[문제3] 수학기초

문제 3-1(10점), 문제 3-2(20점)

[문제4] 과학기초(생물과학, 물리, 화학 중 택1)

문제 4-1(10점), 문제 4-2(20점)

●인문계열

문항별 배점변경

[문제1] 언어논술형(40점)

[문제2] 언어논술형(40점)

[문제3] 언어논술형(20점)

●경영경제계열

문항별 배점변경

[문제1] 언어논술형(40점)

[문제2] 언어논술형(40점)

[문제3] 수리적 논술형(20점)

논술가이드북 활용방법

01

중앙대학교 논술의 특징

● 논술의 목적

중앙대학교 논술의 목적은 기계적으로 일기하듯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력, 이를 바탕으로 개념, 지식을 재구성하는 종합적 사고력, 주어진 상황에 대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는 데 있다. 논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험생들은 평소 어떤 현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치밀하게 분석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은 주어진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또는 현상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모두 찾아내서 그들 사이의 유사·상이관계를 찾아보는 것이다. 치밀한 분석은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되, 다양한 요소들을 서로 분리하여 연관관계를 파악해보는 것이다. 또한 논술 시험은 수험생들에게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이해력과 논리적인 표현력을 요구한다.

● 논술의 평가 목표

중앙대학교가 논술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수험생의 지적 잠재 능력이다. 이는 얻어진 지식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을 논리적 혹은 수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인문계열에서는 수험생들이 제시된 자료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추론하여 얼마나 논리적으로 표현해 내는가를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삼는다. 자연계열은 수험생의 수학적 추론 능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할 것이다. 수학적 추론 능력은 자연 현상을 수

— 중앙대학교 논술의 목적과 특징을 분석하기!

02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모의논술

Section 02 자연계열 자연계열 모의논술 문제지 [수학]

[문제 1] 단변으로 승부를 가리지만, 무승부일 경우 재시합을 하는 운동 경기기가 있다. A팀이 B팀에 승리할 확률은 p , 패할 확률은 q , 무승부일 확률은 r 이라고 한다. 단 $p > 0$, $q > 0$, $r > 0$, $p + q + r = 1$ 이다. 계속 무승부가 되어 승 경기 횟수가 10경기가 될 때까지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동전 던지기로 승부를 결정한다고 할 때, 두 팀이 서로 겨룰 경기 횟수의 기댓값을 E 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20점]

— 2015학년도 모의논술과 지난해 기출문제를 실제고사시간에 맞춰 스스로 풀어보기!

03

예시 답안

[문제 1] — 제1문 (7~9)는 각각이 인간의 삶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1문 (7)에서 인간의 유한한 기원은 과거에 대한 성찰과 결함하여 불가능한 일을 상상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상상력의 토대이자 미래의 길잡이가 된다. 제1문 (8)에서 고통에 대한 기원은 화자를 타 집단의 구분 짓는 기원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화자가 타종살아에서 겪는 소외, 열등감, 고독을 달래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제1문 (9)는 연역적 과정에 경합한 항원을 기억해 두었다가 동일 항원이 친입했을 때 신적적으로 받아들이는 후천성 능력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유사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제1문 (9)에서는 특정 사회 집단에 의해 선택되거나 편입된 기억이 국민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영웅이라는 대상을 만들어 냄으로써 국민을 통합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요컨대 기억은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확장시켜 주거나 정서적 위안을 주기도 하고 때때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통합의 매개로 작동하기도 한다. [20점]

[문제 2] — 제1문 (사)의 텍스트 읽음을 통한 학습법은 제1문 (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향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읽기 능력이 필요하므로 단순 텍스트 읽음만으로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변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대의 지식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채로운 지식은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므로 굳이 읽기를 필요가 없다. 이러한 현대 사회

— 평가목표와 출제의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예시답안과 채점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의 답안을 수정해보기!

논술고사 준비를 위한 가장 좋은 길잡이, 논술가이드북

- 중대 논술은 논술 백서를 통해 대학측이 직접 제공한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이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문제의 배점은 어떻게 되고 언제 어떻게 감점을 하는지를 중대처럼 정확하고 자세하게 밝혀주는 학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대 논술의 가장 좋은 대비책은 중대가 공개한 논술 자료집에 충실하는 것이지요. 올해 모의고사를 시작으로 지난 해 기출문제까지 써보고 간 학생이라면 중대 논술 시험을 치르는 데 충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2013.10.28 조선일보

- 중앙대학교는 수시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 중 가장 충실한 가이드북을 매년 제공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013.11.01 세계일보

- 중앙대는 전통적으로 고정된 형태의 문제를 낸다고 자부하는 대학입니다. 더군다나 중앙대는 매우 친절한 논술 가이드북을 내놓는 대학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2012.10.26 한국경제

- 논술 가이드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앙대는 매년 논술 가이드북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중앙대를 지원한 수험생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자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자료에는 문제 분석과 함께 우수 답안에 관한 자료가 들어 있다. 학생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2009.10.20 부산일보



BECAUS

비카우스는 Be+Caus의 합성어로
'중앙인이 되다'라는 뜻을 가진
임시 매거진입니다.

발행일 2014년 4월 28일

기획·발행 중앙대학교 입학처 02-820-6393

편집·디자인 ㈜꽃피는청춘 02-3142-7373

촬영 studio501

표지 모델 유럽문화학부 14학번 김호원



BECAUS

중앙대학교 2015학년도 논술가이드북

Contents

- 001 Specialty 미래선도 학문단위 BIG 5
경영학부 글로벌금융·국제물류학과·공공인재학부·융합공학부·에너지시스템공학부
- 007 Powerful 중앙의 성장과 성과
- 009 Innovative 중앙의 혁신과 변화
- 011 Best 2015학년도 신입학 장학프로그램
- 013 Great 캠퍼스 인프라
- 015 Becaus CAU GOODS





경영학부 글로벌금융



국제물류학과



공공인재학부

미래선도
학문단위
BIG 5

Specialty!



융합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대학의 역량을 집중한 특성화 학과의 신설로 우수인재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성화 학과별로 주어지는 파격적인 장학혜택과 영어수업 강화, 산학연계 교육 등을 기반으로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대학교는 대학 본연의 역할인 인재 육성에 핵심 가치를 두고 교육에 대한 혁신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차별화된 금융 프리미어리거 양성 경영학부 글로벌금융



4년
전액장학금

★★★★★

수시 학생부, 논술전형 합격자 중 수능성적 상위 50%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 전원

- 금융전문가 트랙, 재무회계전문가 트랙 운영
- CFA, CPA, AICPA 자격증 취득 지원

경영학부 글로벌금융

T. 02-820-5533~5535

H. <http://globalfinance.cau.ac.kr/>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물류 전문인력 육성 국제물류학과



4년
전액장학금

★★★★★

수시 학생부, 논술전형 합격자 중 수능성적 상위 50%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 전원

-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취업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 물류중심지(싱가포르 등) 현장연수 지원
- 1천 시간 English Intensive 영어집중교육

국제물류학과

T. 02-820-6361

H. <http://log.cau.ac.kr/>

국가를 이끌 공공분야 핵심엘리트 양성소 공공인재학부



수시 학생부, 논술전형 합격자 중 수능성적 상위 50%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 전원

공공인재학부

T. 02-820-5445

H. <http://public.cau.ac.kr/>

- 국가고시 합격을 위한 행정학 트랙 운영
- 로스쿨 진학을 위한 정책학 트랙 운영
- 국가고시 준비를 위한 책임지도교수제 실시
- 고시 합격자 졸업생과 1:1 멘토링 실시
- 고시반 우선 입반권 부여

창조적 연구능력으로 키우는 융합인재 융합공학부



4년
전액장학금

★★★★★

수시 학생부, 논술전형 합격자 중 수능성적 상위 50%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 전원

융합공학부

T. 02-820-5940

H. <http://ie.cau.ac.kr/>

- 나노·바이오·소재공학전공 운영
- 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운영
- 디지털이미징공학전공 운영
- LAB 참여 및 공동연구 실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에너지 전문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4년
전액장학금

★★★★

수시 학생부, 논술전형 합격자 중 수능성적 상위 50%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 전원

- 원자력, 화력, 친환경, 전력 시스템 전문엔지니어를 양성
- 원자력전공, 발전기계전공, 발전전기전공 운영
- 에너지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교육

에너지시스템공학부

T. 02-820-5867

H. <http://ese.cau.ac.kr/>

POWERFUL

국내
사립
종합대학
5위

2013 중앙일보 대학평가

중앙일보

서울 19/23℃ ▶ 날씨 8면 고객센터: 1588-3600

joongang.co.kr

제15145호 43면 2013년 10월 7일

투자하는 대학이 크다! 중앙대 10위→8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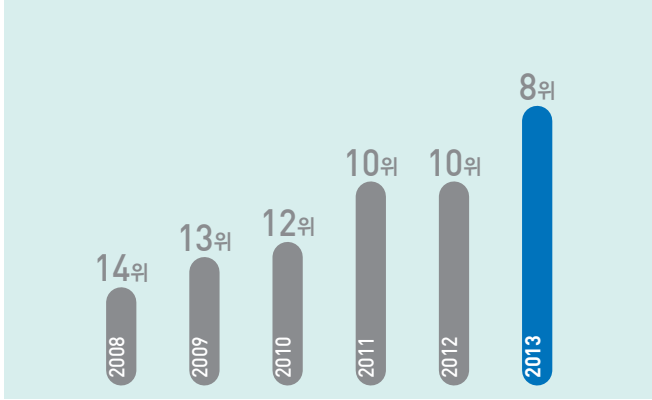
2008년 두산의 경영 참여 이후 도서관·기숙사·연구공간을 확충하고 교수 업적평가와 학사관리를 강화해 온 중앙대는 올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사상 처음으로 8위(지난해 10위)에 올랐다. 20주년을 맞은 올해 평가에서는 포스텍(1위)·성균관대(3위) 등 기업이 꾸준히 지원해온 대학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중앙일보 2013.10.17



끝이
없는
중앙의
성장

Powerf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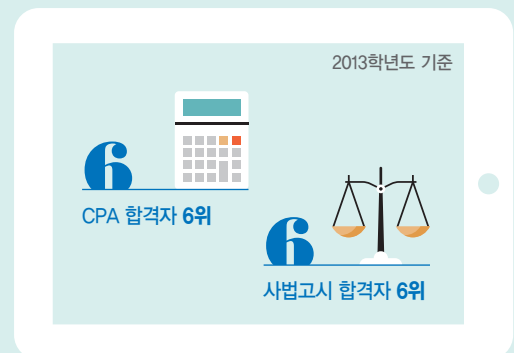


지난 6년간의 끝없는 성장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대학순위

2013 중앙일보 대학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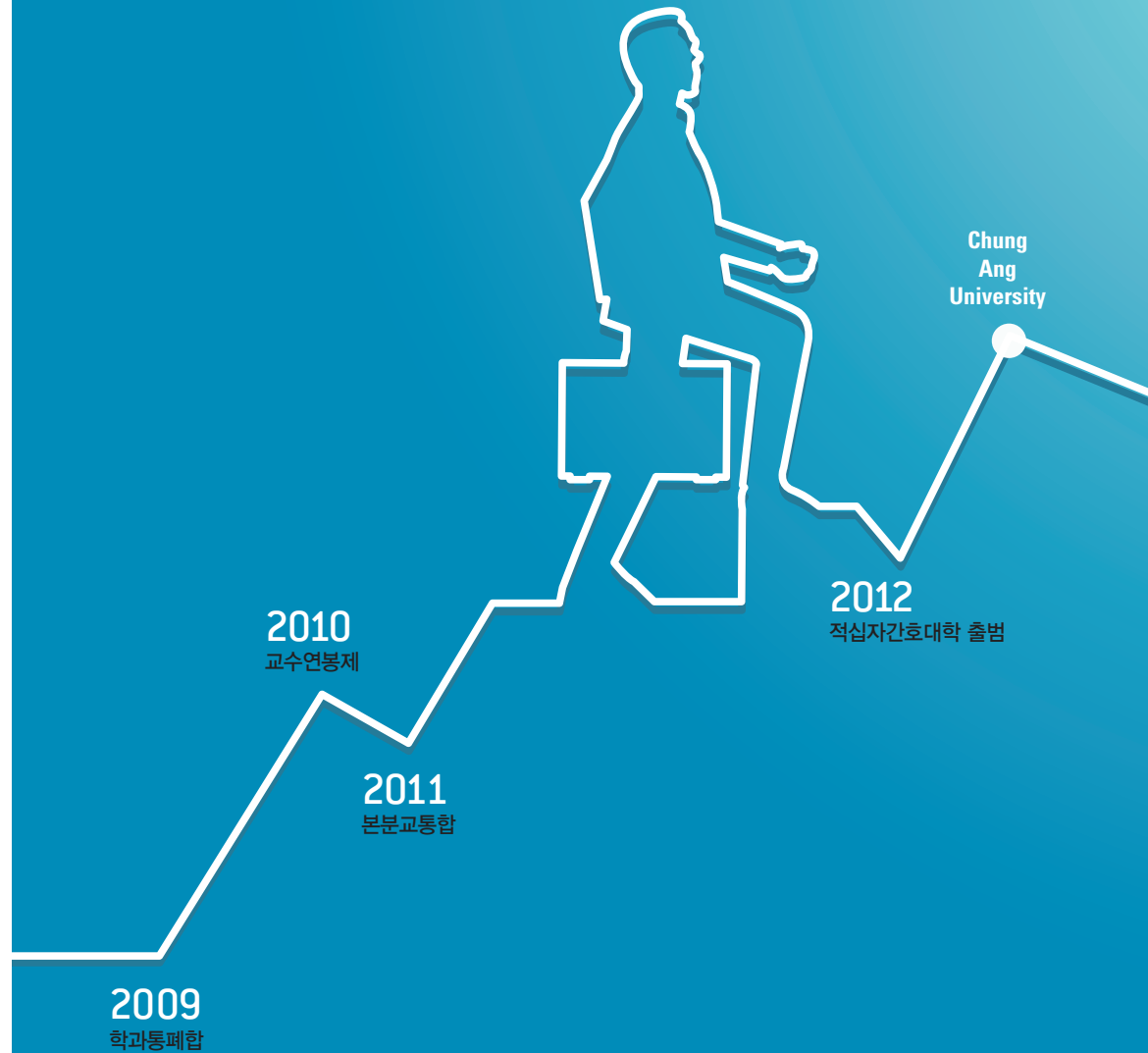
1994년, 국내 언론 최초로 시행된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매년 대학과 학과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가를 실시합니다. 실증적인 지표, 다양한 방법론, 체계적인 평가와 조사 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생생한 대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NNOVATIVE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교육혁신

Innovative!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단어, 혁신.
중앙대학교는 지난 2008년, 개교 100년의 비전을 세우고 올곧은 추진력으로
대학의 혁신을 도모해왔습니다. 교수,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고 대학의 대내외 평가를 성장시킨 중앙대학교의 혁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4

기능형 부총장제

01 선택과 집중, 학과통폐합

중앙대학교는 규모가 큰 대학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복 학문단위를 재조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학과 통폐합입니다. 학생·교수·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1년 이상의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지난 5년간 총 18개 단과대학, 77개 학문분야(학과·학부)를 11개 단과대학, 14개 전공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유사하고 중복인 학과를 통합하고 경쟁력 있는 학과를 육성하고자 하는 중앙대학교만의 교육 혁신입니다.

02 국내 대학 최초, 교수연봉제

국내 대학 최초로 중앙대학교가 도입한 '교수연봉제'는 중앙대학교의 개혁 의지를 보여줍니다. 근속 연수나 나이가 늘어감에 따라 오르던 호봉제에서 벗어나 우수한 연구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별화하도록 교수 연봉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연구 성과에 따른 보상은 교수들의 연구에 더 큰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수들의 연구 실적을 말해주는 SCI 논문 게재 수가 2008년 614편에서 2012년 1025편까지 두 배 가까이 많아지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3 더 큰 교육의 터, 본분교 통합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본·분교를 통합하여 서울과 안성 캠퍼스를 제한 없이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학 전형부터 각각 다른 코드 번호를 입력하는 등 별개의 학교로 구분되었던 서울과 안성 두 캠퍼스는 본·분교 통합으로 각각 다른 전공 분야를 둔 하나의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학점 교류나 전과 제도, 입학정원 조정 등 교무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4 국내 최대, 적십자간호대학 출범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은 국내 최대 규모로 전통 강호인 의대, 약대와 함께 의생명 분야의 3각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적십자간호대학의 출범으로 중앙대학교는 약 1000명상 규모의 혁신동 중앙대병원 증축, 11층 규모의 연구개발(R&D) 센터 신축과 더불어 의·약·간호교육 복합 클러스터 조정을 통한 든든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아시아 의료 허브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대학교의 혁신과 지속적인 투자는 계속될 것입니다.

05 혁신대학을 위한 개혁, 기능형 부총장제

2014년 새로 도입하는 기능형 부총장제는 교학, 연구, 행정, 의무, 안성캠퍼스를 담당하는 5명의 부총장을 임명하고 각 단과대학 학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책임형 학장제를 말합니다. 해외 선진대학에서 주로 시행하는 기능형 부총장제는 대학 운영을 직무능력별로 전문화하고 조직구조를 합리화해 지속적인 개혁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극대화시켜 국내 최고 명문사학 및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06 중앙의 차별화된 교육제도

'학점이 짠 대학', 중앙대학교의 수식어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 2009학년부터 학점을 엄격한 상대평가로 매기며, 여느 대학과는 달리 F학점, 학점포기 과목 등을 표기하지 않는 '취업용' 성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계와 한국사, 한자 등의 교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실용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BEST

중앙대학교의 장학금 규모는 사립대 최상위권의 수준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학과 (경영학부 글로벌금융, 공공인재학부, 국제물류학과, 융합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경우, 수시모집 학생부, 논술전형 합격자 중 수능성적 상위 50% 학생에게 4년 전액, 정시모집 일반전형 합격자 전원에게 4년 전액 장학금 등 파격적인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과학고, 과학영재학교 졸업자 및 수능성적우수자 등 타 학과 성적 우수 입학생들을 위한 강력한 장학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신입학
장학프로그램

Best!

4년 전액

특성화학과 수시모집
학생부, 논술전형
수능성적 상위 50%

Best

더 강력한
장학금 규모

4년 전액

특성학과와 정시모집
일반전형 합격자 전원

Chung
Ang
University

BECAUS KEYPOINT

경영학부 글로벌금융, 국제물류학과, 공공인재학부, 융합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집중 지원

- ❶ 수시 학생부, 논술전형 합격자 중 수능성적 상위 50%
- ❷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 전원

수시모집

- 글로벌금융, 국제물류학과, 공공인재학부, 융합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 대상 :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합격자 중 수능성적 상위 50%
 - 혜택 : 4년 전액 장학
- 과학고, 과학영재학교 졸업자
 - 대상 : 특기자전형(자연) 최초합격자 중 과학고, 과학영재학교 졸업자(의학부제외)
 - 혜택 : 4년 전액 장학
- 수능성적우수자
 - 인문 : 수능 국어B, 수학A, 영어 모두 1등급
 - 자연 : 수능 수학B, 영어, 과탐(1과목) 등급 합 4 또는 수학B, 과탐(1과목) 모두 1등급(의학부 제외)
 - 혜택 : 4년 전액 장학

※ 장학금 계속 수혜 기준 : 매학기 평점 3.5 이상

정시모집

- 글로벌금융, 국제물류학과, 공공인재학부, 융합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 대상 : 일반전형 합격자 전원
 - 혜택 : 4년 전액 장학
- 수능성적우수자
 - 대상 : 선발기준은 별도 공지(의학부제외)
 - 혜택 : 4년 전액 장학

※ 장학금 계속 수혜 기준 : 매학기 평점 3.5 이상

2009

중앙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완료



두산그룹의 튼튼한 인프라 투자

2008년, 두산그룹과 함께 하기 시작한 중앙대학교는 2100억 수준의 대대적인 시설투자로 캠퍼스 주변 지형을 바꾸는 상전벽해를 이뤄냈습니다. 2009년 중앙도서관을 시작으로 기숙사, 약대와 R&D센터, 병원 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과 건물 신축이 잇따라 이루어졌으며 캠퍼스 면적은 2007년 15만 5171㎡에서 2012년 26만 2488㎡로 두 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2014년에는 2차 기숙사를, 2016년에는 경영경제관을 완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튼튼하고 편안한 캠퍼스 인프라를 제공할 것입니다.



2010 ▾
기숙사 블루미르홀 1차 완공



“

10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제2기숙사는 헬스실, 택배보관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완공 후 기존 1643명의 기숙사 수용인원이 대폭 늘어 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14 ▲

기숙사 블루미르홀 2차 완공 예정



2012 ▲

기숙사 퓨처하우스 완공



2011 ▲
병원 별관 완공



2011 ▲
약학대학 R&D센터 완공



2011 ▲
교수연구동 증축 완료



“

지하 6층~지상 12층, 연면적 7만 3899.70㎡ (약 2만 2355평)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경영경제관은 대형 강당, 각종 강의실, 연구실, 실습실 등 교육 인프라를 갖춘 복합건물입니다. 경영경제관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교원들의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2016 ▾

2016년 경영경제관 완공예정



1



2

나는, 중앙이다

나는, 중앙의 브랜드다

Becauss!

중앙대학교의 로고를 새긴 각종 제품과 액세서리는
중앙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CAU GOODS는 오직 중앙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6

3



4

5



구입처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지하 1층
LOGOSHOP

1 등산모자

뜨거운 별을 가려주는 등산모자

2 뱃지

패션아이템과 매치할 수 있는 다양한 뱃지

3 텀블러

따뜻한 차를 담아주는 텀블러

4 매직머그컵

내용물의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매직머그컵

5 우산

긋은 비를 가려주는 우산

6 야구 점퍼

캠퍼스 패션의 완성, 야구 점퍼



7 손목시계
작은 시간도 지켜주는 손목시계

8 에코백
가벼운 어깨를 만들어주는 친환경 에코백

9 연필
부드러운 필기감을 가진 연필

10 볼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 LAMY 볼펜

11 USB
안전한 나만의 저장소, USB

12 필통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가죽필통

13 수첩
강의 기록의 지원군, 넓고 큰 수첩



중앙대학교 2015학년도 논술가이드북

Contents

Section 01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 준비

- 019 입학처장 메시지
- 021 출제위원장 메시지

- 023 중앙대학교는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가?
- 024 2015학년도 대입 논술의 변화와
향후 전망
- 025 중앙대학교 논술의 특징

Section 02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모의논술

- 031 Interview 01 신다희
- 033 인문사회계열
- 047 경영경제계열
- 060 자연계열

Section 03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 기출문제

- 075 Interview 02 강동현
- 077 인문계열 I
- 091 인문계열 II
- 105 경영경제계열
- 118 자연계열
- 119 2014학년도 논술우수자 전형
입시 결과 분석

Section 04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글로벌리더 에세이

- 125 Interview 03 이동환
- 127 인문계열



입학처장 메시지

이산호 입학처장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입학처장 이산호 교수입니다.

대학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중앙대학교가 2015학년도 논술가이드북을 출간합니다. 논술시험은 수험생들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훌륭한 평가 도구입니다. 또한, 논술능력은 대학교육을 잘 이수하는데 필수적이며 사회활동에서도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그렇기에 논술능력은 대학입학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배양해야 할 중요한 기초 소양 중의 하나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을 실시하며, 975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단일 모집 전형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형이며, 전형요소와 반영비율은 논술 60%, 학생부 40%입니다. 논술전형은 학생부의 비중을 최소화하고, 기본적으로 논술 시험을 잘 치르는 학생에게 더 유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중앙대학교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술 문제를 출제할 것입니다.

중앙대학교는 그동안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논술시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왔습니다. 올해에도 중앙대학교는 다음 세 가지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1.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과 수준을 넘지 않는다.**
2. **고등학교 과정을 잘 이수한 학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한다.**
3. **논술문제, 예시답안, 채점기준을 포함하여 평가기준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중앙대학교는 4월에 12,000여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논술시험을 실시하여 30여 명의 교수가 전 학생의 답안에 대해 평가 및 첨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논술 가이드북에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술가이드북에는 기존 출제 문제, 올해 출제 방향, 채점 기준 등을 제시해 놓았으며, 감점이나 가산점의 요인까지 상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또한 중앙대학교 논술은 몇 년 전부터 질문의 방식까지 표준화하여 이를 논술가이드북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통해서 2015학년도 논술시험 문제를 예측할 수 있고, 학교 교과 학습을 통해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은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이 논술가이드북은 여러분을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멋진 대학-중앙대학교’로 안내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중앙대학교 입학처장 이산호

출제위원장 메시지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인문계 논술시험 출제방향 및 평가목표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의 출제 방향 및 평가 목표는 향후 중앙대학교에 진학하여 학문을 수학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논리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은 개별 교과목의 내용에 대하여 단순 암기한 지식보다는 사물 또는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통찰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험생들이 개별 교과목에서 활용되는 기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개념들을 서로 연결하는 논리를 유추할 수 있는가, 문제를 통찰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가, 생각한 바를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과 수준을 넘지 않으며, 난이도 역시 고등학교 과정을 잘 이수한 학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6개 또는 그 이상의 모든 제시문들을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교재에서 선택함으로써, 학생들이 교과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015학년도 인문계 논술시험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인문사회계열 논술과 경영경제계열 논술로 분리되어 실시된다. 즉, 2015학년도 경영경제계열 논술시험은 2014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언어 논술형 2문항(각 40점, 40점)과 수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수리적 논술형 1문항(20점)이 출제될 것이다. 반면, 인문사회계열 논술시험의 경우, 수리적 논술형 1문항 대신 이 출제되지 않고, 모두 언어 논술형 3문항(각 40점, 40점, 20점)이 출제될 예정이다.

중앙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출제위원장 이승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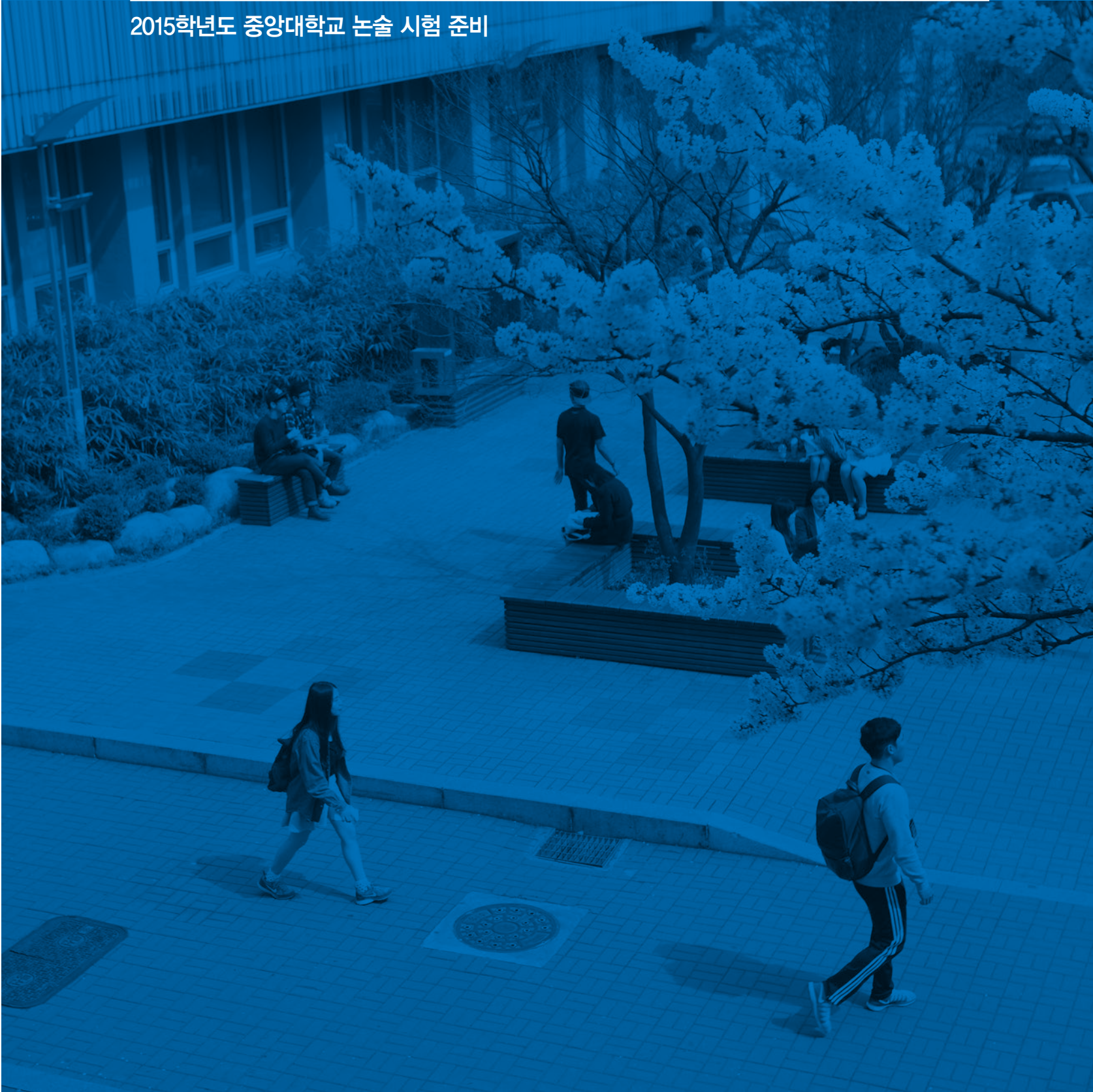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자연계 논술시험 출제방향 및 평가목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출제위원장 김영화 교수입니다. 올해 입시를 준비하느라 긴장과 중압감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여러분께 먼저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이 지면을 통하여 중앙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학년도까지 중앙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의 기본 성격은 '통합형 논술'이었습니다. 즉, 단일 교과목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형태의 논술 문제를 출제하여왔고, 유연하고 종합적인 논리적 사고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통합형 논술'의 취지와 장점에 대한 자부심은 지금도 유효하며, 교과부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논술의 형태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시험, 수능준비 등을 하며 동시에 '통합형 논술'을 준비해야하는 수험생과 일선 진학지도 선생님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오랜 숙고 끝에 이번 201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에서는 과거 '통합형'의 틀을 벗어나 단일 교과형 논술 문항을 출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모의논술에 적용하였습니다. 올해 출제할 201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의 제시문은 예년과 같이 모두 고교 교과서와 EBS 교재에서 발췌하여 사용할 것이며, 전체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과 관련된 문항 [문제 1], [문제 2], [문제 3]은 지원자가 모두 풀어야 하는 문제로서 배점은 각각 20점, 20점, 30점입니다. 지원자가 한 과목을 선택하여 풀 수 있는 [문제 4]는 생물, 화학, 물리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배점은 30점입니다. 또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의학부를 지원하는 학생은 [문제 1], [문제 2], [문제 3] 가운데 한 두 문제를 타 학과 지원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바뀐 사항들을 올해 모의논술에 적용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출제하였으니, 중앙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올해 모의논술을 반드시 풀어보고 새롭게 바뀐 출제방향에 적응하는 것이 논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에는 자연계열 논술의 기본 방향과 취지는 물론 올해 모의논술 문제와 예시답안 등이 담겨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논술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정성껏 제작한 이 책이 중앙대학교 입학에 희망하며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여 온 대학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름 방학을 유용하게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중앙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출제위원장 김영화

Section 01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 준비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 준비

Section 01

중앙대학교는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가?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이다. 지식기반사회는 우리에게 개별 분야의 전문 지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 조건과 기술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용력과 창의력, 더 나아가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한다. 대학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대학이 육성해야 하는 21세기형 인재상은 단순 암기에 능한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패러다임을 생산할 수 있는 인간이다.

21세기 지식의 성격은 사회 변화의 복합적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가운데 사회의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를 이해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실과 그와 관련한 지식들을 편향적이지 아니라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 요구되는 지식은 동서양의 논리구조를 하나로 묶고, 주지주의와 경험주의를 한 데 섞으며,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하는 지식이다. 이와 같은 균형 잡힌 사고가 문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개별 분야의 전문 지식만을 습득한 사람은 지식기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개별 분야의 단순한 지식 암기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학과 경영학, 인문학과 이학, 예술과 공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이 어우러지는 융합적인 지식을 창출하여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 및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도 학문 간의 융합 교육을 통해 융합적 사고형의 인재 육성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앙대학교가 2011년부터 기존의 학문단위를 대대적으로 재조정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앙대학교는 수학, 통계학, 경영학이 결합된 금융공학 및 인문학, 예술, 공학이 결합된 문화콘텐츠 그리고 공학과 의학이 결합된 의료공학 등 새로운 형태의 전공 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인재를 원하는 현실에서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역시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통합적 지식을 경영할 수 있는 21세기형 인재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앙대학교는 차별화된 입시 제도를 통해 이러한 잠재력 및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갈 인재로 육성하려는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다. 중앙대학교는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단순한 입시 제도에서 탈피하여 리더십, 특기, 비전 등을 다중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하여 창의적인 학생들을 발굴하고 있다. 논술 시험 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015학년도 대입 논술의 변화와 향후 전망

① 대입 논술의 변화

주요 대학의 2015학년도 논술 시험에서는 본고사형의 문제가 출제되거나 문제의 난이도가 대폭 상승하는 등의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논술 시험의 수준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 제시되는 제시문은 100% 교과서 지문과 EBS 교재에서 발췌하여 사용할 것이다.

다만, 인문계열은 기존 논술 시험의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자연계열에서는 문제 유형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즉, 201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에서는 학교 시험과 수능을 준비하는 동시에 논술 시험을 준비해야하는 수험생과 일선 진학지도 선생님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오랜 숙고 끝에 기존 '통합형' 논술의 틀을 벗어나 단일 교과형 논술 문항을 출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연계 논술의 새로운 유형은 모의논술에서 이미 실시된 바 있다.

인문계열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시문들에 대한 분석적 이해력, 개별 제시문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재구성 능력,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인 표현력 등이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될 것이다. 자연계열에서는 수확문제를 필수로 풀고 과학 교과목인 물리, 화학, 생물 가운데 한 문항을 수험생이 선택하여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수식을 통해 논리를 전개하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중앙대학교가 수시모집에서 논술 시험을 계속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이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평가 방식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논술 시험의 관리 역량을 축적해 온 중앙대학교는 논술 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학생을 성공적으로 선발해 오고 있다. 이는 논술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 입학 후 성적에서 증명되고 있다. 또한 수험생들이 중앙대학교의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춰 2015학년도 논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논술 가이드북을 정성들여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중앙대학교가 논술 가이드북과 논술 설명회를 통하여 공개한 논술 형식을 유지하는 것은 논술 시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험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습득한 다양한 교과목의 지식을 바탕으로 논술 가이드북의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중앙대학교의 논술시험을 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② 2015년도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의 출제 방향 및 평가 목표

중앙대학교 2015학년도 논술 시험의 전체적인 출제 방향 및 평가 목표는 향후 중앙대학교에 진학하여 학문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인재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선발하는 데에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대학교의 논술 시험은 수험생들이 고교과정에서 배운 문학, 철학, 사회학, 과학, 수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기본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기본 개념들과 제시문들을 통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를 전개할 수 있는가,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자신이 생각한 바를 언어나 수식을 통해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인문계열의 경우,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통합적으로 엮어 사고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문제 유형은 인문사회계열과 경영경제계열로 구분하였던 2014학년도 방식과 유사하다. 즉,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언어논술형 3문항이 출제되는 반면, 경영경제계열에서는 언어논술형 2문항, 수리적 논술형 1문항이 출제된다.

자연계열은 기본적으로 수학, 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교과서와 EBS 교재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문으로 사용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물리, 화학, 생물의 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수험생이 해당 교과목을 배우지 않았어도 제시문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것이다.

출제의 기본 방향 및 전체적인 평가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일선 고등학교에 배포한 논술 가이드북과 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제공된 출제 방향을 최대한 유지한다.
-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수험생들이 접했던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한다.
- 교과서와 EBS 교재의 지문을 100% 사용한다.
- 교과 내용에 대한 단순 암기 능력이나 복잡한 수리적 계산 능력에 대한 평가는 지양하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전개 능력을 평가한다.
-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닌 수험생의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 고등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응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 능력을 평가한다.

중앙대학교 논술의 특징

① 논술의 목적

중앙대학교 논술의 목적은 기계적으로 암기한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력, 이를 바탕으로 개별 지식을 재구성하는 종합적 사고력, 주어진 상황에 대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는 데 있다. 논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험생들은 평소에 어떤 현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치밀하게 분석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은 주어진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또는 현상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모두 찾아내서 그들 사이의 유사·상이관계를 찾아보는 것이다. 치밀한 분석은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되, 다양한 요소들을 서로 분리하여 연관관계를 파악해보는 것이다. 또한 논술 시험은 수험생들에게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이해력과 논리적인 표현력을 요구한다.

② 논술의 평가 목표

중앙대학교가 논술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수험생의 '지적 잠재 능력'이다. 이는 얻어진 지식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을 논리적 혹은 수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인문계열에서는 수험생들이 제시된 자료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추론하여 얼마나 논리적으로 표현해 내는가를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삼는다.

자연계열은 수험생의 수학적 추론 능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할 것이다. 수학적 추론 능력은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고등 수학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여러 가지 가정이 주어질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가정들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논리적 추론 능력은 비교 분석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주어진 체계들을 서로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요구된다.

통합논술의 구체적인 평가 목표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개별적인 지식보다는 지식 간의 관련성을 추론해 내는 능력을 평가한다.
- 지식 암기 능력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 비판적 안목, 치밀한 분석력, 창의적 접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문제 해결 과정과 도출된 결과를 모두 평가한다.

③ 논술 문제 유형 및 논술 고득점 전략

가) 논술의 문제 유형

중앙대학교 논술이 지향하는 문제 유형은 하나의 문항에 인문, 사회, 수리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포괄하는 종합형이다. 다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특성이 반영될 것이다. 인문사회계열 논술시험은 언어논술형이 출제되며, 경영경제계열 논술시험은 언어논술형과 수리적 논술형 문항이 함께 출제된다. 한편,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수리·과학 영역의 단일 교과형 문항이 출제될 것이다.

제시문의 세밀한 독해 및 요약 능력을 평가하는 독해력 및 표현의 정확성은 논술의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제시문은 교과서와 EBS 교재에서 선택하지만, 필요에 따라 수험생들이 무리 없이 독해할 수 있도록 유문 작업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또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요약하고,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도 출제된다. 수리적 논술형 문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제시될 수 있다. 수험생들이 그래프, 도표, 통계 자료 등을 추론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상반된 자료를 제시한 후 상호 분석하기
- 상반된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거나 비판 또는 반박하기(주로 명제의 양립 가능성, 모순성, 실현 가능성이나 현실 여건 등)
-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주로 바람직한 극복 방안 제시 요구)
- 추상적인 주장을 한 제시문의 논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나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
- 그림이나 도표 등을 제시하고 이 자료들을 통합할 수 있는 원리 제시나 이러한 현상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 도표나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다른 제시문과 관련지어 그 의미를 해석하기
- 제시된 자료를 해석한 내용에 대한 오류를 분석하기
-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후 이를 토대로 미래에 있을 변화 방향 예측하기
-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나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그러한 관점이 오늘날의 현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해 보기
- 주어진 자료를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기

위의 분류는 각 항목마다 교류가 가능하며, 하나의 제시문에 여러 유형이 혼합된 형태로 출제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문제에 전제된 다양한 조건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자주 전제되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특정 제시문의 관점에서...
- 위의 제시문들을 종합하여...
- 제시문 안의 주된 논제를 추론하여...
- 제시문에서 논거를 찾아...
-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비한 수험생의 논증 능력이다. 논증은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이를 통한 정제되고 압축된 사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에 제시된 다양한 조건과 제시문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모든 비판의 근거를 자신의 상식에서 찾기보다는 주어진 제시문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나) 수리적 논술형 문항(경영경제계열)

경영경제계열 논술에서 출제되는 3번 수리 문항은 수험생들의 수리적 능력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리 문항의 유형은 제시문 또는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이를 수리적으로 모형화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 표와 그래프를 포함한 자료를 맥락에 맞게 해석하는 자료 분석 유형, 문제에 제시된 수리적 절차를 수행하여 요구하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유형 등이다.

수리 문항의 답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인문계 수학 교과 과정의 기초적인 내용(방정식, 부등식, 함수, 수열, 미분, 적분, 확률, 확률분포 등)을 벗어나지 않는다. 수험생들이 수리 문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문계 수학 교과 과정 중 주어진 상황을 수리적으로 표현하여 요구하는 정답을 이끌어내는 응용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한편, 사회과 교과서, 신문기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용어들이 실제 자료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왜 사용되는지를 평소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 논술 고득점 전략

1) 논술 준비

인문계열 논술 준비에서, 좋은 글을 많이 읽고 많이 쓰며 많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좋은 방법은 없다. 단,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으로 하루아침에 성과를 얻을 수는 없다. 여기에는 오랜 공들임의 시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우선 글을 읽고 요약하는 연습을 많이 해 보아야 한다. 최근 논술에서는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다. 긴 지문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기이다. 요약하기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글의 전체적인 논지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제대로 된 요약을 하기 위해서는 글을 분석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해, 체계적인 독해 능력과 명확한 표현 능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요약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버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요약하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원칙을 무시하다 보면 글의 꼬트머리 부분을 적당히 옮겨 적는 것을 요약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방식의 연습으로는 글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글의 요지를 파악해서 요약하는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글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요약적으로 진술할 수 있을 때 여러 개의 지문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논술도 가능해진다. 논술의 기본은 지문의 정확한 이해와 요약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지문을 분석하는 작업은 기초적인 독해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문을 분석적으로 읽고 요약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논술 채점을 해 보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한 예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수험생들은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논리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을 철저히 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수리적 문제 해결 능력은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다. 주로 언어를 통해 논리를 전개하는 인문계열의 논술과는 달리 자연계열의 논술은 수리적 접근, 즉, 수식을 통해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식을 종합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았다고 해도 이를 수식을 통해 표현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또한 논술에서 요구하는 수리적 능력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논술은 수험생이 제시문을 종합하여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를 수식으로 제시하고, 답을 찾는 과정을 요구한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중 몇몇은 답안을 수식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언어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수험생들은 '과학의 언어는 수학'임을 명심해야 한다. 간혹 'A와 B를 비교 설명하시오'처럼 언어로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와 같은 문제는 수식을 통해 문제 해결 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제시문의 내용이 그대로 옮겨진 답안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비록 문제 해결 과정을 수식화하지 못한다 해도 제시문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내린다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러한 시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인문계열 논술 답안 작성법

답안은 문제 유형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구조, 즉,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추기를 권장한다. 이러한 논술 구조는 다양한 제시문들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유형의 경우 특히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답안을 작성해야 채점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로 의사소통을 할 때, 의미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 하지만 글로 자신의 뜻을 전달할 때는 이러한 수정 과정이 없기 때문에 공인된 형식이나 구조의 힘을 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제로 답안을 작성할 때, 문제의 의미를 파악한 수험생이라면 제시된 글자의 수가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수험생들은 출제자가 요구하는 분량을 고려하여 자신의 견해의 요지만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따라서 서론, 본론, 결론의 분량을 사전에 세세하게 계산해 둘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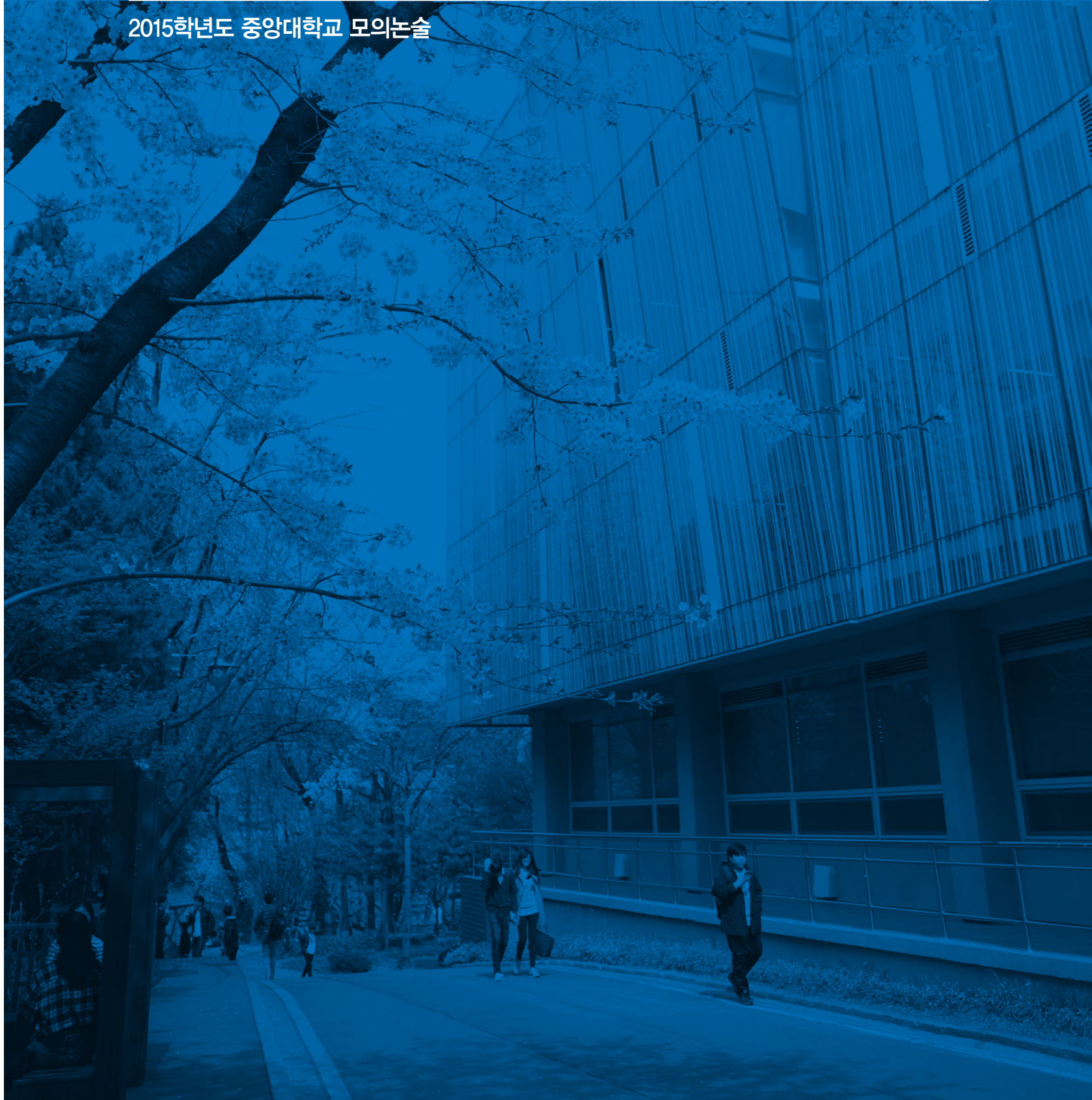
서론에서는 한두 문장으로 자신이 전개하고자 하는 논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서론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시문들의 핵심 논지와 부합하지 않는 일반론인 경우, 글 전체의 전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본론은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보편타당한 논제임을 밝힐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본론에서도 서론처럼 자신의 주장만을 전개한다면 논술 답안에 적합하지 않다. 제시문들은 수험생들이 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제시문에서 논거를 끌어내고, 그것을 논리에 맞게 종합적으로 연결한다면 논지와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 결론은 서론과 본론을 종합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결론은 서론에서 제시된 논제에 명확한 대답을 주어야 한다. 또한 결론에서는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본론의 연장선에서 급하게 끝을 맺는 경우, 글의 마무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수험생들은 결론에 적당한 분량을 배분하여 명쾌한 결론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3) 자연계열 논술 답안 작성법

자연계열의 단일 교과형 논술에서, 수험생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에 답안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문항마다 시간 및 집중력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 또한 문항별 배점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시간을 분배하여 사용할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 풀이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 나에게 어려운 문제는 다른 학생에게도 어렵다는 것을 잊지 말라. 총점이 높은 학생이 합격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택하여 완벽한 답안 작성을 하기 바란다. 중앙대학교의 자연계열 논술 채점 방식은 가점형인 것을 주목하라. 즉, 완벽한 답안을 쓰지 못하더라도 부분 점수를 최대한 받기 위해 집중하여야 한다. 1~2 점으로 당락이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예 포기하는 문항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중앙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문항은 전통적으로 1번 문항이 가장 쉬운 편이다. 이는 긴장하고 있을 수험생을 배려하는 중앙대학교의 출제 전통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1번 문항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기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 것이므로 최대한 집중하여 1번 문항에서 고득점을 얻는 것이 합격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문제지 뒷면의 여백을 충분히 활용하여 예시답안을 적고, 이후 본 답안지에 옮겨 적는 것도 사소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지혜라 할 수 있다.

Section 02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모의논술



논술가이드북으로 기본기를
다진 후, 기출문제를 풀며
중앙대학교 논술고사의
특징을 익혔어요.
그 특징을 바탕으로 생각의
기준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었어요.

교육학과 14학번
신다희



선배들이 말하는 중앙대학교 논술

Interview 01

논술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

— 저는 입학사정관 전형과 수능을 위주로 준비해오다, 고등학교 3학년 중반부터 논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학년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경험삼아 써봤던 논술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경험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간을 맞춰서 연습하기 보다는 지문을 분석 하는 법을 먼저 익힌 뒤, 문제 분석과 시간 조절에 요령을 얻은 뒤에야 실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글을 써보는 연습 외에도 평소에 시사상식과 사고훈련을 하기 위해 친구들과 '시사토론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신문을 읽고 주제를 정해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 과정이 논술에 필요한 사고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앙대 논술 지문은 특히 제가 공부했던 교과내용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평소에 교과공부를 성실히 했던 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논술가이드북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 논술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단연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학교별 논술고사의 특징을 익혀두어야 준비과정이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출문제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모범답안과 기준점이 존재할 때 더 완벽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중앙대 논술가이드북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모범답안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모범답안을 직접 써보기도 하고 채점기준에 맞춰 다시 한 번 고쳐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이드북으로 기본기를 먼저 잡은 뒤 중앙대의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풀어보니 생각의 기준이 전보다 뚜렷해졌고 방법이 보였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수능시험까지 준비하느라 고민이 배가 될 텐데, 특히나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지원할 대학을 지원하다보니 모의고사 점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수능점수는 물론 합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수능점수가 좋다고 해서 논술 준비를 게을리 하는 것도, 논술 실력에 자신 있다고 해서 수능준비에 소홀 하는 것도 결국에는 결정적 요소를 놓치는 일입니다. 본인의 경우에 따라 투자하는 시간을 나누되, 다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는 없으니, 지나친 선택과 집중은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논술고사 당일을 위해 조언하자면, 문제를 유의 깊게 읽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연습할 때는 전혀 실수 없이 쓰다가도 막상 시험 당일이 되면 긴장감에 중요한 요점을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뿐만 아니라 제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대 논술고사 날, 저는 중치기 약 10초전까지도 마지막 문장의 표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샤프와 지우개를 놓지 않았는데, 시험 당시 저는 그만큼 조그만 점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주는
응원의 메시지

— 제게 수험생 시절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이면서 동시에 가장 애뜻하게 추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큰 압박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공부할 시간이 다시 있을까 싶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 중에도 함께 해준 친구들과 주위의 응원은 큰 힘이 되어 그 시기를 묵묵히 견뎌내는 좋은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세요. 수험생활은 힘든 시기이지만, 동시에 인생의 진로를 정하고 자신을 깨닫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도 아직 대학교 1학년이고 여전히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 중이지만, 입시가 공부의 전부가 아닌 자신이 누구인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가 등의 많은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활을 지나 중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금, 저는 어느 때보다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학교에서 좋은 사람들과 원하던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곧 그런 행복이 찾아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능부터 논술시험까지! 수험생 여러분 모두의 펜이 가는 길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그 과정이 여러분의 합격 길이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화이팅!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모의논술

Section 02 인문사회계열

인문사회계열 모의논술 문제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 천사가 그리워하면서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죽는 일, 곧 유한성의 경험이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예기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인간은 유한성의 존재이면서 유한성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기억과 상상을 융접한다. 과거와 미래를 접목하는 동물계 유일의 시간 형식을 인간은 갖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천사 앞에 내놓을 위대한 자랑거리는 그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 순간성의 조건과 유한성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남미 작가 호르헤 루이 보르헤스가 나이 팔십을 넘기면서 쓴 시에 '순간'이라는 것이 있다. “다음 생에 태어나 내가 다시 산다면”으로 시작되는 시다. 그는 자신의 한 생이 '순간'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그 다음의 순간으로 이어진다면 그 새로운 생을 어떻게 달리 살아 볼 것인가. 다음 생에 태어나 내가 다시 산다면?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 / 완벽해지려고 버둥거리지 않으리.”를 통해 생의 순간적 단회성을 그 단회성을 넘어서는 연속의 상상과 접합하고 이미 한 생의 끝자락에 선 자의 기억은 지나간 생에 대한 성찰(실수하지 않으려고 왜 그토록 버둥거렸던가) 위에서 다른 삶의 방식(더 많이 실수하리)을 제시한다. 재탄생의 상상력은, 물론 불가능한 것에 대한 상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그 상상력이 과거의 기억, 혹은 지나간 삶에 대한 성찰과 결합해 있다는 점이다. 기억과 상상의 이런 접합은 인간이 처한 유한한 조건으로부터 나오고, 그 조건 때문에 가능하다. 게다가, 그 연속의 상상력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은 유한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인(완벽 추구의 불가능성)한다. 천사에게라면 이런 성찰과 상상은 필요하지 않다.
- (나) — 웬지 나는 선생님의 그런 세심한 안배에도 끼지 못하고 늘 가장자리에 처져 있었다. 가장자리에선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잘 보였고 선생님이 아무리 공평하려고 노력해도 선생님 손이나 치맛자락을 잡을 수 있는 아이는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런 애들은 대개 예쁘고 똑똑하고 잘 까불었다. 시골이나 현저동에서 사귀 동무들하고는 다른 진짜 서울 아이들이었다.
- 나는 중심부의 그런 애들을 입을 해 벌리고 침을 흘릴 정도로 부러워하고 시기도 했지만 닳을 자신은 없었다. 사람 에겐 누구나 죽었다 살아나도 흉내 못 낼 것 같은 게 있는 법인데 나에겐 그게 집단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
- 통학 길은 늘 혼자일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나를 문안에 있는 학교에 밀어 넣을 생각만 했지 같은 토레를 사귄 수 없는 게 얼마나 큰 불행감이 된다는 걸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나는 외로울 때마다 동무보다는 시골의 뒷동산을 더

많이 그리워했다. 오래 가뭄이 든 것처럼 생기 없는 나무가 듬성듬성 있을 뿐 맨땅을 드러낸 산이 너무나 이상했다. 서울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 짝 깔린 달개비꽃의 남색이 얼마나 영롱하다는 걸, 그리고 달개비 이파리엔 얼마나 고운 소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달개비 이파리의 도톰하고 반질반질한 잎살을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내면 노방보다도 얇고 섬세한 잎맥만 남았다. 그 잎맥을 입술에서 떼게 하면 소리가 나는데 나는 겨우 소리만 냈지만, 구슬픈 곡조를 붙일 줄 아는 애도 있었다.

나는 숨넘어가는 늙은이처럼 험벗고 정기 없는 산을 혼자서 매일 넘는 메마른 고독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추억을 만들고, 서울 아이들을 경멸할 구실을 찾았다. 사직 공원에 벚꽃이 지고 나면 이윽고 온 산에 비릿한 젖내를 풍기며 아카시아꽃이 피어났다. 아카시아꽃이 만개하자 사내아이들이 산에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냥질하듯 모질게 탐스러운 가장귀를 꺾어서 꽃을 따 먹었다.

아카시아꽃도 처음 보는 꽃이려니와 서울 아이들도 자연에서 곧장 먹을 걸 취한다는 걸 알게 된 것도 그 꽃을 통해 서였다. 잘 먹는 아이는 송이째 들고 포도송이에서 포도를 따 먹듯이 차례차례 맛있게 먹어 들어갔다. 나도 누가 볼 세라 몰래 그 꽃을 한 송이 먹어 보았더니 비릿하고 들척지근했다. 그러고는 헛구역질이 났다. 무언가로 입가심을 해야 들뜬 비위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나는 불현듯 싱아 생각이 났다. 우리 시골에선 싱아도 달개비만큼이나 흔한 풀이었다. 산기슭이나 길가 아무 데나 있었다. 그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짙레꽃 필 무렵 줄기가 가장 살이 오르고 연했다. 밭그스름한 줄기를 꺾어서 겹겹질을 길이로 벗겨 내고 속살을 먹으면 새콤달콤했다. 입안에 군침이 돌게 신맛이, 아카시아꽃으로 상한 비위를 가라앉히는 데는 그만일 것 같았다.

나는 마치 상처 난 몸에 붙일 약초를 찾는 짐승처럼 조급하고도 간절하게 산속을 찾아 헤맸지만 싱아는 한 포기도 없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나는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헛구역질을 하느라 그곳과 우리 고향 뒷동산을 헛갈리고 있었다.

(다) — 후천성 면역에서는 림프구의 수용체를 통해 병원균을 특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다. 후천성 면역에 관계되는 림프구로는 B세포와 T세포가 있다. 림프구는 다른 혈구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골수에서 나와 심장 윗부분의 흉강에 있는 흉선으로 이동하는 림프구는 T세포로 발달한다. 반면 골수에 남아서 계속 성숙하는 림프구는 B세포가 된다. T세포와 B세포는 식균 작용이나 항체 생성과 같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쥐에 항원 X를 주입한 후 시간에 따른 항체 X의 농도를 조사하고, 4주 뒤 그 쥐에 다시 항원 X를 주입하여 시간에 따른 항체 X의 농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항원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1차 면역 반응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첫 번째로 항원이 들어 왔을 때 기억 세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차 면역 반응 동안 활성화된 B세포의 일부는 기억 B세포로 분화되어 항원이 모두 제거된 뒤에도 체내에 오랫동안 남는다.

동일한 항원에 다시 감염되었을 때 기억 보조 T세포의 작용으로 기억 B세포가 다시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기억 B세포는 신속하게 형질 세포로 분화되어 다량의 항체를 생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항원이 2차, 3차 침입하면 처음보다 항체의 생성 속도가 훨씬 빠르며, 항체 생성량 또한 훨씬 많다. 대부분의 감염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방어가 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번 걸린 병에 두 번 걸리지 않는 것도 면역계가 기억하여 신속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역 기억 능력 때문에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

(라) —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신비화되고 통속화되는가, 영웅에 대한 기억이 시대에 따라 어떤 변천을 겪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더 사실에 가까운 영웅'의 모습에 다가서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영웅을 둘러싼 신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특히 국민 정체성 형성에 그들이 간여한 바를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영웅을 만들고 그들의 초상을 새롭게 덧칠해 온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욕망을 읽어 내어 그 시대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획득한다.

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 잔 다르크는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비와 경건을 가장한 바보 처녀'로 치부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집권기에 와서는 애국의 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민족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그 숭배의 열기가 더 달아올라,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잔을 '프랑스의 수호자'이자 '민중의 딸'로 재창조했다. 국경을 넘어 20세기 여성참정권자들에게 잔은 '전투적 페미니즘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유관순 열사'로 기억되었다.

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추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기억의 관리'가 부와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동시에 이는 기억과 표리 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 역사에서 기억이 구성되고 가공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족'이었다. 근대 역사학 자체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족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영웅은 중요한 기억의 터전을 차지해 왔다. 이때 영웅은 그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영웅은 종종 '애국'의 덕목과 결부되었다. 한국에서도 봉건 시대에 충군의 이념에 충실했던 인물이 구국의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근대의 영웅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묶어 주는 상상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영웅은 구성원 모두를 상하, 수평 관계 속에서 매개하고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미디어였다.

(마) 매체 환경이 변화되면서 매체 언어 독서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글을 찾아 읽으면서 자신이 모르는 정보를 동시에 검색하며 읽을 수 있고, 또 독서를 통해 얻어진 지식을 가상의 공간에 저장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토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기술 발달에 따른 매체의 변화가 정보와 지식의 구성과 유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독서 환경에 따라 매체 언어 독서를 할 때는 매체의 변화가 정보와 지식의 구성 및 유통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매체 언어를 읽기 위해서는 매체를 다루는 최소한의 기술, 즉 정보 기술에 대한 이해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렇듯 특히 글과 그림, 그리고 음향적 정보들이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매체 언어의 독서를 융합적 읽기라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영상 매체를 다루는 것은 융합 매체에 대한 지식은 물론, 기호학적 지식과 그러한 다양한 매체의 처리 방식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지적 기능이 요구된다. 오늘날 다매체 사회에서의 독서란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매체 생산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한편, 매체의 발달에 따라 지식의 구성 방식이나 지식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지식을 고정불변의 객관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인류의 지혜와 지식을 책으로 기록하여 보관하고자 했으며, 한 번 기록된 지식과 정보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바뀔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지식이란 것도 각 사회와 문화마다 다를 수 있으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지식도 변화되어 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과학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지식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식의 양과 종류가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인간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축적된 모든 지식을 읽거나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다. 컴퓨터 및 인터넷과 같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 — 음악적 불모지까지의 통로는 어떻게 만드는가. 악곡의 진행 과정이 기억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 방법은 간단하나, 어려운 것은 실천이다.

음악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음악적 불모지라서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은 음악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음악적 경험을 얻을 수 없다. 음악은 음악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놀아난다는 말은 음악과 마음 사이에 하나의 연결점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통로가 없다는 뜻이다. 이 통로의 개척이 음악적 경험을 위하여 첫째로 해야 할 일이다. 아무리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은, 통로의 개척은 반복적 음악 청취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동일한 곡을 백 번 들어야 할 수도 있고, 천 번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천 번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천 번이라도 들어야 한다. 곡의 진행 과정이 기억될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 ‘곡 진행 과정의 기억’이라는 말이 음악적 경험에서 핵심적인 어휘가 된다. 기억되지 않는 대상에는 의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악은 시간을 타고 흐른다고 한다. 시간 속에서 음들이 여행을 한다고나 할까. 여행에는 출발점이 있고, 거쳐야 할 지점이 있고, 여행의 목적지가 있다. 또한 여행 스케줄이 있고 여행의 통로가 있다. ‘곡 진행 과정의 기억’을 강조하는 것은 이 통로를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 통로를 기억하였다고 해서 여행의 의미를 자동으로 파악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음악은 음악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놀아나지 않게 음악과 마음 사이에 하나의 연결점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이 통로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복적 청취에 의해서 음악과 마음 사이에 하나의 통로가 생기고 나면, 음악적 불모지의 개간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

(사) — 숙종 연간에 활약한 저명한 문사 김득신(金得臣)은 글을 한번 읽었다 하면 최소한 천 번을 읽었고, 제법 좋아하는 책이면 만 번 이상을 읽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사기(史記)” ‘백이전(伯夷傳)’은 너무 좋아한 나머지 1억 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하니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독수(讀數)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처음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 ‘백이전’을 많이 읽었다는 사실을 과장하여 말하였겠지 치부하고 말았었다. 3천 번을 읽는다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1억이라니! 하지만 김득신의 “백곡집(栢谷集)”에서 고문(古文) 36편을 읽고 각기 몇 번을 읽었는지를 밝혀 놓은 ‘고문삼십육수독수기(古文三十六首讀數記)’를 확인하고서 전에 들은 이야기가 가담항설(街談巷說)에 그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몇 번을 읽었는가를 계산하는 것은 경서와 문장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암송이었기 때문이다. 옛사람은 눈으로 훑어 읽는 안독(眼讀)이 아니라 울조를 실어 소리 내어 읽는 성독(聲讀)을 하였다. 김득신의 독서는 당연히 성독이었다. 그래서 책을 읽은 수효를 계산하는 서산(書算)을 이용하여 독수(讀數)를 헤아렸던 것이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구양독서법(歐陽讀書法)에서 “글자의 수를 헤아려 보았더니 ‘효경(孝經)’은 1,903자, ‘논어(論語)’는 11,750자, ‘맹자(孟子)’는 30,685자, ‘주역(周易)’은 24,107자, ‘서전(書傳)’은 25,700자, ‘시전(詩傳)’은 39,234자, ‘예기(禮記)’는 99,010자, ‘주례(周禮)’는 45,806자, ‘춘추좌전(春秋左傳)’은 196,845자였다. 날마다 3백 자씩 외운다면 4년 반이면 다 마칠 수가 있다. 조금 우둔한 사람이라서 반으로 줄여 외운다 해도 9년이면 다 외울 수가 있다.”라고 하여 암송해야 할 책의 자수(字數)까지 일일이 헤아려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수를 계산하였다. 읽어야 할 책이라면 아예 통째로 외우는 것을 중시하였던 시대의 공부법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사례를 찾아보면, 송(宋)의 홍매(洪邁)는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세 번이나 필사(筆寫)하였는데 금나라 종실(宗室) 한 사람은 그 책을 30여 차례나 읽었다고 한다. 조선의 유희춘(柳希春)은 “주자대전(朱子大全)”을 암송하였고, 송의 필(宋翼弼)은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암송하였는데, 조헌(趙憲)은 그 두 저서를 모두 암송하였다고 한다. “자치통감”은 294권, “주자대전”은 124권, “주자어류”는 140권이니 인류의 저서 가운데 방대함으로 손꼽히는 것들이다. 이런 분들은 비범하기 짝이 없는 분들인데도 저다지 근면하게 공부하였다.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공부법을 기록으로 남긴 학자가 적지 않지만, 나의 기억으로는, 항해(沆瀣) 홍길주(洪吉周)가 “숙수념(孰遂

念)” ‘사부송유(四部誦惟)’편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옛사람의 독서법을 소상히 엿볼 수가 있어서 인상에 깊이 남아 있다. 그는 암송해야 할 글의 목록과 읽어야 할 책의 순서, 과목, 시간, 자세를 목록으로 만들어 실천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들어 보면, “연소한 사람은 경서 전체를 외워야 하고 뽑아 외워서는 안 된다.”이다.

- (아) ————— 도편 추방제란 국가에 해를 끼칠 위험한 인물을 민회에서 조개껍데기나 도자기 조각에 이름을 써내게 한 다음, 6,000표 이상 받은 자를 10년 간 공동체 밖으로 추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편 추방제는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참주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도편 추방제는 일종의 국민 소환 제도로서 일반 시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치권력을 통제할 수 있었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위정자들에 의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정치적 경쟁자를 추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중우 정치를 유발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 한 예로, 아테네를 제일의 해운국으로 만들고 직접 함대를 지휘하여 페르시아 해군을 격파하기도 했던 테미스토클레스는 도편 추방제에 의해 추방된 대표적인 희생자였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기억의 역할’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사)의 ‘학습법’이 현대 사회에서 갖는 한계와 효용을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의 논지를 고려하여, 제시문 (라)에 나타난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평가 목표와 출제 의도

① 평가 목표

인문계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정확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올해의 논술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과 EBS 교재에서 논술 제시문을 선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1) '기억의 역할'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포함된 다양한 시각들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능력과 이 논지들을 창의적으로 연계하는 능력, 2) 현대사회에서 기억이 갖는 양면성, 즉 디지털 시대 기억의 한계와 효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유연한 사고력, 3) 후대인들의 기억에 의해서 창조되는 영웅 신화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동시에 측정한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인문학적·사회과학적 제시문들의 논지와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또한 이를 명확하게 구성하고 표현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② 출제 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 [문제 1] 이 문제에서 제시된 네 개의 제시문은 우리의 삶에서 '기억'이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통 주제로 묶일 수 있다. 이 문제는 '기억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네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서로 분별하여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해 내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제시문에서 '기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각각의 역할이 제시문 간에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성찰과 결합하여 불가능에 대한 상상과 미래의 계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게 하는 토대(제시문 가), 2) 타 집단과 구분짓는 기제이자 정서적 위안의 원천(제시문 나), 3)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미래에 직면할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제시문 다), 4) 국민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영웅이라는 대상을 만들어 국민들을 통합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매개(제시문 라)로 요약될 수 있는 지문의 내용을 상호 비교하고 대조하여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반대의 논지를 가진 두 글을 이용하여 한 제시문의 주장을 옹호 혹은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1) 제시문 (사)에서 학습의 기본은 반복적인 독서를 통한 경서의 전체적인 암송이라는 논지를 파악하고 2)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가 제시문 (사)의 논지를 강화시키는 지 아니면 약화시키는지를 파악한 후 3) 해당 제시문의 논지를 사용하여 제시문 (사)의 주장을 옹호 혹은 비판하는 순서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응시자들은 제시문 (마)에서 주장하는 현대사회의 지식 습득은 출판된 활자 중심의 '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또 그 지식의 양이 방대하여 암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중점으로 (사)에 나타난 암송 중심의 학습법을 비판할 수 있고 (바)에 나타난 반복적 음악 청취를 통한 곡 진행과정의 기억이 음악과 마음의 연결점이 된다는 점을 들어 (사)에 나타난 반복과 암송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여전히 필수 불가결한 점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 [문제 3] 이 문제는 특정한 관점과 논지를 근거로, 향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전망할 수 있는 사고력을 측정하려는 의도에서 출제되었다.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진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아)에 나타난 문제적 상황, 즉 참주의 부당한 권력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도편 추방제가 위정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이해함으로써 제시문 (라)에

나타난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이 초래할 문제점, 즉 국민통합의 기제로 만들어진 영웅 신화도 언제든 국민을 선동하고 조종하는데 악용될 수 있음을 간파하는 문제 예측력을 측정하려는 의도에서 출제되었다. 요컨대 역사적 사례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고독한 성찰과 불안한 의심의 극장」, 『독서와 문법 I』, 지학사, 2012.
- 제시문 (나):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문학 I』, 천재교과서, 2012.
- 제시문 (다): 「후천성 면역」, 권혁빈 외, 『생명 과학 I』, 교학사, 2011.
「후천성 면역」, 박희승 외, 『생명 과학 I』, 교학사, 2011.
- 제시문 (라): 광노준 외, 『수능기출플러스 국어영역, 독서』, EBS, 2012.
- 제시문 (마): 「매체 언어 독서와 지식관의 변화」, 윤여탁 외, 『독서와 문법 I』, 미래엔, 2012.
- 제시문 (바): 「음악의 감상법과 음악의 의미」, 박영목 외, 『독서와 문법 I』, 천재교육, 2012.
- 제시문 (사): 안대희, 「1억 1만 3천 번의 독서」, 『독서와 문법 II』, 미래엔, 2012.
- 제시문 (아): 『EBS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법과 정치』, EBS, 2012.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지학사) 교과서에 실린 조정일의 「고독한 성찰과 불안한 의심의 극장」의 일부이다. 이 글은 인간의 유한성을 기억과 성찰, 상상력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 미래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상상이 가능한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이 과거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이에 대한 성찰이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요지이다. 따라서 과거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성찰과 결합되었을 때 상상력의 근간이 되고 미래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 I』(천재교과서) 교과서에 실린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시골과 서울 변두리에서 살던 주인공이 서울 사대문안 학교에 전학 온 후 서울 아이들에 대해 느끼게 되는 이질감을 고향의 자연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자연과의 대비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 글에서 기억은 주인공을 서울 아이들과 분리하는 기제임과 동시에 주인공의 고독과 소외감을 달래주고 위안을 주는 원천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생명 과학 I』(권혁빈 외, 교학사)에 실린 후천성 면역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생명 과학 I』(박희승 외, 교학사)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이 글은 병원체에 대한 기억이 세포에 남아 이후 동일한 항원이 침입했을 때 신속하게 반응함으로써 후천성 면역 반응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유사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제시문 (라)는 2009년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문제로 『수능기출플러스 국어영역, 독서』(EBS)에 실린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영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집단적이고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억 관리의 산물로 보고 있다. 즉, 영웅의 이미지는 시대와 집단의 필요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전달된 기억의 재구성에 의해서 윤색된다. 이러한 ‘영웅 만들기’는 위정자에 의해서 대중을 통치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음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Ⅱ(미래엔)』에 실린 「매체 언어 독서와 지식관의 변화」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매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독서법도 달라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현대의 매체환경에서는 글과 그림 그리고 음향적 정보들을 융합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현대사회에서는 지식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할 뿐 아니라, 그 지식의 양이 방대해져서 기억하기가 어렵고 기술로 발달로 인하여 모든 지식을 기억하는 것이 불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Ⅱ(천재교육)』에 실린 이강숙의 「음악의 감상법과 음악의 의미」의 일부분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음악적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음악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마음의 연결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악곡의 진행과정이 기억될 정도로 반복적인 청취가 필수적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와 문법 Ⅱ(미래엔)』에 실린 안대희의 「『역 1만 3천 번의 독서』」의 일부분이다. 이 텍스트는 조선 중기 시인 '김득신의 독수기'에 관한 글로서, 옛 선비들이 왜 암송이라는 독서문화를 중요시했는지에 대해 언급한다. 글쓴이는 빠른 시간에 많은 내용을 읽는 방식보다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소리 내어 읽으면서 글의 의미를 되새기고 깊이 사고하는 암송이라는 읽기 방식이 갖는 가치를 강조한다. 암송은 선현들의 글에 아로새겨진 의미와 정신을 내면화하는 경건한 독서 행위로서, 무엇보다도 정전의 심도 있는 이해를 중요시 했던 당대의 시대 정신이 반영된 독서법이라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제시문 (아)는

『EBS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법과 정치』에서 인용한 텍스트로서, 고대 그리스 직접 민주 정치 제도인 도편 추방제의 양면성을 설명하고 있다. 도편 추방제는 시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주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국민 소환 제도이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오히려 국민이 기만 당하는 중우 정치를 초래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예시 답안

- [문제 1] — 제시문 (가)~(라)는 기억이 인간의 삶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시문 (가)에서 인간의 유한한 기억은 과거에 대한 성찰과 결합하여 불가능한 일을 상상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상상력의 토대이자 미래의 길잡이가 된다. 제시문 (나)에서 고향에 대한 기억은 화자를 타 집단과 구분 짓는 기제로 작동함과 동시에 화자가 타향살이에서 겪는 소외, 열등감, 고독을 달래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제시문 (다)는 면역계가 과거에 경험한 항원을 기억해 두었다가 동일 항원이 침입했을 때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후천성 면역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유사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제시문 (라)에서는 특정 사회 집단에 의해 선택되거나 관리된 기억이 국민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영웅이라는 대상을 만들어 냄으로써 국민을 통합하는 매개로 작동한다. 요컨대 기억은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확장시켜 주거나 정서적 위안을 주기도 하고 미래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통합의 매개로 작동하기도 한다. [566자]
- [문제 2] — 제시문 (사)의 텍스트 암송을 통한 학습법은 제시문 (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향 등을 아우르는 융합적 읽기 능력이 필요하므로 단순 텍스트 암송만으로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변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대의 지식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디지털화된 지식은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므로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지식 습득의 방식으로서 암송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시문 (바)에 따르면, 반복적 청취를 통해 ‘곡 진행 과정’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음악을 이해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반복에 의한 기억은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같은 맥락에서 반복적 독서를 통한 텍스트의 암송은 디지털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지식 습득 방식이 될 수 있다. 가변적이고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취사선택해서 편집하고 사용하는 능력 못지 않게 해당 분야의 지식을 반복과 기억을 통해 이해하고 체화하는 학습법이 중요하다. [570자]
- [문제 3] — 제시문 (아)는 참주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도편 추방제가 직접 민주 정치 실현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위정자에 의해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대중을 기만하고 선동하여 심지어 영웅마저도 사회로부터 추방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제시문 (라)의 영웅이 사회적 틀 속에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 선택된 기억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대중이 동일시할 대상으로 수용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영웅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은 시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영웅 형성 메커니즘은 국민통합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제시문 (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자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영웅 이미지를 조작·가공했을 때, 대중을 조종하는 중우정치의 기제로 전락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하다. [407자]

채점 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기억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논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37점): 8~37점

(가): 기억은 성찰과 결합하여 상상력의 토대이자 미래의 길잡이가 되어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서게 한다.

(나): 고향에 대한 기억은 주인공을 타 집단과 구분 짓는 기제임과 동시에 주인공이 타향살이에서 겪는 소외, 열등감, 고독 등을 달래주는 원천이다.

(다): 향원에 대한 기억이 향후 동일한 향원에 대한 대처를 신속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유사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라): 시간적, 공간적 맥락 속에서 특정 사회 집단에 의해 선택되거나 관리된 기억은 국민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영웅이라는 대상을 만들어내 국민을 통합하는 매개로 작동한다.

- 네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모두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30~37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22~29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15~21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의 내용만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8~14점 부여

※ 단, 참신한 분류법으로 지문의 차이를 묶어 서술한 경우, +3점을 부여한다.

2) 네 개의 제시문의 특징을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3점): 0~3점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1점),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2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논지의 차이점 파악 (37점): 8~37점	4개를 정확히 제시한 경우	30~37점
		3개를 제시한 경우	22~29점
		2개를 제시한 경우	15~21점
		1개를 제시한 경우	8~14점
		참신한 분류	최대 3점 추가
	② 논리적 구성(3점): 0~3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점
		서론과 결론의 내용이 충실	2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사)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평가한다(10점): 2~10점 부여

제시문 (사)는 경서와 문장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학습법은 암송이라고 하면서 그 경서의 암송을 위하여서는 반복적인 독서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 제시문 (사)에 나타난 학습법으로 반복적인 독서나 암송을 들지 못한 경우, 2점 부여
- 제시문 (사)에 나타난 학습법으로 반복적인 독서만을 제시한 경우, 5점 부여
- 제시문 (사)에 제시된 반복적인 독서가 궁극적으로 경서 전체에 대한 암송을 위한 것임을 파악하고 반복적인 독서가 아니라 암송을 제시된 학습법으로 파악한 경우, 10점 부여

2) 제시문 (사)를 제시문 (마) 와 (바)를 이용하여 적절히 비판하고 옹호하였는지를 평가한다(30점): 5~30점

① 제시문 (마) 평가: 제시문 (마)의 주요 논지와 그것들을 이용한 제시문 (사)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i) 매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대사회의 정보들은 글, 그림 그리고 음향적 정보들이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단순 암송을 넘어선 융합적 읽기가 필요하다.
- ii) 현대의 지식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시대, 장소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지식을 고정불변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록한 책을 단순 암송 하는 것은 지식 습득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 iii) 지식의 양이 방대하여 모든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iv)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모든 지식을 기억하지 않아도 그 지식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② 제시문 (바) 평가: 제시문 (바)에 나타난 제시문 (사)의 효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i) 음악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이 음악과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은 반복청취이다.
- ii) 반복적 청취를 통해 '곡 진행 과정'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음악을 이해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기억은 음악의 이해에 필수적이다.
- iii) 마찬가지로 반복적 독서를 통한 텍스트의 암송은 디지털 현대 사회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여전히 유용한 방법이다.

- 제시문 (마)를 제시문 (사)의 한계로 그리고 제시문 (바)를 제시문 (사)에 대한 효용으로 연결하지 못한 경우, 2~5점 부여
- 한계와 효용을 보이기 위한 제시문의 선택은 옳았으나 그 2개의 제시문의 논지를 모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6~10점 부여
- 한계와 효용을 보이기 위한 제시문의 선택은 옳았으나 2개의 제시문 중 하나의 논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비판 혹은 옹호에 사용하였을 경우, 11~15점 부여
- 한계와 효용을 보이기 위한 제시문의 선택도 옳고 2개의 제시문의 논지를 모두 제대로 파악하였을 경우, 16~25점 부여
- 제시문의 선택, 각 제시문의 논지의 파악이 옳고 각 제시문의 논지와 제시문 (사)에 대한 한계와 효용에 대한 연결이 우수한 경우, 26~30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사)의 논지 파악(10점): 2~10점	제시문 (사)에 나타난 학습법이 반복적인 독서를 통한 경서의 암송임을 파악한 경우	8~10점
		학습법으로 반복적인 독서만을 제시한 경우	5~7점
		제시문 (사)에서 학습법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2~4점
	② (마)와 (바)의 논지를 이용하여 (사)의 논지를 평가(30점): 2~30점	제시문의 선택, 각 제시문의 논지의 파악이 옳고 각 제시문의 논지와 제시문(사)에 대한 한계와 효용에 대한 연결이 우수한 경우	26~30점
		한계와 효용을 보이기 위한 제시문의 선택도 옳고 2개의 제시문의 논지를 모두 제대로 파악하였을 경우	16~25점
		2개의 제시문 중 하나의 논지만 제대로 평가하고 비판 혹은 옹호에 사용하였을 경우	11~15점
		한계와 효용을 보이기 위한 제시문의 선택은 옳았으나 2개의 제시문의 논지를 모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6~10점
		제시문 (마)를 제시문 (사)의 한계로 그리고 제시문 (바)를 제시문 (사)에 대한 효용으로 연결하지 못한 경우	2~5점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아)의 논지, 즉 도편 추방제의 양면성(장점과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10점): 2~10점
 제시문 (아)의 논지: 참주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도편 추방제는, 직접 민주 정치 실현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위정자에 의해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대중을 기만하고 선동하여 심지어 영웅마저도 사회로부터 추방할 수 있는 기제로 전락할 수 있다.

- 도편 추방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중 한 측면만 기술한 경우, 2~5점 부여
- 도편 추방제의 양면성을 직시하여 정확하게 비교 기술한 경우, 6~10점 부여

2) (라)에 나타난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의 작동 원리를 파악했는지를 평가한 후, (아)의 사례와 유비적 관점에서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기술하는지 평가한다(10점): 2~10점

-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 영웅은 사회적 틀 속에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 선택된 기억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이렇게 형성된 영웅은 대중이 동일시할 대상으로 수용된다. 따라서 영웅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은 시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에 내재된 위험성: 영웅 형성 메커니즘은 국민통합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권력자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영웅 이미지를 조작, 가공했을 때, 대중을 기만하거나 조종하는 중우 정치의 기제로 악용될 수 있다.

-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의 원리와 위험성 중 한 가지만 기술한 경우, 2~5점 부여
-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이 작동 원리에 내재한 위험성을 예측한 경우, 6~10점 부여

-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아)의 논지파악(10점): 2~10점	장점과 한계 중 하나만 기술한 경우	2~5점
		양면성을 모두 기술한 경우	6~10점
	②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 파악과 위험성 예측(10점): 2~10점	영웅 만들기 작동원리와 위험성 중 하나만 기술한 경우	2~5점
		영웅 만들기 작동원리를 토대로 그 위험성을 예측한 경우	6~10점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모의논술

Section 02 경영경제계열

경영경제계열 모의논술 문제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 천사가 그리워하면서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죽는 일, 곧 유한성의 경험이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예기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인간은 유한성의 존재이면서 유한성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기억과 상상을 융접한다. 과거와 미래를 접목하는 동물계 유일의 시간 형식을 인간은 갖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천사 앞에 내놓을 위대한 자랑거리는 그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 순간성의 조건과 유한성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남미 작가 호르헤 루이 보르헤스가 나이 팔십을 넘기면서 쓴 시에 '순간'이라는 것이 있다. “다음 생에 태어나 내가 다시 산다면”으로 시작되는 시다. 그는 자신의 한 생이 '순간'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그 다음의 순간으로 이어진다면 그 새로운 생을 어떻게 달리 살아 볼 것인가. 다음 생에 태어나 내가 다시 산다면?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 / 완벽해지려고 버둥거리지 않으리.”를 통해 생의 순간적 단회성을 그 단회성을 넘어서는 연속의 상상과 접합하고 이미 한 생의 끝자락에 선 자의 기억은 지나간 생에 대한 성찰(실수하지 않으려고 왜 그토록 버둥거렸던가) 위에서 다른 삶의 방식(더 많이 실수하리)을 제시한다. 재탄생의 상상력은, 물론 불가능한 것에 대한 상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그 상상력이 과거의 기억, 혹은 지나간 삶에 대한 성찰과 결합해 있다는 점이다. 기억과 상상의 이런 접합은 인간이 처한 유한한 조건으로부터 나오고, 그 조건 때문에 가능하다. 게다가, 그 연속의 상상력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은 유한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인(완벽 추구의 불가능성)한다. 천사에게라면 이런 성찰과 상상은 필요하지 않다.
- (나) — 웬지 나는 선생님의 그런 세심한 안배에도 끼지 못하고 늘 가장자리에 처져 있었다. 가장자리에선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잘 보였고 선생님이 아무리 공평하려고 노력해도 선생님 손이나 치맛자락을 잡을 수 있는 아이는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런 애들은 대개 예쁘고 똑똑하고 잘 까불었다. 시골이나 현저동에서 사귀 동무들하고는 다른 진짜 서울 아이들이었다.
- 나는 중심부의 그런 애들을 입을 해 벌리고 침을 흘릴 정도로 부러워하고 시기기도 했지만 닳을 자신은 없었다. 사람에게겐 누구나 죽었다 살아나도 흉내 못 낼 것 같은 게 있는 법인데 나에겐 그게 집단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
- 통학 길은 늘 혼자일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나를 문안에 있는 학교에 밀어 넣을 생각만 했지 같은 또래를 사귄 수 없는 게 얼마나 큰 불행감이 된다는 걸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나는 외로울 때마다 동무보다는 시골의 뒤통산을 더

많이 그리워했다. 오래 가뭄이 든 것처럼 생기 없는 나무가 듬성듬성 있을 뿐 맨땅을 드러낸 산이 너무나 이상했다. 서울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 짝 깔린 달개비꽃의 남색이 얼마나 영롱하다는 걸. 그리고 달개비 이파리엔 얼마나 고운 소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달개비 이파리의 도톰하고 반질반질한 잎살을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내면 노방보다도 얇고 섬세한 잎맥만 남았다. 그 잎맥을 입술에서 떼게 하면 소리가 나는데 나는 겨우 소리만 냈지만, 구슬픈 곡조를 붙일 줄 아는 애도 있었다.

나는 숨넘어가는 늙은이처럼 험벗고 정기 없는 산을 혼자서 매일 넘는 메마른 고독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추억을 만들고, 서울 아이들을 경멸할 구실을 찾았다. 사직 공원에 벚꽃이 지고 나면 이윽고 온 산에 비릿한 젖내를 풍기며 아카시아꽃이 피어났다. 아카시아꽃이 만개하자 사내아이들이 산에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냥질하듯 모질게 탐스러운 가장귀를 꺾어서 꽃을 따 먹었다.

아카시아꽃도 처음 보는 꽃이려니와 서울 아이들도 자연에서 곧장 먹을 걸 취한다는 걸 알게 된 것도 그 꽃을 통해 서였다. 잘 먹는 아이는 송이째 들고 포도송이에서 포도를 따 먹듯이 차례차례 맛있게 먹어 들어갔다. 나도 누가 볼 세라 몰래 그 꽃을 한 송이 먹어 보았더니 비릿하고 들척지근했다. 그러고는 헛구역질이 났다. 무언가로 입가심을 해야 들뜬 비위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나는 불현듯 싱아 생각이 났다. 우리 시골에선 싱아도 달개비만큼이나 흔한 풀이었다. 산기슭이나 길가 아무 데나 있었다. 그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짙레꽃 필 무렵 줄기가 가장 살이 오르고 연했다. 발그스름한 줄기를 꺾어서 겹겹질을 길이로 벗겨 내고 속살을 먹으면 새콤달콤했다. 입안에 군침이 돌게 신맛이, 아카시아꽃으로 상한 비위를 가라앉히는 데는 그만일 것 같았다.

나는 마치 상처 난 몸에 붙일 약초를 찾는 짐승처럼 조급하고도 간절하게 산속을 찾아 헤맸지만 싱아는 한 포기도 없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나는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헛구역질을 하느라 그곳과 우리 고향 뒷동산을 헛갈리고 있었다.

(다) — 후천성 면역에서는 림프구의 수용체를 통해 병원균을 특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다. 후천성 면역에 관계되는 림프구로는 B세포와 T세포가 있다. 림프구는 다른 혈구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골수에서 나와 심장 윗부분의 흉강에 있는 흉선으로 이동하는 림프구는 T세포로 발달한다. 반면 골수에 남아서 계속 성숙하는 림프구는 B세포가 된다. T세포와 B세포는 식균 작용이나 항체 생성과 같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쥐에 항원 X를 주입한 후 시간에 따른 항체 X의 농도를 조사하고, 4주 뒤 그 쥐에 다시 항원 X를 주입하여 시간에 따른 항체 X의 농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항원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1차 면역 반응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첫 번째로 항원이 들어 왔을 때 기억 세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차 면역 반응 동안 활성화된 B세포의 일부는 기억 B세포로 분화되어 항원이 모두 제거된 뒤에도 체내에 오랫동안 남는다.

동일한 항원에 다시 감염되었을 때 기억 보조 T세포의 작용으로 기억 B세포가 다시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기억 B세포는 신속하게 형질 세포로 분화되어 다량의 항체를 생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항원이 2차, 3차 침입하면 처음보다 항체의 생성 속도가 훨씬 빠르며, 항체 생성량 또한 훨씬 많다. 대부분의 감염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방어가 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번 걸린 병에 두 번 걸리지 않는 것도 면역계가 기억하여 신속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역 기억 능력 때문에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

(라) —————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신비화되고 통속화되는가, 영웅에 대한 기억이 시대에 따라 어떤 변천을 겪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더 사실에 가까운 영웅’의 모습에 다가서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영웅을 둘러싼 신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특히 국민 정체성 형성에 그들이 간여한 바를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영웅을 만들고 그들의 초상을 새롭게 덧칠해 온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욕망을 읽어 내어 그 시대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획득한다.

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 잔 다르크는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비와 경건을 가장한 바보 처녀’로 치부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집권기에 와서는 애국의 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민족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그 숭배의 열기가 더 달아올라,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잔을 ‘프랑스의 수호자’이자 ‘민중의 딸’로 재창조했다. 국경을 넘어 20세기 여성참정권자들에게 잔은 ‘전투적 페미니즘’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유관순 열사’로 기억되었다.

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추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기억의 관리’가 부와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동시에 이는 기억과 표리 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 역사에서 기억이 구성되고 가공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족’이었다. 근대 역사학 자체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족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영웅은 중요한 기억의 터전을 차지해 왔다. 이때 영웅은 그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영웅은 종종 ‘애국’의 덕목과 결부되었다. 한국에서도 봉건 시대에 충군의 이념에 충실했던 인물이 구국의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근대의 영웅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묶어주는 상상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영웅은 구성원 모두를 상하, 수평 관계 속에서 매개하고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미디어였다.

(마) ————— 매체 환경이 변화되면서 매체 언어 독서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글을 찾아 읽으면서 자신이 모르는 정보를 동시에 검색하며 읽을 수 있고, 또 독서를 통해 얻어진 지식을 가상의 공간에 저장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토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기술 발달에 따른 매체의 변화가 정보와 지식의 구성과 유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독서 환경에 따라 매체 언어 독서를 할 때는 매체의 변화가 정보와 지식의 구성 및 유통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매체 언어를 읽기 위해서는 매체를 다루는 최소한의 기술, 즉 정보 기술에 대한 이해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렇듯 특히 글과 그림, 그리고 음향적 정보들이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매체 언어의 독서를 융합적 읽기라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영상 매체를 다루는 것은 융합 매체에 대한 지식은 물론, 기호학적 지식과 그러한 다양한 매체의 처리 방식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지적 기능이 요구된다. 오늘날 다매체 사회에서의 독서란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매체 생산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한편, 매체의 발달에 따라 지식의 구성 방식이나 지식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지식을 고정불변의 객관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인류의 지혜와 지식을 책으로 기록하여 보관하고자 했으며, 한 번 기록된 지식과 정보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바뀔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지식이란 것도 각 사회와 문화마다 다를 수 있으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지식도 변화되어 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과학 기술이 발

달한 사회에서 지식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식의 양과 종류가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인간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축적된 모든 지식을 읽거나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다. 컴퓨터 및 인터넷과 같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 ————— 음악적 불모지까지의 통로는 어떻게 만드는가. 악곡의 진행 과정이 기억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 방법은 간단하나, 어려운 것은 실천이다.

음악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음악적 불모지라서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은 음악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음악적 경험을 얻을 수 없다. 음악은 음악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놀아난다는 말은 음악과 마음 사이에 하나의 연결점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통로가 없다는 뜻이다. 이 통로의 개척이 음악적 경험을 위하여 첫째로 해야 할 일이다. 아무리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은, 통로의 개척은 반복적 음악 청취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동일한 곡을 백 번 들어야 할 수도 있고, 천 번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천 번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천 번이라도 들어야 한다. 곡의 진행 과정이 기억될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 ‘곡 진행 과정의 기억’이라는 말이 음악적 경험에서 핵심적인 어휘가 된다. 기억되지 않는 대상에는 의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악은 시간을 타고 흐른다고 한다. 시간 속에서 음들이 여행을 한다고나 할까. 여행에는 출발점이 있고, 거쳐야 할 지점이 있고, 여행의 목적지가 있다. 또한 여행 스케줄이 있고 여행의 통로가 있다. ‘곡 진행 과정의 기억’을 강조하는 것은 이 통로를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 통로를 기억하였다고 해서 여행의 의미를 자동으로 파악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음악은 음악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놀아나지 않게 음악과 마음 사이에 하나의 연결점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이 통로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복적 청취에 의해서 음악과 마음 사이에 하나의 통로가 생기고 나면, 음악적 불모지의 개간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

(사) ————— 숙종 연간에 활약한 저명한 문사 김득신(金得臣)은 글을 한번 읽었다 하면 최소한 천 번을 읽었고, 제법 좋아하는 책이면 만 번 이상을 읽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사기(史記)” ‘백이전(伯夷傳)’은 너무 좋아한 나머지 1억 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하니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독수(讀數)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처음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 ‘백이전’을 많이 읽었다는 사실을 과장하여 말하였는지 치부하고 말았었다. 3천 번을 읽는다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1억이라니! 하지만 김득신의 “백곡집(栢谷集)”에서 고문(古文) 36편을 읽고 각기 몇 번을 읽었는지를 밝혀 놓은 ‘고문삼십육수독수기(古文三十六首讀數記)’를 확인하고서 전에 들은 이야기가 가담항설(街談巷說)에 그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몇 번을 읽었는가를 계산하는 것은 경서와 문장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암송이었기 때문이다. 옛사람은 눈으로 훑어 읽는 안독(眼讀)이 아니라 울조를 실어 소리 내어 읽는 성독(聲讀)을 하였다. 김득신의 독서는 당연히 성독이었다. 그래서 책을 읽은 수효를 계산하는 서산(書算)을 이용하여 독수(讀數)를 헤아렸던 것이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구양독서법(歐陽讀書法)에서 “글자의 수를 헤아려 보았더니 ‘효경(孝經)’은 1,903자, ‘논어(論語)’는 11,750자, ‘맹자(孟子)’는 30,685자, ‘주역(周易)’은 24,107자, ‘서전(書傳)’은 25,700자, ‘시전(詩傳)’은 39,234자, ‘예기(禮記)’는 99,010자, ‘주례(周禮)’는 45,806자, ‘춘추좌전(春秋左傳)’은 196,845자였다. 날마다 3백 자씩 외운다면 4년 반이면 다 마칠 수가 있다. 조금 우둔한 사람이라서 반으로 줄여 외운다 해도 9년이면 다 외울 수가 있다.”라고 하여 암송해야 할 책의 자수(字數)까지 일일이 헤아려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수를 계산하였다. 읽어야 할 책이라면 아예 통째로 외우는 것을 중시하였던 시대의 공부법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사례를 찾아보면, 송(宋)의 홍매(洪邁)는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세 번이나 필사(筆寫)하였는데 금나라 종실(宗室) 한 사람은 그 책을 30여 차례나 읽었다고 한다. 조선의 유희춘(柳希春)은 “주자대전(朱子大全)”을 암송하였고, 송익

필(宋翼弼)은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암송하였는데, 조헌(趙憲)은 그 두 저서를 모두 암송하였다고 한다. “자치통감”은 294권, “주자대전”은 124권, “주자어류”는 140권이니 인류의 저서 가운데 방대함으로 손꼽히는 것들이다. 이런 분들은 비범하기 짝이 없는 분들인데도 저다지 근면하게 공부하였다.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공부법을 기록으로 남긴 학자가 적지 않지만, 나의 기억으로는, 항해(沈灌) 홍길주(洪吉周)가 “숙수념(孰遂念)” ‘사부송유(四部誦惟)’편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옛사람의 독서법을 소상히 엿볼 수가 있어서 인상에 깊이 남아 있다. 그는 암송해야 할 글의 목록과 읽어야 할 책의 순서, 과목, 시간, 자세를 목록으로 만들어 실천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들어 보면, “연소한 사람은 경서 전체를 외워야 하고 뽑아 외워서는 안 된다.”이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기억의 역할’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사)의 ‘학습법’이 현대 사회에서 갖는 한계와 효용을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 H기업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소형 승용차 A와 대형 승용차 B를 생산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은 프레스 공정과 조립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생산 라인 수와 인력을 고려할 때 공정별 일일 이용 가능 시간은 각각 300시간과 90시간이다. 차종 A의 경우 대당 2.5시간의 프레스 공정과 0.6시간의 조립 공정 시간이 소요되고, 차종 B의 경우 대당 5시간의 프레스 공정과 2.4시간의 조립 공정 시간이 소요된다. 이때 차종 B에 장착되는 고성능 GPS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하루 최대 30개까지만 조달 가능하다. 자동차 생산은 프레스 공정과 조립 공정으로만 구성되고,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 A와 B는 생산되는 전량이 판매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차종 A와 B의 대당 판매 이익은 각각 160만원과 400만원이라고 한다.

[문제 3] H기업은 현재의 생산능력 범위 안에서 전체 판매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차종 A와 B의 일일 생산 대수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H기업은 차종 B에 장착되는 고성능 GPS의 가격 변화에 따라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이 변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했다. 앞에서 결정한 최적의 일일 생산 대수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의 범위를 구하시오. [20점]

평가 목표와 출제 의도

① 평가 목표

경영경제계열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적합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올해의 논술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과 EBS 교재에서 논술 제시문을 선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기억의 역할'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포함된 다양한 시각들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능력과 이 논지들을 창의적으로 연계하는 능력과 현대사회에서 기억이 갖는 양면성, 즉 디지털 시대 기억의 한계와 효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유연한 사고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동시에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주어진 정보를 수리적으로 모형화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리능력도 평가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인문학적·사회과학적 제시문들의 논지와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또한 이를 명확하게 구성하고 표현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② 출제 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 [문제 1] 이 문제에서 제시된 네 개의 제시문은 우리의 삶에서 '기억'이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통 주제로 묶일 수 있다. 이 문제는 '기억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네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서로 분별하여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해 내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제시문에서 '기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각각의 역할이 제시문 간에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성찰과 결합하여 불가능에 대한 상상과 미래의 계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게 하는 토대(제시문 가), 2) 타 집단과 구분짓는 기제이자 정서적 위안의 원천(제시문 나), 3)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미래에 직면할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제시문 다), 4) 국민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영웅이라는 대상을 만들어 국민들을 통합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매개(제시문 라)로 요약될 수 있는 지문의 내용을 상호 비교하고 대조하여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반대의 논지를 가진 두 글을 이용하여 한 제시문의 주장을 옹호 혹은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1) 제시문 (사)에서 학습의 기본은 반복적인 독서를 통한 경서의 전체적인 암송이라는 논지를 파악하고 2)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가 제시문 (사)의 논지를 강화시키는지 아니면 약화시키는지를 파악한 후 3) 해당 제시문의 논지를 사용하여 제시문 (사)의 주장을 옹호 혹은 비판하는 순서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응시자들은 제시문 (마)에서 주장하는 현대사회의 지식의 습득은 출판된 활자 중심의 '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또 그 지식의 양이 방대하여 암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중점으로 (사)에 나타난 암송중심의 학습법을 비판할 수 있고 (바)에 나타난 반복적 음악 청취를 통한 곡 진행과정의 기억이 음악과 마음의 연결점이 된다는 점을 들어 (사)에 나타난 반복과 암송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여전히 필수 불가결한 점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 [문제 3] 이 문제의 목표는 주어진 정보를 수리적으로 모형화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즉, 3개의 선형 제약조건과 비음의 정수해라는 조건 하에서 목적함수(전체 판매 이익)를 최대로 하는 해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먼저 제시문에 주어진 상황을 올바르게 수리적으로 모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3개의 선형 제약식과 비음이라는 조건을 통하여 가능한 해의 영역을 선정하고 이 영역에서 목적함수를 최대로 하는 해를 결정하는 것이 문

제해결의 관건이다. 여기서 결정된 해가 정수해라는 조건에 맞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문제를 풀이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일차함수와 일차부등식의 기초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고독한 성찰과 불안한 의심의 극장」, 『독서와 문법 I』, 지학사, 2012.
- 제시문 (나):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문학 I』, 천재교과서, 2012.
- 제시문 (다): 「후천성 면역」, 권혁빈 외, 『생명 과학 I』, 교학사, 2011.
「후천성 면역」, 박희송 외, 『생명 과학 I』, 교학사, 2011.
- 제시문 (라): 광노준 외, 『수능기출플러스 국어영역, 독서』, EBS, 2012.
- 제시문 (마): 「매체 언어 독서와 지식관의 변화」, 윤여탁 외, 『독서와 문법 I』, 미래엔, 2012.
- 제시문 (바): 「음악의 감상법과 음악의 의미」, 박영목 외, 『독서와 문법 I』, 천재교육, 2012.
- 제시문 (사): 안대희, 「1억 1만 3천 번의 독서」, 『독서와 문법 II』, 미래엔, 2012.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지학사) 교과서에 실린 도정일의 「고독한 성찰과 불안한 의심의 극장」의 일부이다. 이 글은 인간의 유한성을 기억과 성찰, 상상력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 미래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상상이 가능한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이 과거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이에 대한 성찰이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요지이다. 따라서, 과거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성찰과 결합되었을 때 상상력의 근간이 되고 미래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 I』(천재교과서) 교과서에 실린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시골과 서울 번두리에서 살던 주인공이 서울 사대문안 학교에 전학 온 후 서울 아이들에 대해 느끼게 되는 이질감을 고향의 자연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자연과의 대비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 글에서 기억은 주인공을 서울 아이들과 분리하는 기제임과 동시에 주인공의 고독과 소외감을 달래주고 위안을 주는 원천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생명 과학 I』(권혁빈 외, 교학사)에 실린 후천성 면역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생명 과학 I』(박희송 외, 교학사)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이 글은 병원체에 대한 기억이 세포에 남아 이후 동일한 항원이 침입했을 때 신속하게 반응함으로써 후천성 면역 반응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유사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제시문 (라)는	2009년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문제로 「수능기출플러스 국어영역, 독서」(EBS)에 실린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영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집단적이고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억 관리의 산물로 보고 있다. 즉 영웅의 이미지는 시대와 집단의 필요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전달된 기억의 재구성에 의해서 윤색된다. 이러한 영웅만들기는 위정자에 의해서 대중을 통치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음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Ⅱ(미래엔)』에 실린 「매체 언어 독서와 지식관의 변화」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매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독서법도 달라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현대의 매체환경에서는 글과 그림 그리고 음향적 정보들을 융합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현대사회에서는 지식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할 뿐 아니라, 그 지식의 양이 방대해져서 기억하기가 어렵고 기술로 발달로 인하여 모든 지식을 기억하는 것이 불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Ⅱ(천재교육)』에 실린 이강숙의 「음악의 감상법과 음악의 의미」의 일부분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음악적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음악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마음의 연결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악곡의 진행과정이 기억될 정도로 반복적인 청취가 필수적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와 문법 Ⅱ(미래엔)』에 실린 안대희의 「1억 1만 3천 번의 독서」의 일부분이다. 이 텍스트는 조선 중기 시인 '김득신의 독수기'에 관한 글로서, 옛 선비들이 왜 암송이라는 독서문화를 중요시했는지에 대해 언급한다. 글쓰기는 빠른 시간에 많은 내용을 읽는 방식보다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소리 내어 읽으면서 글의 의미를 되새기고 깊이 사고하는 암송이라는 읽기 방식이 갖는 가치를 강조한다. 암송은 선현들의 글에 아로새겨진 의미와 정신을 내면화하는 경건한 독서 행위로서, 무엇보다도 정전의 심도 있는 이해를 중요시 했던 당대의 시대 정신이 반영된 독서법이라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예시 답안

[문제 1]

제시문 (가)~(라)는 기억이 인간의 삶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시문 (가)에서 인간의 유한한 기억은 과거에 대한 성찰과 결합하여 불가능한 일을 상상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상상력의 토대이자 미래의 길잡이가 된다. 제시문 (나)에서 고향에 대한 기억은 화자를 타 집단과 구분 짓는 기제로 작동함과 동시에 화자가 타향살이에서 겪는 소외, 열등감, 고독을 달래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제시문 (다)는 면역계가 과거에 경험한 항원을 기억해 두었다가 동일 항원이 침입했을 때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후천성 면역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유사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제시문 (라)에서는, 특정 사회 집단에 의해 선택되거나 관리된 기억이 국민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영웅이라는 대상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민을 통합하는 매개로 작동한다. 요컨대 기억은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확장시켜 주거나 정서적 위안을 주기도 하고 미래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통합의 매개로 작동하기도 한다. [566자]

[문제 2]

제시문 (사)의 텍스트 암송을 통한 학습법은 제시문 (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우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향 등을 아우르는 융합적 읽기 능력이 필요하므로 단순 텍스트 암송만으로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변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대의 지식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디지털화된 지식은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므로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지식 습득의 방식으로서 암송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시문 (바)에 따르면, 반복적 청취를 통해 '곡 진행 과정'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음악을 이해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반복에 의한 기억은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같은 맥락에서, 반복적 독서를 통한 텍스트의 암송은 디지털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지식 습득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가변적이고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취사선택해서 편집하고 사용하는 능력 못지 않게 해당 분야의 지식을 반복과 기억을 통해 이해하고 체화하는 학습법이 중요하다. [568자]

[문제 3]

다음과 같이 변수를 정의하자.

X_A : 차종 A의 일일 생산 대수

X_B : 차종 B의 일일 생산 대수

Y : 전체 판매 이익

먼저 전체 판매 이익의 최대화와 현재의 생산능력은 위에 정의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 = 160X_A + 400X_B$ 를 최대화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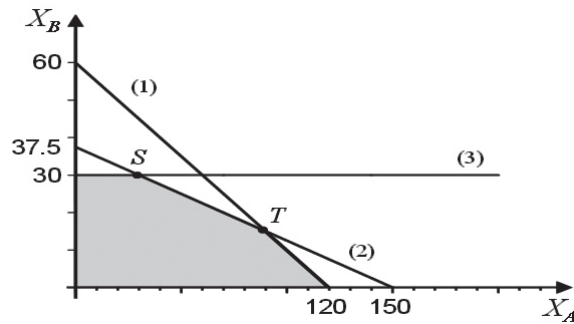
제약조건: $2.5X_A + 5X_B \leq 300$ - (1) ← 프레스 공정의 제약

$0.6X_A + 2.4X_B \leq 90$ - (2) ← 조립 공정의 제약

$X_B \leq 30$ - (3) ← 고성능 GPS 조달의 제약

$X_A \geq 0, X_B \geq 0$ - (4), (5)

식 (1)은 $X_B \leq -0.5X_A + 60$, 식 (2)는 $X_B \leq -0.25X_A + 37.5$ 로 표현되므로 가능한 해 (X_A, X_B) 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도식할 수 있다.



최대화시키려는 목적함수 $Y = 160X_A + 400X_B$ 는 $X_B = -0.4X_A + (1/400)Y$ 로 나타낼 수 있고 이 함수의 기울기 -0.4 는 식 (1)의 기울기인 -0.5 와 식 (2)의 기울기인 -0.25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점 T를 지날 때 목적함수의 절편 $(1/400)Y$, 즉 Y 는 최대가 된다.

점 T의 좌표는 식 (1)과 (2)의 교점이기 때문에 $-0.5X_A + 60 = -0.25X_A + 37.5$ 를 만족하고, 이로부터 점 T의 좌표는 $(90, 15)$ 가 된다. 따라서 최적의 일일 생산 대수 계획은 차종 A는 90대, B는 15대를 생산하는 것이고, 이때 판매 이익은 20,400(만원), 즉 2억 4백만원이다.

고성능 GPS의 가격이 변화하여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이 변할 수 있다면,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을 b 라 할 때 목적함수는 $Y = 160X_A + bX_B$ 로 나타낼 수 있다. 위에서 구한 최적의 일일 생산 대수 계획이 유지되려면 목적함수가 점 T를 지날 때 X_B 축 절편이 최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적함수의 기울기인 $-160/b$ 가 식 (1)과 (2)의 기울기 사이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0.5 \leq \frac{-160}{b} \leq -0.25$$

를 만족해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320 \leq b \leq 640$ 을 얻을 수 있다. (등호는 없어도 무방함.) 따라서 최적의 일일 생산 대수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의 범위는 320만원과 640만원 사이이다.

채점 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기억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논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37점): 8~37점

(가): 기억은 성찰과 결합하여 상상력의 토대이자 미래의 길잡이가 되어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서게 한다.

(나): 고향에 대한 기억은 주인공을 타 집단과 구분 짓는 기제임과 동시에 주인공이 타향살이에서 겪는 소외, 열등감, 고독 등을 달래주는 원천이다.

(다): 향원에 대한 기억이 향후 동일한 향원에 대한 대처를 신속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유사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라): 시간적, 공간적 맥락 속에서 특정 사회 집단에 의해 선택되거나 관리된 기억은 국민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영웅이라는 대상을 만들어내 국민을 통합하는 매개로 작동한다.

- 네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모두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30~37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22~29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15~21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의 내용만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8~14점 부여

※ 단, 참신한 분류법으로 지문의 차이를 묶어 서술한 경우, +3점을 부여한다.

2) 네 개의 제시문의 특징을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3점): 0~3점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1점),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2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논지의 차이점 파악 (37점): 8~37점	4개를 정확히 제시한 경우	30~37점
		3개를 제시한 경우	22~29점
		2개를 제시한 경우	15~21점
		1개만 제시한 경우	8~14점
		참신한 분류	최대 3점 추가
	② 논리적 구성(3점): 0~3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점
		서론과 결론의 내용이 충실	2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사)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평가한다(10점): 2~10점 부여

제시문 (사)는 경서와 문장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학습법은 암송이라고 하면서 그 경서의 암송을 위하여서는 반복적인 독서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 제시문 (사)에 나타난 학습법으로 반복적인 독서나 암송을 들지 못한 경우, 2점 부여
- 제시문 (사)에 나타난 학습법으로 반복적인 독서만을 제시한 경우, 5점 부여
- 제시문 (사)에 제시된 반복적인 독서가 궁극적으로 경서 전체에 대한 암송을 위한 것임을 파악하고 반복적인 독서가 아니라 암송을 제시된 학습법으로 파악한 경우, 10점 부여

2) 제시문 (사)를 제시문 (마)와 (바)를 이용하여 적절히 비판하고 옹호하였는지를 평가한다(30점): 5~30점

① 제시문 (마) 평가: 제시문 (마)의 주요 논지와 그것들을 이용한 제시문 (사)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매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대사회의 정보들은 글, 그림 그리고 음향적 정보들이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단순 암송을 넘어서 융합적 읽기가 필요하다.
- 현대의 지식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시대, 장소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지식을 고정불변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록한 책을 단순 암송 하는 것은 지식 습득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 iii) 지식의 양이 방대하여 모든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iv)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모든 지식을 기억하지 않아도 그 지식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 ② 제시문 (바) 평가: 제시문 (바)에 나타난 제시문 (사)의 효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i) 음악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이 음악과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은 반복청취이다.
- ii) 반복적 청취를 통해 '곡 진행 과정'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음악을 이해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기억은 음악의 이해에 필수적이다.
- iii) 마찬가지로 반복적 독서를 통한 텍스트의 암송은 디지털 현대 사회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여전히 유용한 방법이다.

- 제시문 (마)를 제시문 (사)의 한계로 그리고 제시문 (바)를 제시문 (사)에 대한 효용으로 연결하지 못한 경우, 2~5점 부여
- 한계와 효용을 보이기 위한 제시문의 선택은 옳았으나 그 2개의 제시문의 논지를 모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6~10점 부여
- 한계와 효용을 보이기 위한 제시문의 선택은 옳았으나 2개의 제시문 중 하나의 논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비판 혹은 옹호에 사용하였을 경우, 11~15점 부여
- 한계와 효용을 보이기 위한 제시문의 선택도 옳고 2개의 제시문의 논지를 모두 제대로 파악하였을 경우, 16~25점 부여
- 제시문의 선택, 각 제시문의 논지의 파악이 옳고 각 제시문의 논지와 제시문 (사)에 대한 한계와 효용에 대한 연결이 우수한 경우, 26~30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사)의 논지 파악(10점): 2~10점	제시문 (사)에 나타난 학습법이 반복적인 독서를 통한 경서의 암송임을 파악한 경우	8~10점
		학습법으로 반복적인 독서만을 제시한 경우	5~7점
		제시문 (사)에서 학습법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2~4점
	② (마)와 (바)의 논지를 이용하여 (사)의 논지를 평가(30점): 2~30점	제시문의 선택, 각 제시문의 논지의 파악이 옳고 각 제시문의 논지와 제시문(사)에 대한 한계와 효용에 대한 연결이 우수한 경우	26~30점
		한계와 효용을 보이기 위한 제시문의 선택도 옳고 2개의 제시문의 논지를 모두 제대로 파악하였을 경우	16~25점
		2개의 제시문 중 하나의 논지만 제대로 평가하고 비판 혹은 옹호에 사용하였을 경우	11~15점
		한계와 효용을 보이기 위한 제시문의 선택은 옳았으나 2개의 제시문의 논지를 모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6~10점
		제시문 (마)를 제시문 (사)의 한계로 그리고 제시문 (바)를 제시문 (사)에 대한 효용으로 연결하지 못한 경우	2~5점

1. 점수 부여(20점 만점)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①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5개의 제약조건 식(비음 조건 포함)과 최대화하려는 목적함수인 전체 판매 이익 Y 를 표현한다.(8점)
- ② 5개의 제약조건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구한다.(2점)
- ③ 단계 ②에서 구한 영역에서 목적함수인 전체 판매 이익 Y 를 최대화하는 해를 구하고, 이 해가 정수해 조건을 만족 하는지 판단한다. (5점)
- ④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이 변할 경우 이를 미지수 b 로 놓고 목적함수를 표현한 후, 최적의 일일 생산 대수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의 범위를 계산한다.(5점)

2. 감점

- ① 단계 ①에서, 5개의 제약조건 식과 목적함수인 전체 판매 이익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각각 1~2점 감점할 수 있다.(최대 8점까지 감점 가능)
- ② 단계 ②에서, 제약조건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잘못 산출한 경우 1~2점 감점할 수 있다.
- ③ 단계 ③에서, 목적함수인 전체 판매 이익 Y 를 최대화하는 해를 잘못 산출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1~5점 감점할 수 있다.
- ④ 단계 ④에서, 최적의 일일 생산 대수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의 범위를 잘못 계산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1~5점 감점할 수 있다.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모의논술

Section 02 자연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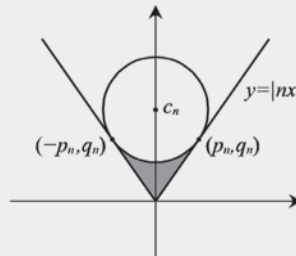
자연계열 모의논술 문제지

[수학]

[문제 1] 단판으로 승부를 가리지만, 무승부일 경우 재시합을 하는 운동 경기가 있다. A팀이 B팀에 승리할 확률은 p , 패할 확률은 q , 무승부일 확률은 r 이라고 한다. 단, $p > 0$, $q > 0$, $r > 0$, $p + q + r = 1$ 이다. 계속 무승부가 되어 총 경기 횟수가 10경기가 될 때까지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동전 던지기로 승부를 결정한다고 할 때, 두 팀이 치르게 될 경기 횟수의 기댓값을 r 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20점]

[문제 2] 다음 제시문 (가)~(다)를 읽고 문항에 답하시오.

- (가) — $y = |nx|$ 의 그래프에 중심이 $(0, c_n)$ 이고 반지름이 $\frac{1}{2\sqrt{n}}$ 인 원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접하고 있다. 두 접점을 각각 $(p_n, q_n), (-p_n, q_n)$ 이라 하자. 단, n 은 양의 정수이다.



- (나) — 점 (x_0, y_0) 와 직선 $ax + by + c = 0$ 사이의 거리 d 는 다음과 같다.

$$d = \frac{|ax_0 + by_0 + c|}{\sqrt{a^2 + b^2}}$$

- (다) — 수렴하는 두 수열 $\{a_n\}, \{b_n\}$ 에 대하여 $\lim_{n \rightarrow \infty} (a_n \pm b_n) = \lim_{n \rightarrow \infty} a_n \pm \lim_{n \rightarrow \infty} b_n$ 이 성립한다.

[문제 2-1] 제시문 (가)에 주어진 c_n 과 p_n 의 값을 각각 n 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10점]

[문제 2-2] 제시문 (가)의 그림과 같이 $y = |nx|$ 와 원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A_n 이라 할 때, $\lim_{n \rightarrow \infty} A_n$ 을 구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10점]

[문제 3] 다음 제시문 (가)~(다)를 읽고 문항에 답하시오.

(가) — 함수 $f(x)$ 는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int_1^{2x-1} \{2f(t) + f(-t)\} dt = -8x^3 + 20x^2 + 22x - 34$$

(나) — 함수 $g(x)$ 가 구간 $[a, b]$ 에서 연속일 때, 다음을 만족한다.

$$\frac{d}{dx} \int_a^x g(t) dt = g(x) \quad (\text{단, } a \leq x \leq b)$$

(다) — 두 함수 $y = g(u), u = h(x)$ 가 미분가능할 때, 합성함수 $y = g(h(x))$ 의 도함수는 아래와 같다.

$$\frac{dy}{dx} = \frac{dy}{du} \cdot \frac{du}{dx} = g'(h(x)) \cdot h'(x)$$

[문제 3-1] 제시문 (가)에 주어진 함수 $2f(x) + f(-x)$ 를 구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10점]

[문제 3-2] $x > 0$ 일 때, $x + \frac{2}{x}$ 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와 $f\left(x + \frac{2}{x}\right)$ 의 최댓값을 구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20점]

[생명과학]

[문제 4] 다음 제시문 (가)~(라)를 읽고 문항에 답하시오.

- (가) — 소화기관을 통한 3대 영양소의 소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입안의 침샘에서 분비되는 침의 pH는 약 5.0 정도이며 아밀레이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탄수화물을 엇당으로 분해한다. 위의 위샘에서 분비되는 위액의 pH는 약 2.0 정도이며, 위액에 의해 펩신이 활성화되어 단백질이 주로 분해된다. 소장으로 이동한 음식물은 소화액과 섞여서 pH 7.0 정도의 상태로 바뀌며 다양한 소화 효소 작용에 의해 3대 영양소가 모두 소화된다.
- (나) — 리소좀은 여러 가지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 있는 소낭이다. 리소좀은 주로 골지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만들어진단. 리소좀 내의 효소들은 강산 또는 중성의 환경에서는 잘 작용하지 못한다. 만약 리소좀이 터지거나 열려서 효소들이 새어 나오면 빠져 나온 효소의 활성은 약화되는데, 그 이유는 세포질의 pH가 중성이기 때문이다.
- (다) — 핵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활동의 중추로서, 세포의 물질 합성과 분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하고 유전형질을 결정한다. 인은 핵 내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는 구조로서 DNA에 있는 정보를 통해 리보솜 RNA(rRNA)가 합성되는 장소이다. rRNA는 핵에서 단백질과 결합하여 리보솜으로 조립된 후 핵공을 통해 세포질로 빠져 나가서 단백질 번역 과정에 참여한다.
- (라) — 분비 단백질은 거친면 소포체에 부착된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후 소포체 내로 들어가 3차원 형태로 접히게 된다. 형성된 단백질은 소낭막에 싸인 채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후 소포체 근처에 있는 골지면의 막과 융합되어 물질을 골지체로 전달한다.

[문제 4-1] 리소좀에 있는 효소를 성분으로 한 소화제를 만든다면 어느 단계의 소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를 제시문 (가)와 (나)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10점]

[문제 4-2] 단백질 분비가 비정상적인 돌연변이 세포 I, II와 정상세포에, ^{32}P 로 표지된 핵산과 ^{35}S 로 표지된 아미노산을 일정 시간 공급한 후 새로운 배양 용액에 옮기고 나서 세포 소기관 별 방사능 검출 여부를 조사하여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세포 소기관 A, B, C, D의 종류와 각각의 돌연변이 세포에서 단백질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이유를 제시문 (다)와 (라)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O: 방사능 다량 검출, Δ: 방사능 소량 검출, X: 방사능 검출 안됨) [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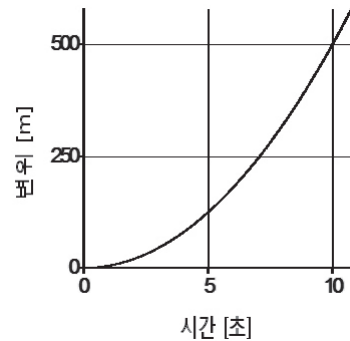
		세포 소기관			
		A	B	C	D
정상세포	^{32}P	X	O	O	X
	^{35}S	O	X	O	O
돌연변이 세포 I	^{32}P	X	O	Δ	X
	^{35}S	X	X	Δ	X
돌연변이 세포 II	^{32}P	X	O	O	X
	^{35}S	X	X	O	O

[물리]

[문제 4] 다음 제시문 (가)~(다)를 읽고 문항에 답하시오.

- (가) — 물체가 움직이면 시각에 따라 위치가 변하므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시각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위치의 변화를 변위라고 한다. 물체에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힘을 가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물체에 한 일의 양은 물체의 변위에 힘을 곱한 것이다.
- (나) — 순간 속도는 시간-위치 그래프의 특정 시각에서 접선의 기울기이며, 속도의 순간적인 값을 의미한다.
- (다) —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포물선 운동은 중력에 의한 자유 낙하 운동의 하나이다. 포물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변위를 분석하면, 포물선 운동은 수직 방향으로 중력에 의한 등가속도 운동이고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임을 알 수 있다.

[문제 4-1] 마찰이 없는 공간에 정지해 있던 질량 1 kg 인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힘이 가해져 힘의 방향으로 아래 그래프와 같은 운동을 하였다. 시간 5초~10초 사이 물체에 해 준 일의 양을 구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단, 일의 단위는 J(줄)을 사용하시오. [10점]



[문제 4-2] 시각 $t = 0$ 에서 10 m/s 의 속력과 θ 의 각도로 원점에서 던져진 물체가 그림 A와 같이 중력에 의해 포물선 운동을 하였다. 그림 B의 그래프는 포물선 운동을 하는 동안 원점에서 물체까지의 직선 거리를 시간에 따라 측정한 결과이며,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 이 되는 상황이 $t = t_1$ 에서 1회 관측되었다. 이 물체가 $y = 0$ 위치에 도착했을 때 x 방향 도달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하고, 중력가속도는 10 m/s^2 으로 계산하시오. [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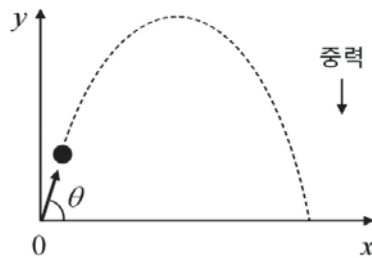


그림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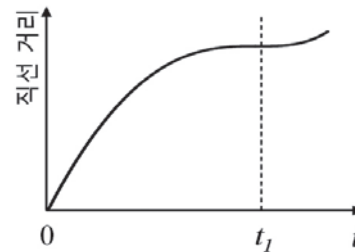


그림 B

[화학]

[문제 4] 다음 제시문 (가)~(라)를 읽고 문항에 답하시오.

- (가) — 루이스는 화학 결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원자들의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것을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한다. 원자의 최외각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원자가 전자 중에서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홀전자라고 하는데,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할 때에는 홀전자들이 전자쌍을 이루어 공유 전자쌍을 만든다. 공유 결합을 가지는 원자는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비활성 기체와 같이 안정된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킨다.
- (나) — 1940년 시지윅은 공유 결합으로 형성된 분자에서 중심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들은 그들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가능한 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는 전자쌍 반발 원리를 제안하였다. 루이스 전자점식과 전자쌍 반발 원리를 적용하면 공유 결합 화합물의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
- (다) — 화학 반응에서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산소를 얻는 반응은 산화 반응이라고 하고 산소를 잃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한다.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산화-환원 반응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 하고,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도 한다.
- (라) — 여러 가지 산화-환원 반응을 모두 설명하기 위하여 산화수를 사용한다. 산화수는 어떤 물질 속에서 원소가 어느 정도로 산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가상적인 전하량이다. 공유 결합 화합물에서 산화수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차지했다고 가정할 때 각 원자가 가지는 전하수로 나타낸다. 산화 반응에서는 산화수가 증가하고 환원 반응에서는 산화수가 감소한다.

[문제 4-1] 웃음 가스로 알려진 아산화 질소[N₂O(g)]는 주로 질산암모늄[NH₄NO₃(s)]을 분해시켜서 만든다. 질산암모늄[NH₄NO₃(s)]과 아산화 질소[N₂O(g)]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각각 한 개씩만 제시하고 각 전자점식에 해당하는 구조를 예측하시오. [10점]

[문제 4-2] 산화수 규칙에 의하면 아산화 질소[N₂O(g)]의 질소 원자는 '+1', 산소 원자는 '-2'의 산화수를 갖는다. 제시문 (가)와 (라)에 근거하여 질산암모늄[NH₄NO₃(s)]을 구성하는 각 원자의 산화수를 구하고, 아래의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되는 원소와 환원되는 원소의 산화수 변화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단, 전기 음성도 세기는 O > N > H 이다. [20점]



제시문 출전

[수학 문제 2]

- 제시문 (가): 문제의 설명
- 제시문 (나): 수학,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천재교육, p.171)
- 제시문 (다): 수학, 극한값의 계산(교학사, p.155)

[수학 문제 3]

- 제시문 (가): 문제의 설명
- 제시문 (나): 적분과 통계, 정적분의 계산(중앙교육진흥연구소, p.41)
- 제시문 (다): 수학Ⅲ, 합성함수의 미분법(금성출판사, p.140)

[생명과학 문제 4]

- 제시문 (가): EBS 수능특강 생명과학 I, 소화, 순화, 호흡, 배설과 에너지(p.106)
- 제시문 (나): 생명과학 II, 세포와 물질대사, 리소좀(교학사, p.28)
- 제시문 (다): 생명과학 II, 세포와 물질대사, 핵(교학사, p.24)
- 제시문 (라): 생명과학 II, 세포와 물질대사, 소포체, 골지체(교학사, pp.26~27)

[물리 문제 4]

- 제시문 (가): 고등학교 물리, 단위 1 시간, 공간, 운동(교학사, p.29)
- 제시문 (나): 고등학교 물리, 단위 1 시간, 공간, 운동(교학사, p.31)
- 제시문 (다): 고등학교 물리Ⅲ, 단위 1 힘과 운동(교학사, pp.30~31)

[화학 문제 4]

- 제시문(가): 고등학교 화학 I, 단위 3 아름다운 분자 세계(천재교육, p.142)
- 제시문(나): 고등학교 화학 I, 단위 3 아름다운 분자 세계(비상교육, p.136)
- 제시문(다): 고등학교 화학 I, 단위 4 닳은꼴 화학 반응(비상교육, pp.192~199)
- 제시문(라): 고등학교 화학 II, 단위 3 화학 평형(교학사, pp.198~199)

평가 목표 및 출제 의도

- [수학 문제 1]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을 경험하고, 그때마다 가능한 경우의 수와 확률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문제 1은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댓값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확률 변수의 개념과 이에 대한 확률의 계산, 그리고 수열의 합 등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고, 어렵지 않은 난이도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 [수학 문제 2] 제시문 (나)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주어졌고 제시문 (다)에는 수렴하는 두 수열의 덧셈-뺄셈에 관한 공식이 주어져 있다. 두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제시문 (가)에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삼각형 또는 부채꼴 등 기본적인 도형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을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 [수학 문제 3] 제시문 (나)와 (다)에 각각 설명된 '적분과 미분의 관계'와 '함수함수의 미분법'을 잘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사고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한 부등식 유도, 일차연립방정식의 해결, 극대-극소값에 대한 이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 등이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 [생명과학 문제 4] 문제 4-1은 주요 소화과정을 담당하는 효소와 그들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화학적 최적 조건을 설명하는 제시문 (가)와 리소좀이 내의 가수분해 효소 활성 기전을 서술한 제시문 (나)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문제 4-2는 문제에서 소개된 방사선 검출된 정도의 표를 가지고 실제 세포 안에서 단백질의 분비 경로를 제시문 (다)와 (라)를 읽고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제시문(다)에 설명된 리보솜은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32}P 표지를 통해서 리보솜의 이동을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문제는 실험결과를 가지고 기존의 지식에 비추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통합적,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 [물리 문제 4] 물체의 속도, 가속도, 힘, 일 등은 물리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근본이 되는 개념으로서 모든 물리 교과서의 첫 부분에 해당한다. 본 모의 평가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움직임에 관한 이해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문제4-1은 마찰이 없는 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에 일정한 힘이 가해져 발생하는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 변위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함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로서, 힘과 운동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력과 적용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문제 4-2는 또 다른 형태의 등가속도 운동인 중력에 의한 포물선 운동에서 각 좌표 방향 변위의 벡터 합의 크기인 직선 거리를 도입하고, 그 시간에 따른 변화를 묻는 문제이다. 주어진 그래프의 의미를 이해한 후 미분을 통해 얻어진 기율기의 함수가 중근을 가져야 함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얻어진 투사 각도의 값을 적용하여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해력과 응용력, 수학적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중상 정도 난이도의 문제이다.
- [화학 문제 4] 고등학교 화학 I 교과과정은 주로 화학의 기본적인 언어를 습득하는 것에 주 목적을 두고 있다. 화학의 기본적인 언어 중에서 루이스 전자점식은 화학 결합의 생성 원리 및 원자가 전자의 배치, 분자의 구조 예측 등 화학 분야에 걸쳐서 이용되는 화학의 필수적인 기본 언어이다. 문제 4-1은 제시문(가)에 주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루이스 전자점식을 정확히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시문(나)에 주어진 전자쌍 반발원리를 이용하여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공유결합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산화-환원 반응은 전자를 주고 받는 화학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으로서 산화-환원 반응의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원자의 산화수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각 원자의 산화수를 구하기 위해서 산화수 규칙을 주로 이용하지만 루이스 전자점식과 제시문(라)의 규칙을 이용해서도 산화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문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 문제 4-2는 주어진 제시문을 이용하여 산화수를 구하고 산화-환원 반응에 수반되는 산화수 변화를 파악하여 복잡한 산화-환원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예시 답안 / 채점 기준

[수학]

[문제 1]

예시 답안

- ▶ 확률변수 X 를 A팀이 B팀과 하게 되는 경기 수라고 정의하면, X 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 10 이고 이에 대한 확률을 고려하면 X 의 기댓값 $E(X)$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E(X) &= 1 \cdot (p+q) + 2 \cdot r \cdot (p+q) + 3 \cdot r^2 \cdot (p+q) + \cdots + 9 \cdot r^8 \cdot (p+q) + 10 \cdot \{r^9 \cdot (p+q) + r^{10}\} \\ &= (p+q) \cdot \{1 + 2 \cdot r + 3 \cdot r^2 + \cdots + 10 \cdot r^9\} + 10 \cdot r^{10} \\ &= (p+q) \cdot S + 10 \cdot r^{10} \end{aligned}$$

- ▶ 여기서 $S = 1 + 2 \cdot r + 3 \cdot r^2 + \cdots + 10 \cdot r^9$ 로 정의하고, $X = 10$ 인 확률은 9번 무승부 후 10번째 승부가 나는 경우와 10번 모두 무승부가 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 ▶ S 의 계산은 $r \cdot S$ 를 구하여 빼주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1-r) \cdot S &= 1 + r + r^2 + \cdots + r^9 - 10 \cdot r^{10} \\ &= \frac{1-r^{10}}{1-r} - 10 \cdot r^{10} \end{aligned}$$

- ▶ $p+q+r=1$ 의 조건으로부터 $(1-r) \cdot S = (p+q) \cdot S$ 이기 때문에 $E(X)$ 는 다음과 같다.

$$E(X) = \frac{1-r^{10}}{1-r}$$

- ▶ 만일 $X = 10$ 일 확률을 r^9 으로 놓고 계산해도 동일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채점기준

1. 기댓값의 정의를 이용하여 $E(X)$ 를 올바르게 표현한 경우 +10점
2. X 가 갖는 값과 이에 대한 확률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각 -3점
3. $E(X)$ 의 식으로부터 이에 대한 계산을 올바르게 한 경우 +10점
4. 계산상 오류는 각 -3점

[문제 2-1]

예시 답안

- ▶ 제시문 (나)에 주어진 공식으로부터 $\frac{1}{2\sqrt{n}} = \frac{c_n}{\sqrt{n^2+1}}$ 을 얻으므로, $c_n = \frac{1}{2}\sqrt{n+\frac{1}{n}}$ 이다.

- ▶ 두 점 $(0, c_n)$ 과 (p_n, q_n) 을 지나는 직선은 $y = nx$ 와 직교하므로 $-1 = n \cdot \frac{c_n - q_n}{-p_n} = n \cdot \frac{c_n - np_n}{-p_n}$ 이다.

- ▶ 식을 정리하여 $p_n = \frac{c_n}{n + \frac{1}{n}} = \frac{\frac{1}{2}\sqrt{n+\frac{1}{n}}}{n + \frac{1}{n}} = \frac{1}{2\sqrt{n+\frac{1}{n}}}$ 이다.

채점기준

1. c_n 의 식을 제시하면 +5점
2. p_n 의 식을 제시하면 +5점

※ 각 단계에서 답이 틀려도 논리성을 고려하여 부분 점수 2~3점 부여 가능

[문제 2-2]

예시 답안

▶ 원점과 두 점 $(0, c_n), (p_n, q_n)$ 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a_n 이라 하고, 이 삼각형과 내접원 내부의 교집합이 이루는 부채꼴의 넓이를 b_n 이라 하면 $A_n = 2(a_n - b_n)$ 이다.

▶ $a_n = \frac{1}{2}c_n p_n = \frac{1}{8}$ 이고, 내접원의 반지름은 0으로 수렴하므로 $b_n \rightarrow 0$ 이다.

▶ 따라서 $\lim_{n \rightarrow \infty} A_n = \frac{1}{4}$ 이다.

채점기준

1. 원점과 두 점 $(0, c_n), (p_n, q_n)$ 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5점
2. 삼각형의 넓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이용하여 $\lim_{n \rightarrow \infty} A_n$ 을 계산하면 +5점
3. (논리적인) 다른 방식으로 $\lim_{n \rightarrow \infty} A_n$ 을 정확히 계산하면 +10점

※ 각 단계에서 답이 틀려도 논리성을 고려하여 부분 점수 2~3점 부여 가능

[문제 3-1]

예시 답안

▶ $2f(t) + f(-t)$ 의 원시함수를 $F(t)$ 라 하면 다음을 만족한다.

$$F(2x-1) - F(1) = -8x^3 + 20x^2 + 22x - 34$$

▶ 양변을 미분하여 $2F'(2x-1) = -24x^2 + 40x + 22$ 를 얻는다.

▶ $F'(2x-1) = -3(2x-1)^2 + 4(2x-1) + 18$ 이므로 $2f(x) + f(-x) = F'(x) = -3x^2 + 4x + 18$ 이다.

채점기준

1. $2f(t) + f(-t)$ 의 원시함수 $F(t)$ 를 고려하여 $2F'(2x-1) = -24x^2 + 40x + 22$ 를 얻으면 +5점
2. 식을 정리하여 $2f(x) + f(-x) = -3x^2 + 4x + 18$ 을 정확히 얻으면 +5점
3. (논리적인) 다른 방식으로 $2f(x) + f(-x)$ 을 정확히 계산하면 +10점

※ 각 단계에서 답이 틀려도 논리성을 고려하여 부분 점수 2~3점 부여 가능.

- ▶ $2f(x) + f(-x) = -3x^2 + 4x + 18$ 에 x 대신 $-x$ 를 대입하여 또 하나의 식
 $2f(-x) + f(x) = -3x^2 - 4x + 18$ 를 얻는다. 두 식을 연립하여 $f(x) = -x^2 + 4x + 6$ 을 얻는다.
- ▶ $x > 0$ 일 때, $x + \frac{2}{x} \geq 2\sqrt{x \cdot \frac{2}{x}} = 2\sqrt{2}$ 이다. $f(x)$ 는 대칭축이 $x = 2$ 이고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가지므로 $f\left(x + \frac{2}{x}\right)$ 는 $x + \frac{2}{x} = 2\sqrt{2}$ 일 때, 최댓값 $-2 + 8\sqrt{2}$ 를 가진다.

[별해]

- ▶ $2f(x) + f(-x) = -3x^2 + 4x + 18$ 에 x 대신 $-x$ 를 대입하여 또 하나의 식
 $2f(-x) + f(x) = -3x^2 - 4x + 18$ 를 얻는다. 두 식을 연립하여 $f(x) = -x^2 + 4x + 6$ 을 얻는다.
- ▶ $f'(x) = -2x + 4$ 이므로 $\left[f\left(x + \frac{2}{x}\right)\right]' = f'\left(x + \frac{2}{x}\right) \cdot \left(1 + \frac{2}{x}\right)' = \left\{-2\left(x + \frac{2}{x}\right) + 4\right\} \cdot \left(1 - \frac{2}{x^2}\right)$ 이다.
- ▶ 모든 $x > 0$ 에 대하여 $x + \frac{2}{x} \neq 2$ 이므로 $\left[f\left(x + \frac{2}{x}\right)\right]' = 0$ 을 만족하는 x 는 $1 - \frac{2}{x^2} = 0$ 의 근이다.

$1 - \frac{2}{x^2} = 0$ 과 $x > 0$ 으로부터 $x = \sqrt{2}$ 를 얻고 이 때 $f\left(x + \frac{2}{x}\right)$ 는 최댓값 $-2 + 8\sqrt{2}$ 를 가진다.

채점기준

1. $f(x) = -x^2 + 4x + 6$ 을 정확히 계산하면 +7점
2. $x > 0$ 일 때, $x + \frac{2}{x}$ 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정확히 계산하면 +6점
3. $f\left(x + \frac{2}{x}\right)$ 는 최댓값 $-2 + 8\sqrt{2}$ 을 정확히 계산하면 +7점

※ 각 단계에서 답이 틀려도 논리성을 고려하여 부분 점수 2~3점 부여 가능

[생명과학]

[문제 4-1]

예시 답안

제시문 (나)에서 리소좀의 가수분해 효소는 중성이나 강산성 환경에서는 잘 작용하지 못한다고 언급했고, 제시문 (나)에서 소개된 소화기관인 입, 위, 소장은 각각 약산, 강산, 중성의 환경이므로 리소좀의 가수분해 효소는 위의 강산성 환경이나 소장은 중성 환경이 아닌 입안의 약산성 환경에서 음식물 소화작용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채점기준

1. 각 소화기관의 pH환경이 약산성, 강산성, 중성 환경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5점
2. 리소좀 효소는 입안에서 잘 작용할 것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5점

[문제 4-2]

예시 답안

- ▶ 제시문 (다)에 근거하여 ^{32}P 가 포함되어 있는 핵산은 rRNA 일 것이고 이는 리보솜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세포 소기관 B, C는 리보솜이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이다.
- ▶ 표에서 소기관 B는 ^{32}P 만 검출되는 반면 소기관 C에서는 ^{32}P 와 ^{35}S 가 다 검출되므로, 소기관 B는 핵이고 소기관 C는 거친면 소포체이다.
- ▶ 돌연변이 세포 I의 경우 소기관 B에서 많이 검출된 ^{32}P 가 소기관 C에서는 소량 검출되었으므로 핵공에 의한 리보솜의 이동이 저해되어 단백질의 합성 자체가 감소해 있는 경우이다.
- ▶ 제시문 (라)에 근거하여 소기관 A와 소기관 B는 소낭과 골지체인데, 돌연변이 세포 II의 경우 소기관 D에서는 ^{35}S 로 표지된 단백질이 검출되었지만 소기관 A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소기관 D는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단백질을 이동시켜주는 소낭이고 소기관 A는 골지체임을 알 수 있다.
- ▶ 따라서 돌연변이 세포 II는 소낭이 골지면과 융합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긴 세포이다.

채점기준

1. ^{32}P 의 이동 비교를 통해 B가 핵이고, C가 거친면 소포체임을 유추했으면 +5점
2. 돌연변이 세포 I은 핵공을 통한 리보솜 이동에 이상이 생겨서 단백질 합성이 저해되어 분비가 안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5점
3. ^{32}S 의 이동 비교를 통해 A가 골지체이고, D가 소낭인 것을 유추했으면 +5점
4. 돌연변이 세포 II는 소낭과 골지면의 융합에 문제가 있어서 단백질 분비가 안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5점

[물리]

[문제 4-1] 예시 답안

- ▶ 물체에 일정한 힘이 가해지는 상황이므로 가속도가 일정하다.
- ▶ 초기 속도가 0 이므로 가속도를 a 라고 할 때 시간 t 에 따른 변위 S 는 다음과 같다.

$$S = \frac{1}{2}at^2$$

- ▶ 그래프를 참고하면 $t = 10$ 에서 $S = 500$ 이므로 $a = 10 \text{ (m/s}^2\text{)}$ 이고, 물체의 질량이 1 kg 이므로 힘은 10 (N) 이다.
- ▶ $5 \text{ 초} \sim 10 \text{ 초}$ 사이의 변위는 $500 - 125 = 375$ 이므로 일의 양은 $10 \times 375 = 3750 \text{ (J)}$ 이다.

채점기준

1. 가속도가 일정할 때 시간에 따른 변위의 식을 바르게 쓰면 +2점
2. 가속도와 변위의 식을 이용하여 가속도의 크기를 맞게 구하면 +3점
3. 변위와 힘을 곱하여 일의 양을 바르게 구하면 +5점
(최종 답안에서 일의 단위를 쓰지 않으면 감점 -2점)

[문제 4-2] 예시 답안

- ▶ 각도 θ 로 던진 물체가 중력에 의해 포물선 운동을 하므로 x, y 방향 변위는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한다.

$$x = 10 \cdot \cos \theta \cdot t$$

$$y = 10 \cdot \sin \theta \cdot t - \frac{1}{2} \cdot g \cdot t^2 = 10 \cdot \sin \theta \cdot t - 5t^2$$

- ▶ 원점에서 물체까지 직선 거리를 S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S = \sqrt{x^2 + y^2} = \sqrt{100 \cdot t^2 - 100 \cdot \sin \theta \cdot t^3 + 25 \cdot t^4}$$

- ▶ 순간 속도에 해당하는 기울기 dS/dt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단, $t > 0$)

$$dS/dt = \frac{200 \cdot t - 300 \cdot \sin \theta \cdot t^2 + 100 \cdot t^3}{2 \cdot \sqrt{100 \cdot t^2 - 100 \cdot \sin \theta \cdot t^3 + 25 \cdot t^4}} = \frac{50 \cdot t \cdot (2 - 3 \cdot \sin \theta \cdot t + t^2)}{\sqrt{100 \cdot t^2 - 100 \cdot \sin \theta \cdot t^3 + 25 \cdot t^4}}$$

- ▶ 그림 B에서 dS/dt 는 단조증가함수이고 $dS/dt = 0$ 이 되는 상황이 1회만 발생했으므로, dS/dt 의 분자에 있는 $2 - 3 \cdot \sin \theta \cdot t + t^2$ 항이 중근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던진 각도에 관한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sin \theta = \frac{2\sqrt{2}}{3}, \quad \cos \theta = \frac{1}{3}$$

- ▶ 던진 물체가 다시 지상에 도착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y = 10 \cdot \sin \theta \cdot t - 5t^2 = 0 \quad \therefore t = 2 \cdot \sin \theta = \frac{4\sqrt{2}}{3} \text{ (초)}$$

▶ x 방향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므로, 도달 거리는 다음과 같다.

$$x = 10 \cdot \cos \theta \cdot t = \frac{40\sqrt{2}}{9}(\text{m})$$

채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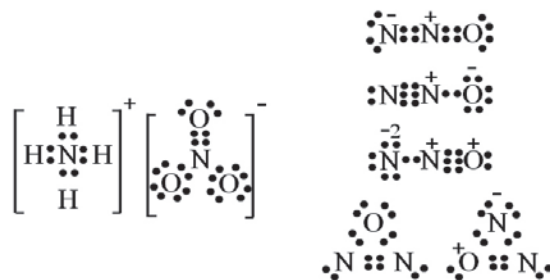
1. x , y 방향 변위의 식을 바르게 쓰면 각각 +3점
2. 직선 거리의 식을 바르게 구하면 +2점, 그 미분을 통해 식을 전개하면 +2점
3. 미분된 식과 그래프의 형태를 통해 $\sin \theta$ 의 값을 바르게 계산하면 +5점
4. x 방향 도달 거리를 바르게 구하면 +5점 (최종 답의 단위가 빠진 경우 감점 -2점)

[화학]

[문제 4-1]

예시 답안

▶ 제시문 (가)에 근거하여 가능한 질산암모늄[$\text{NH}_4\text{NO}_3(\text{s})$]과 아산화 질소[$\text{N}_2\text{O}(\text{g})$]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나)의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하면 질산암모늄[$\text{NH}_4\text{NO}_3(\text{s})$]의 암모늄 이온은 네 개의 공유 전자쌍들이 반발하여 서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려고 하므로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게 된다. 질산 이온도 네 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지지만 하나의 전자쌍은 공명 구조에 의해서 세 개의 N-O 사이의 결합에 같은 정도로 기여한다. 따라서 세 쌍의 공유전자쌍이 서로 반발하는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가진다. 아산화 질소는 답안에 제시된 루이스 전자점 식에 따라 원자들이 일렬로 연결된 세 구조는 직선형 구조를 나머지 두 구조는 삼각형 구조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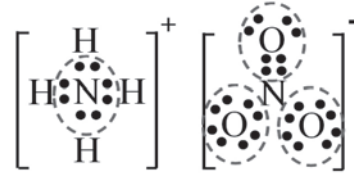
채점기준

1. 질산암모늄 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정확히 제시하면 +2점
2. 아산화 질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하나 이상만 제시하면 +2점
3. 암모늄 이온의 구조를 정확히 예측하면 +2점
4. 질산 이온의 구조를 정확히 예측하면 +2점
5. 아산화 질소의 제시된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용하여 정확히 구조를 예측하면 +2점
6.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공유 결합 전자쌍들을 점으로 표시하지 않고 선으로 표시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함
7. 아산화 질소의 형식 전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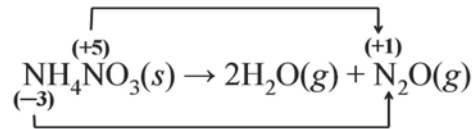
[문제 4-2]

예시 답안

- ▶ 제시문(라)에 근거하여 암모늄이온에서는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큰 질소가 모든 공유 전자쌍을 차지하게 되므로 암모늄 이온의 질소는 '-3'의 산화수를 가진다. 수소는 모든 전자를 빼앗겨 '+1'의 산화수를 가진다.
- ▶ 질산 이온의 질소는 전기 음성도가 강한 산소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모든 공유 전자쌍을 산소가 소유하게 되므로 질소의 산화수는 '+5'가 된다. 산소는 중성의 산소 원자보다 2개 더 많은 전자를 소유하므로 '-2'의 산화수를 가진다.



- ▶ 반응물의 하나인 H₂O의 각 원자의 산화수는 산화수 규칙을 이용하거나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용하면 산소 원자는 '-2'로 수소 원자는 '+1'로 결정할 수 있다.
- ▶ 얻어진 산화수를 주어진 산화-환원 반응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산화수의 변화가 없다. 위의 반응식에서 보이듯이 암모늄이온의 질소는 산화수가 증가하였으므로 산화된다. 또한 질산 이온에 포함된 질소 원자는 산화수가 감소하였으므로 환원되었다.

채점기준

1. 암모늄이온에 포함된 질소의 산화수를 루이스 전자점식과 제시문(라)를 이용하여 정확히 구했으면 +3점
2. 암모늄이온에 포함된 수소의 산화수를 정확히 구했으면 +2점
3. 질산 이온에 포함된 질소의 산화수를 정확히 구했으면 +3점
4. 질산 이온의 포함된 산소의 산화수를 정확히 구했으면 +3점
5. H₂O에서 수소와 산소의 산화수를 구하여 주어진 반응에서 수소와 산소의 산화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명기하면 +4점
6. 암모늄의 질소가 산화수가 증가하므로 산화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면 +3점
7. 질산이온의 질소는 산화수가 감소하였으므로 환원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면 +3점

Section 03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 기출문제



논술가이드북의
예시답안을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뒀어요.
제가 작성한 답안과
예시답안을 비교하고
수정하며 짜임새와 구조를
맞춰나간 것이 실제
논술고사에서
큰 도움이 되었죠.

응용통계학과 14학번
강동현



선배들이 말하는 중앙대학교 논술

Interview 02

논술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

논술에 대해 제대로 마음을 잡아서 공부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부터였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적인 글쓰기 방법과 주어진 글을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매주 1번씩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기출문제로 배워온 것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한 답안을 첨삭 받으면서 못하는 부분을 체크하며 고쳐나갔습니다. 3학년 때에는 사회 문화 교과서를 통해 간단한 배경지식을 쌓았습니다. 시험보기 하루 이틀 전에는 다른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전에 제가 썼던 글과 가이드북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논술가이드북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저는 논술가이드북을 3학년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우선 주말마다 시간에 맞춰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 후에는 가이드북의 해설들만 따로 읽어 보면서 예시답안에 대해 파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시답안과 비슷하게 쓸수록 그만큼 중앙대에서 원하는 답안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교정한 저의 답안과 예시답안을 틈틈이 읽으면서 계속 비교하여 저의 답안과 예시답안의 짜임새 같은 것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가이드북에 실린 사진들과 선배들이 써주신 글을 보며 나도 저런 선배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니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합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논술을 공부하다가 '논술은 배경지식이 중요해, 나는 책을 읽지 않았으니 논술시험을 포기해야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논술을 공부하다 보니 배경지식이나 읽은 책의 수보다는 논리구조나 타당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책을 많이 읽어 배경지식이 많은 경우 글을 쓸 때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의 논술시험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이상의 배경지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리적 사고는 독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보통의 일상생활, 예를 들면 친구들과의 대화나 수업시간에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논술 시험을 너무 빨리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주는
응원의 메시지

저는 솔직히 다른 수험생과는 다른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집중력이 별로 좋지 않고 잠이 많아서 수업시간에 딴 짓도 많이 하고 잠도 자주 잤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낙천적인 탓에 수능이 100일 남아도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누워서 별을 보기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곤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공부만 고집하기 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공부만 하면서 고등학교를 마친다는 것은 좋지 못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가끔 공부하기 싫을 때는 친구들과 pc방도 가고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즐겁게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꿈을 이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 기출문제

Section 03 인문계열 I

논술 문제지(인문계열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한국인들이 똑같은 한국어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단일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각 지역마다 고유한 방언(方言)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깍두기’라는 말에 대해 지역별로 ‘깍데기(강원)’, ‘깍닥김치(경남)’, ‘깍두지(경북)’, ‘나박지(전남)’, ‘뚝깍지(전북)’, ‘깍뒤기(제주)’, ‘뚝데기(충북)’, ‘나박디(평북)’ 등과 같은 방언형이 존재한다. 같은 말이 방언에 따라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발음하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서울에서도 한 가지 말에 대해 여러 가지의 발음 형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닭아’를 [다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꺼]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닭는다’를 [당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땅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일반적으로’를 [일반저그로]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찌그로]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다. 다양한 발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표준어(標準語)와 표준 발음을 정해서 공적인 언어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표준 발음법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르면 표준 발음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기고서 일단 이를 따르도록 원칙을 정한 것이다. 예컨대 ‘값[價]’에 대하여 ‘값, 값만, 값이, 값을, 값에’ 등은 서울말에서 [갑, 갑만, 갑씨, 갑쓸, 갑쎄] 등으로 발음되는데, 바로 이러한 실제 발음에 따라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것이다.

말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려면 무엇보다도 발음이 정확해야 한다. 게다가 방언의 차이가 심하면 때로는 뜻이 잘 전달되지 않으므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표준 발음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 석가모니가 설법을 할 때, 듣는 사람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내용과 방식을 달리하였으므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해한 내용도 각각 달랐다. 석가모니가 열반하고 나자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자 자기가 이해하고 들은 것이 석가모니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의 견해는 옳지 않다고 비난하는 일이 많아져서 반목과 대립, 갈등이 심화되었다. 중국에 전래된 불교도 수·당 시대를 거치면서 종파는 더욱 많아지고, 여러 학파들이 생겨나서 쟁론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들 쟁론 중에는 기본적으로 세계관을 달리하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일은 신라에서도 일어났다. 중국으로부터 여러 갈래의 종파가 신라에 전래되었는데, 이들 종파들끼리의 반목, 대립은 정치 지배 세력의 분열과 국론의 분열 현상까지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효는 화쟁(和諍)의 논

리를 전개하였다. 원효는 쪽빛과 남색이 하나이고 물과 얼음이 근본적으로 같은 것처럼, 서로 다르게 보이는 주장도 모두 부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므로 모두 다 옳다고 생각하였다. 일체의 모든 이론은 결국 그 깨달음의 바탕인 일심(一心)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인 마음의 진리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이 생긴다고 하였다. 화쟁 사상은 특정한 교설이나 학설을 고집하지 않고 비판과 분석을 통해 보다 높은 가치를 이끌어 내는 사상이며, 모순과 대립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다루는 사상이다.

- (다) — 사회의 분화에 따라 독신 가족 및 한 부모 가족, 재혼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입양 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변화했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해 2008년부터 민법상 호주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대체하여 국민 개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 관계의 발생과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 그리고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가족관계법(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우선 개인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장부인 호적 등본이 ‘가족관계등록부’로 개편되었다. 지금까지 호적 등본에는 본인은 물론 다른 가족들의 인적 사항까지 전부 기록되었다. 그러나 새 등록부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인적 사항이 간략히 기록된다. 특히, 증명서에서 본적 칸이 사라지고, 개인이 원하는 곳을 ‘등록 기준지’로 정해 기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은 물론 법원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성씨와 본을 바꿀 수 있다.

- (라) — 성적 소수자는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이성만을 사랑하지 않는다. 동성에게만 사랑을 느끼거나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성적 소수자에 속한다.

성적 소수자는 역사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당해 왔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성 정체성과 성적 대상에 혼란을 일으키고, 가족 제도를 비롯한 사회 제도를 혼란스럽게 변화시킬 위험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의학적 차원에서는 유아기의 성적 환상을 극복하지 못한 성도착자로 여겨졌다. 그리고 종교적 차원에서는 성적 소수자가 성적 행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즉 종족 보존을 무시하고 탐욕적인 성적 행위만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성적 소수자는 범죄자, 정신병자,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오인되어 전기 충격 치료, 뇌 수술 등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관행으로 인하여 오늘날에도 성적 소수자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커밍아웃을 한 성적 소수자는 주변 친지로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당한다. 또한 능력이 있다 해도 성적 소수자임이 밝혀진 사람은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직업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려 하고,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아는 사람이 아웃팅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성적 소수자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어렵다.

성적 소수자는 사회 제도에 의해서도 배척당한다. 동성애자가 수술을 해야 할 때, 다른 동성애자는 보호자로서 수술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거하는 동성애자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규정이나 군대 규정에는 남성 동성애자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차별적 규정들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문화를 조장하고 동성애자에게 성 정체성으로 인한 고통을 가중시킨다. 이 밖에도 우리 사회에는 성적 소수자가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마) —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개인 간의 능력 차이와 노력 여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의 불균형을 강제로 조절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 간의 소득 격차와 계층 현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계층 간의 과도한 소득 격차, 지나친 부의 편중과 세습 그리고 불평등한 기회 제공 등이 고정화된다면, 사회 통합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는 경쟁 상태에서 발생한 지나친 부의 집중화와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첫째,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인정될 수 있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우선 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기회 균등의 원칙)는 것이고, 다음으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차등의 원칙)는 것이다. 여기서 차등의 원칙이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불평등을 허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 체제와 경제적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개인이 발휘한 능력에 따라 경제적 분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경제적 분배가 각 개인의 경제적 기여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천적인 조건에 의해 경제 활동에 적절한 기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선천적으로 앞을 볼 수 없거나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타고난 자연적인 자질은 우수한 두뇌를 타고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건강한 신체를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개인은 서로 다른 사회적 여건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므로, 처음부터 서로 다른 부의 분배를 배정받게 된다. 개인은 태어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여건에 대해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없었으므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책임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배분이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남게 된다.

자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불평등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일환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타고난 선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며 사회에 존재하는 약자들에 대해 최대한의 배려를 추구한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분배의 기준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 특히 그가 제시한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의미가 있다.

(바) — 농사짓는 이는 전지(田地)를 갖게 하고, 짓지 않는 자는 갖지 못하게 하려면 여전제(閭田制)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뜻이다. 여전법이란 무엇인가? 산골짜기와 독의 형세를 보아 가며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경계선을 긋고, 그 일정한 구역 안에 포함된 곳을 여(閭)라고 부르자. 여 셋을 합쳐서 이(里), 이 다섯을 합쳐 방(坊, 한나라 때의 행정단위로 우리나라에도 있었음, 오늘날의 동과 비슷함)이라 하고, 방 다섯을 합하여 읍(邑, 주나라 때의 행정단위로 지금은 군의 행정 중심지임)이라 하자.

여에는 여장(閭長, 여의 우두머리)을 두고, 1여의 전지는 1여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며,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하는 경계선을 없애고, 여에 관한 일을 여장이 관리하게 한다. 사람들이 하루 일할 때마다 여장은 개인의 노동량을 빠짐없이 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추수 때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마당으로 가져오게 한 뒤 곡식을 분배한다. 먼저, 관청에 바치는 세금을 제하고, 여장의 녹봉(祿俸, 봉급)을 뺀 다음, 나머지 곡식을 노동량에 따라 사람들(여민, 閭民)에게 배분한다.

가령, 세금과 여장의 녹봉을 뺀 나머지 수확물이 1000곡(斛, 1곡=10말=1섬=2가마=100되, 따라서 1000곡은 100,000되)이고, 장부에 기록된 노동일이 2만 일이라 한다면, 1일의 노동에 해당하는 곡식 분배량은 5되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계산에 따라, 어떤 집에 부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 등 식구 전체가 일한 날이 800일이면 배당을 받는 곡식은 약 40곡이다. 또 가령, 어떤 사람의 노동 일수가 10일이면 돌아오는 몫은 5말(1가마)일 뿐이다.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곡식을 많이 받고, 노력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적을 것이니, 어찌 힘써 일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힘써 일하면 땅에서 얻는 이익도 늘어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재산이 늘고, 재산이 늘면 풍속이 순후해지고, 효제가 자리 잡힐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 — 다음은 미국 피츠버그의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아이, 빌 스트릭랜드의 삶에 관한 이야기 중 일부이다. 빌은 고등학교에서 도자기 공예 선생님을 만나고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성공을 일구어 냈다. 그는 30년 동안 맨체스터 비드웰이라는 직업 훈련 센터와 지역 사회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이 사회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의 짐 또는 자선과 원조가 필요한 사람들로 치부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며 공동체의 자산이고,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가치 있는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이제 기업이 우리를 후원하는 것은 더 이상 사회적 의무감의 발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훈련 과정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회사 장부상으로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의 이해와 도시 빈민가 사람들의 이해가 교차하는 접점을 찾아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를 뒤집었다.

(중략)

가난은 마음의 암이다. 나는 이 사실을 체험으로 안다. 평생의 경험과 피츠버그에서 30년간 성공의 세월을 통해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거나 무너진 그들의 삶을 바로잡겠다는 사회 정책을 창안하려는 것만으로는 이 암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난을 치유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기 이전에 ‘인간’임을 이해해야 하고, 인간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아름다움, 질서, 목표 의식, 기회와 같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 기본 자양분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 — 왜는 짜샤, 우리가 주인이잖아!

한국인 직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것이 그들의 명분이었다. 추우면 너희 나라로 가라는 말도 나왔고, 너희들은 원래 난로 같은 것 없이 살아왔지 않냐는 말도 나왔고, 급기야 까불면 모조리 신고해서 붙잡혀 가도록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회사가 잘되던 때까지만 해도 같은 직원으로서 오순도순 지내던 동료들이었다. 네팔 말로 ‘나마스떼’라고 인사하던 유순한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쌓아 왔던 우정은 모두 소용없었다.

우리는 직원, 너희는 노동자.

우리는 주인, 너희는 노비였다.

우리가 쓰는 것이 화장지라고 한다면 너희가 코 푸는 것은 휴지라는 것이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화장실이라면 너희가 똥 싸는 것은 변소라는 식이었으며, 우리가 먹는 밥이 식사라면 너희가 먹는 밥은 여물이라는 것이었다. 우리와 너희는 철저히 달라서,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기온이 내려가면 춥다는 사실조차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춥고 배고프고 천대받도록 애당초 설계된 종족들에게 난로가 뭐 필요하냐고, 그들은 갑자기 표현하여 소리 질렀다.

싸움은 먹살잡이 사태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수적으로 적은 데다가 힘에서도 열세였기 때문에 간신히 치고받고 하는 정도까진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자기들 방으로 돌아갔고 외국인 노동자 또한 손이나 쪼일 만한 전기난로를 중심으로 모여 앉았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스물두 살짜리 알리가 훌쩍거리고 울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다. 한국에 온 지 여섯 달 된 알리는 안동 어느 시골에서 올라온 한국인 청년과 유난히 친해서 의형제처럼 지냈다. 한국인 청년은 스무 살로서 알리를 부를 때에도 꼭꼭 알리 형, 알리 형, 이라고 불렀다. 추우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친 청년이 바로 그 자였다.

그때, 경찰을 앞세우고 그들이 다시 들이닥쳤다. 난로를 끝내 힘으로 빼앗아 가지 못한 한국인 직원들이 경찰까지 부르려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사태가 절망적이라고 여긴 나이 어린 알리가 먼저 북쪽 창으로 몸을 날렸고, 카밀은 득의만면 앞을 가로막고 나서는 한국인 직원의 옆구리를 들이받고 옥상 마당 끝까지 도망쳤다고 했다. 공장 뒤편의 시멘트 바닥에 추락한 알리가 일어서지 못하고 상처받은 짐승처럼 버르적거리는 걸 카밀은 보았다.

“내가 왜 뛰어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카밀은 스스로 고개를 갸웃했다.

옥상 마당의 끝까지 달려가 난간 위에 올라섰을 때 카밀을 둘러싼 것은 경찰관이 아니라 한국인 직원들이었다고 했다.

(중략)

“죽고 싶었던 것도 같아요.”

카밀은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에요. 나는 난간 위에 서 있고 개는 비상계단 쪽 가로막고 서 있었지요. 확 달려들어 개를 밀어 버리면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때, 개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어디 뛰어내려 봐. 개 눈빛,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냥 뛰어내려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요, 지금 생각해 보니 아, 아니에요. 양, 양반, 그거 생각났어요. 개가 만날 자랑하던 양반 할아버지요. 한국의 양반은 죽인다고 해도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왕 앞에서도요. 개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개가 얘기해 준 양, 양반 생각이 났구요, 그러니까 쪽, 쪽팔리는 기분 들었어요. 누나도 쪽팔린다, 그런 말 알지요? 쪽팔려서요, 쪽팔리지 않으려구요, 붕 하고 나른 거예요, 내가. 허리 굽히기 싫어서요…….”

카밀은 히히, 하고 바보처럼 웃었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차이를 대하는 방식’을 각각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30점, 500~52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와 (바)에 나타난 상황을 각각 평가하고, (바)의 ‘여전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하시오. [40점, 540~560자]

[문제 3]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제시문 (아)에 나타난 상황을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시오. [30점, 500~520자]

평가 목표와 출제 의도

① 평가 목표

인문계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정확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올해의 논술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논술 제시문을 주로 선별하고 EBS 교재를 일부 사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차이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포착되는 차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식을 변별하고 그 차이점을 기술하는 논리적 능력과 이 논지들을 창의적으로 연계하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특정한 논지에 근거해 비판하는 능력, 그리고 특정한 관점에 근거해 이에 대한 보완점이나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측정한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인문학적·사회과학적 제시문들의 논지와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또한 이를 명확하게 구성하고 표현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② 출제 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 [문제 1] 이 문제에서 제시된 네 개의 제시문은 우리 사회 도처에 존재하는 '차이'와 '차이를 대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통 주제로 묶일 수 있다. 이 문제는 '차이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네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것을 분별하여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해 내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제시문에 나타난 '차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에 대처하는 각각의 방식이 제시문 간에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차이가 가져오는 불편함이나 오해를 해소할 목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방식(제시문 가), 2) 차이를 같은 현상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보고 모두 인정하는 바탕에서 비판을 통해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제시문 나), 3) 차이를 다양성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제시문 다), 4) 차이를 선악의 관점에서 보아 차별하고 부정하는 방식(제시문 라)으로 요약될 수 있는 지문의 내용을 상호 비교하고 대조하여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 [문제 2] 이 문제는 제시문의 독해를 통해 '정의'의 관념을 명료하게 파악하여, 이를 평가의 근거로 삼아 성적 소수자 차별 문제와 공평주의에 기반한 경제제도를 각각 비판한 후 보완책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이를 통해 개별적인 지식보다는 다양한 제시문 간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종합적 사고력'과 지식의 단순 암기보다는 습득된 지식을 종합 분석하여 주어진 상황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하는 '비판적 적용력'을 평가하려는 데 있다.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시문 (마)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롤스가 제시한 두 가지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성적 소수자들의 차별 상황은 두 가지 원칙에 모두 위배되는 반면, 제시문 (바)의 여전제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적용되었으나 차등의 원칙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바)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시문 (마)의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천적 능력과 사회적 여건의 차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 3] 이 문제는 제시문 (아)에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한국인 직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적 상황을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문 (사)를 통해 도출해 내는 문제 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에 대한 단순한 경제적 보상 차원의 시혜적 관점에서 진일보한 시각, 즉 소수자가 사회에서 스스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한 제시문 (사)의 논지

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문 (아)에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차별적 상황을 비판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판을 근거로 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물질적, 경제적 차이 극복뿐만 아니라 소수자를 동등한 인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려는 의도에서 출제하였다.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표준어와 표준 발음」, 「독서와 문법II」, 미래엔, 2012.
- 제시문 (나): 「원효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인가?」, 「EBS수능완성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2013.
- 제시문 (다): 「사회의 변화와 가족 관계법의 등장」, 박찬구 외, 「고등학교 도덕」, 천재교육, 2010.
「우리 사회를 바꾼 호주제 판결」, 「고등학교 국어 상」, 창비, 2011.
- 제시문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생활과 윤리」, 교학사, 2011.
- 제시문 (마): 「자본주의와 분배 정의」, 「생활과 윤리」, 교학사, 2012.
「정의의 원칙과 절차」, 박찬구 외, 「고등학교 도덕」, 천재교육, 2010.
- 제시문 (바): 정약용, 「전론(田論)」, 「독서와 문법 I」, 미래엔, 2012.
- 제시문 (사): 빌 스트릭랜드, 빈스 로스, 「피츠버그의 빈민가에 핀 꽃」, 「윤리와 사상」, 교학사, 2011.
- 제시문 (아): 박범신, 「나마스떼」, 「문학II」, 교학도서, 2012.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II」(미래엔) 교과서에 실린 「표준어와 표준 발음」이라는 글의 일부이다. 이 글은 표준어와 표준 발음의 제정 배경 및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표준어와 표준 발음은 방언 간 차이, 개인 간 발음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 시 생길 수 있는 불편함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인 언어생활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요지이다. 이는 차이로 인해 문제나 불편이 발생했을 때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이를 해소하는 방식임을 이해해야 한다.
제시문 (나)는	「EBS수능완성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에 실린 「원효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의 전문이다. 본래 석가모니의 설법이 하나인데 이를 해석 및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서 발생한 차이가 반목 대립현상으로까지 발전해 나갔지만, 모든 이론들은 바탕이 같으므로 그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에서 발생하는 반목을 비판과 분석을 통해 보다 높은 가치로 승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 글에서 읽어야 할 요지이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도덕」(천재교육) 교과서에 실린 「사회의 변화와 가족 관계법의 등장」이라는 글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국어 상」(창비) 교과서에 실린 「우리 사회를 바꾼 호주제 판결」이라는 글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이 글의 핵심은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 관계의 다양성이 발현되었고, 이러한 가족 형태의 차이에 대하여 정부가 법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학사) 교과서에 실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글의 일부이다. 이 글에서 성적 취향이라는 차이가 역사적, 관행적, 그리고 사회 제도적으로 차별로 공고화되었다는 것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러한 차별이 억압적으로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성적 소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제시문 (마)는

롤스(J. Rawls)의 정의론을 설명하고 있는 「생활과 윤리」(교학사) 교과서에 실린 「자본주의와 분배 정의」라는 글의 일부와 「도덕」(천재교육) 교과서에 실린 「정의의 원칙과 절차」 일부를 발췌하여 재정리한 글이다. 롤스의 정의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분배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무엇보다도 공정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첫째,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둘째, 기회균등 원칙(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함)과 차등의 원칙(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최대 이익을 주어야 함)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을 핵심적 논의로 삼고 있다.

제시문 (바)는

정약용의 「전론(田論)」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와 문법」(미래엔)에 실려 있다. 제시문은 조선 시대 정약용이 펼친 토지 제도에 관한 글 중 '여전제'에 대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1799년, 38세 때 지은 이 글에서 정약용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하여 노동량에 따라 공동 분배하는 토지 제도인 '여전제'를 제안하고 있다.

제시문 (사)는

빌 스트릭랜드와 빈스 로스가 쓴, 「피츠버그의 빈민가에 핀 꽃」이라는 글의 일부이며, 고등학교 교과서 「윤리와 사상」(교학사)에 실려 있다. 빌 스트릭랜드는 맨체스터 비드웰이라는 직업 훈련 센터이자 지역 사회 예술 프로그램을 설립한 CEO이다. 비드웰 직업 훈련 센터(BIDWELL TRAINING CENTER)는 인근의 주요 기업과 협력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요리, 약학, 원예 기술과 같은 전문 직업 훈련을 실시해 왔다.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맥아더 재단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았고, 그의 역할 모델은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갔다.

제시문 (아)는

박범신의 「나마스테」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II」(교학도서)에 실려 있다. 이 작품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반성적 인식을 이끌어 낸 소설이다. 제시문에서는 군포시 외곽의 어느 박스 공장에서 일하던 카밀과 알리가 난로 때문에 한국인 직원들과 갈등이 빚어져 경찰을 피해 옥상에서 뛰어내리다 다치게 된 경위를 보여 준다. 경찰을 앞세우고 들어닥친 한국인 직원들이 오히려 경찰보다 더 앞에 나서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료였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압박해 오고 그 와중에 알리가 투신하자 이러한 차별적 상황에 대한 일종의 소극적 저항의 행위로 카밀도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된 것이다. 카밀의 목소리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다문화 시대에 그들과 어떻게 공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다.

예시 답안

[문제 1]

— (가), (나), (다), (라)는 우리 사회 도처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 준다. (가)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방언이나 발음의 차이를 의사소통의 불편함이나 오해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나의 기준을 정하여 따르게 하고 있다. (나)는 종파 간 차이가 근본적으로는 부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하나이며 단지 해석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모두 옳다고 보고 차이들 간의 모순과 대립을 비판과 분석을 통해 높은 가치로 승화시키고자 한다. (다)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차이와 다양성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장해 준다. (라)는 성적 취향의 차이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고 사회 각 방면에서의 뿌리 깊은 차별을 통해 차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처럼 우리는 차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기도 하고,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차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거나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도 한다. [519자]

[문제 2]

— (마)의 핵심 내용인 평등한 자유, 기회균등, 차등 원칙을 이용하여 (라)를 평가하면, 인간은 동등한 자유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 소수자들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본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평등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고, 소수자로서 직업 선택 시 차별이 있다는 점에서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며, 뿌리 깊은 불평등에 대한 보상 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차등의 원칙 역시 위배되므로 정의로운 사회로 볼 수 없다. (바)는 노동한 만큼 동등하게 배분해 준다는 점(노동량)에서 기본 권리가 같기 때문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보장되고 있으나, 선천적인 조건, 즉 능력(노동질의 차이)이나 장애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의 기여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차등의 원칙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여전제가 간과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에 따라 차등적 분배를 실시하여 기계적 공평주의를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최소 수혜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549자]

[문제 3]

— 제시문 (아)는 한 직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직원 간의 갈등이 폭발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 한국인 직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편익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경우, 그들을 동료가 아니라 핍박하고 억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상황은 (사)의 관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배제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동정심에서 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시혜적 태도도 극복되어야 한다. (사)에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잠재력을 가진 사회적 공동체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차별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가치를 발현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호혜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517자]

채점 기준

[문제 1]

— 3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00~5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30점)

1) 대상의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논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5점): 6~25점

(가): 언어 사용에 있어서 방언이나 발음의 차이를 의사소통의 불편함이나 오해의 원인으로 보고 하나의 기준을 정하여 따르게 하는 방식으로 차이에 대응하고 있다.

(나): 종파 간 차이가 사실은 하나의 근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므로 모두 옳으며 따라서 차이들 간의 모순과 대립을 비판과

분석을 통해 보다 높은 가치로 승화시키는 방식으로 차이에 대응하고 있다.

(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의 차이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법 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러한 차이와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차이를 대하고 있다.

(라): 성적 취향의 차이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고 사회의 각 방면에서의 뿌리 깊은 차별을 통해 차이를 부정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

- 네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모두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20~25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15~19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10~14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의 내용만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6~9점 부여

※ 단, 다음과 같이 제시문을 분류하여 유형화한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1) 제시문 (가)와 (라), (나)와 (다)를 유형화하여 대비한 경우, +2점 부여

(가)와 (라)는 차이를 부인하거나 해소하려는 방식, (나)와 (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보장해 주는 방식

(2) 제시문 (나)를 (가), (다), (라)와 대비한 경우, +2점 부여

(나)는 차이에 대한 인식론적 측면에서의 대응을 보여 주는 데 반해, (가), (다), (라)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차이에 대한 대응 방식을 보여 줌.

※ 그 밖에 참신한 분류법으로 지문의 차이를 묶어 서술한 경우도 적절한 점수를 부여한다.

2) 네 개의 제시문의 특징을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점): 2~5점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30점)	① 각 논지의 차이점 파악(25점): 6~25점	4개를 정확히 제시한 경우	20~25점
		3개를 제시한 경우	15~19점
		2개를 제시한 경우	10~14점
		1개만 제시한 경우	6~9점
	② 논리적 구성(5점): 2~5점	서론-본론-결론	2~5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40~56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평가한다(5점): 2~5점

제시문 (마)는 롤스의 정의론을 설명한 글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분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등한 자유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논지의 글이다.

- 제시문 (마)에 나타난 원칙들을 모두 정확히 파악한 경우, 4~5점 부여
- 제시문 (마)에 나타난 원칙들 중 하나만을 파악하였거나,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2~3점 부여

2) 제시문 (라), (바)를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적절히 평가했는지 측정한다(25점): 8~25점

① 제시문 (라) 평가:

- i) 성적 소수자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 ii) 직업 선택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iii) 성적 소수자들도 불평등 및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최소 수혜자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소 수혜자에 대한 보상적 이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iv) 위의 세 가지에 근거하면 제시문 (라)의 경우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 없다.

② 제시문 (바) 평가:

- i) 여전제는 개인의 노동량을 엄밀하게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경제적 분배를 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자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ii) 그러나 선천적인 조건, 즉 능력에 따른 노동의 질이나 장애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공평주의이며, 따라서 차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iii) 이상의 두 가지 평가에 기반하여 볼 때 (바) 역시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 2개의 제시문을 모두 제대로 평가하였을 경우, 20~25점 부여
- 2개의 제시문 중 하나만 제대로 평가하였을 경우, 14~19점 부여
- 2개의 제시문 모두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을 경우, 8~13점 부여

3)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제시문 (바)의 보완 방안을 도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10점): 3~10점

차등의 원칙을 고려하지 못한 제시문 (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① 노동의 질, 즉 사람들 간 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분배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 ② 선천적인 능력에 의해 불평등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최소 수혜자의 이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 2개를 모두 언급하였을 경우, 7~10점 부여

• 1개만 언급하였을 경우, 3~6점 부여

※ 구체적 개선책의 예를 들면 최대 4점의 가산점을 줌

예1: 철저한 호구조사를 통해 소외되거나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약자(장애 및 노령 인구)를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보상책 마련, 또는 세금 감면

예2: 큰 틀에서는 여전제를 유지하면서, 노동력의 질의 차이를 인정하여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방안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의 논지 파악(5점): 2~5점	제시문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한 경우	4~5점
		제시문의 논지 중 일부만 파악한 경우	2~3점
	② (마)의 관점에서 (라)와 (바)를 평가 (25점): 8~25점	2개의 제시문을 모두 제대로 평가하였을 경우	20~25점
		2개의 제시문 중 하나만 제대로 평가하였을 경우	14~19점
		2개의 제시문 모두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을 경우	8~13점
	③ (마)의 관점에서 (바)의 보완 방안 제시(10점): 3~10점	2개를 언급하였을 경우	7~10점
		1개를 언급하였을 경우	3~6점

[문제 3]

3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00~5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30점)

1) 제시문 (사)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의 관점에서 제시문 (아)에 나타난 상황을 적절히 비판했는지 평가한다

(15점): 4~15점

제시문 (사)는 소수자에 대한 단순한 경제적 보상 차원의 시혜적 관점에서 더 나아가 그들을 우리와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스스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해야 함을 주장한 글이다. 이러한 논지를 정확히 파악해 제시문 (아)에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인 직원들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고, 동정심에서 자선을 베푸는 시혜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제시문 (아)에 나타난 상황을 적절히 평가했을 경우, 10~15점 부여

•제시문 (사)의 논지는 파악했으나 제시문 (아)의 상황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 경우, 4~9점 부여

2) 제시문 (아)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대안을 적절히 도출했는지 평가한다(15점): 4~15점

제시문 (아)에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상황에 대해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비판한 내용을 토대로 차별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적절히 도출했는지 평가한다. 제시문 (아)의 상황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i) 그들도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ii) 차별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iii) 더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가치를 발현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3가지 대안을 모두 제대로 제시하였을 경우, 11~15점 부여

•2가지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였을 경우, 7~10점 부여

•1가지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였을 경우, 4~6점 부여

※ 구체적 개선책의 예를 들면 최대 2점의 가산점을 줌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30점)	① (사)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의 관점에서 (아)의 상황 비판 (15점): 4~15점	(사)의 관점에서 (아)의 상황을 적절히 비판했을 경우	10~15점
		(사)의 논지는 파악했으나 (아)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 경우	4~9점
	② 위의 비판을 토대로 (아)의 상황에 대한 대안 도출(10점): 4~15점	3가지 대안을 모두 제대로 제시하였을 경우	11~15점
		2가지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였을 경우	7~10점
		1가지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였을 경우	4~6점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 기출문제

Section 03 인문계열II

논술 문제지(인문계열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바다에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어부는 낚시를 할 수 있었고, 어부가 낚시를 했기 때문에 병든 딸이 맛있는 생선을 먹을 수 있었고, 딸이 맛있게 생선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생선 가시가 발라져 나왔고, 생선 가시가 발라졌기 때문에 고양이는 그날 생선 가시를 먹을 수 있었고, 고양이가 맛난 생선 가시를 먹었기 때문에 밭을 누비며 똥을 썼고, 똥을 썼기 때문에 땅이 오랜만에 거름을 받을 수 있었고, 거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땅이 되었고, 건강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지렁이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지렁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빠 새가 지렁이를 잡을 수 있었고, 아빠 새가 지렁이를 잡았기 때문에 엄마 새는 지렁이를 먹을 수 있었고, 엄마 새가 지렁이를 먹었기 때문에 새알을 낳을 수 있었고, 새알을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쁜 아기 새들이 태어날 수 있었고, 아기 새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는 저렇게 멋진 새들이 날아다니는구나.

(나) — 우룩은 이사부의 숙사를 향해 다리를 절며 걸었다. 신발이 헤어져서 발가락에 피가 흘렀다. 금*을 멘 니문이 우룩을 부축했다. 성문에서부터 무장한 위병 두 명이 붙었다. 목욕을 마친 이사부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마루로 나왔다.

“얼마 전에 서라벌로부터 통지가 있었다. 네가 가야의 악사 우룩이냐?”

“그러하오.”

(중략)

이사부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사부는 온몸을 흔들며 웃었다.

“그렇겠구나. 세상에, 온당하기란 쉽지가 않구나. 내, 풍편에 들었다. 너의 소리가 그리도 절묘하냐?”

“나의 소리가 아니라, 본래 스스로 흘러가는 소리요.”

“소리는 주인이 없는 것이냐?”

“소리는 들리는 동안만의 소리고 울리는 동안만의 소리니 아마도 그러할 것이오.”

“너희 나라 대장장이 야로를 아느냐?”

“가야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소.”

“그 늙은 대장장이가 말하기를, 병장기**는 주인이 따로 없어서 쥐는 자마다 주인이라 하였다. 소리는 병장기와 같은 것이냐?”
 “소리는 없는 세상을 열어 내는 것인데, 그 세상은 본래 있는 세상인 것이오, 병장기가 어떠한 것인지는 병부령께서 더 잘 아시리이다.”
 “그러니 아마도 소리와 병장기는 같은 것인 모양이로구나.”

* 금: 가아금 ** 병장기: 무기

(다) — 두 소수(素數) 1997과 2011의 곱이 4015967임을 계산하기는 쉽지만, 거꾸로 4015967을 두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RSA 암호 체계인데, 두 소수를 비밀 열쇠로 하고 그 두 소수의 곱을 공개 열쇠로 사용한다. 따라서 암호 해독은 비밀 열쇠와 공개 열쇠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암호 체계의 생명은 보안인데, RSA 암호 체계에서 두 비밀 열쇠가 400자리 소수인 경우, 그 공개 열쇠를 현재의 컴퓨터 기술과 계산 방법으로 해독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라) — 그 남자의 방에는 의자 두 개와 책상, 양탄자, 침대, 옷장이 하나씩 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자명종 시계가 놓여 있고 그 곁에는 오래된 신문들과 사진첩이 있다. 벽에는 거울 하나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다. 이 나이 많은 남자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산책을 하고, 이웃과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고, 저녁이면 자기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건 언제나 똑같았고 일요일에도 마찬가지였다.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짹짹거리는 시계 소리가 들렸다. 언제나 그러했다. 그는 거울 속에서 자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 두 눈을 꼭 감았다. 그리고는 양손을 힘껏 쥐고 쳐들었다가 책상을 내리쳤다. 처음에는 한 번,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내리쳤고, 그런 다음엔 책상 위를 북 치듯 두들겨 대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 “달라져야 해, 달라져야 한다고!”

그러자 시계 가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양손이 아파 오기 시작했고 목이 쉬어 버렸다. 시계 가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언제나 똑같은 책상, 언제나 똑같은 의자들, 똑같은 침대, 똑같은 사진이야. 그리고 나는 책상을 책상이라고 부르고, 사진을 사진이라고 부르고, 침대를 침대라고 부르지. 의자는 의자라고 한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거지?”

“이제 달라질 거야.”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이제부터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피곤한데, 사진 속으로 들어가야겠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아침마다 한참씩 사진 속에 누운 채로 이제 의자를 뭐라고 부를까를 고심했다. 그러다가 의자를 ‘시계’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시계 위에 앉아 양팔을 책상 위에 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책상은 더 이상 책상이 아니었다. 그는 책상을 ‘양탄자’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남자는 아침에 사진 속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양탄자에 놓인 시계 위에 앉아, 무엇을 무엇으로 부를 수 있을지를 고심했다.

침대는 사진이라고 불렀다.

책상은 양탄자라고 불렀다.

의자는 시계라고 불렀다.

신문은 침대라고 불렀다.

거울은 의자라고 불렀다.

시계는 사진첩이라고 불렀다.

옷장은 신문이라고 불렀다.

양탄자는 옷장이라고 불렀다.

사진은 책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진첩은 거울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아침에 이 나이 많은 남자는 오랫동안 사진 속에 누워 있었다. 아홉 시에 사진첩이 울리자 남자는 일어나서, 발이 시리지 않도록 옷장 위에 올라섰다. 그는 자기 옷들을 신문에서 꺼내 입고는 벽에 걸린 의자를 들여다보고, 양탄자 앞 시계 위에 앉아 자기 어머니의 책상이 나올 때까지 거울을 뒤적였다.

남자는 이 일에 재미가 들어 온종일 연습해서 새 단어들을 암기했다. 이제 모든 것의 이름이 달라졌다. 나이 많은 남자는 파란 공책을 사서 새로운 단어들을 그 안에 가득 적어 넣었다. 그 뒤로 남자는 모든 사물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을 익혀 가면서 차츰 원래의 명칭을 잊어버렸다. 그는 이제 완전히 혼자만 알고 있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했다.

- (마) 신제품 타이어를 만들어 보자. 먼저 ‘타이어’라는 단어를 보고 짧은 시간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나열한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머리에 스치는 단어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있었던 기억이나 경험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검은색 가죽, 아버지, 톱니무늬, 주유소, 정비사, 고마운 아저씨, 교통, 굴렁쇠, 눈동자, 안경, 신호등, 경찰, 바늘, 가락지, 자동차, 도넛, 비행기, 트랙터, 둥글다, 못, 풍선, 바람구멍, 휠, 119, 고속도로, 연탄, 돌린다, 굴러간다, 튜브, 고무, 놀이터, 배, 그네, 축구공, 애드벌룬, 쇠똥구리, 타이어 자국, 먹물, 사군자, 공기, 신발 등등

여러 학생들이 써 놓은 단어들에서 공통적인 것과 의외의 단어들을 찾아보고, 왜 그 단어가 생각났는지를 이야기해 본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제품 타이어에 대한 생각을 써 보자. 예를 들어 ‘아버지’의 경우는 ‘아버지의 배 위에서 자동차 놀이를 한 기억이 있다.’—‘아버지처럼 믿음직한 타이어’와 같은 방식으로 문안을 써 본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처럼 믿음직한 타이어’에 대한 시각적인 영상을 떠올려 보고 스케치한다. 그런 다음 학생들이 제시한 단어 중에서 타이어와 의미 관계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사물들, 즉 도넛, 연탄, 눈동자, 쇠똥구리를 선택하고 신제품 타이어 개발에 필요한 4가지 요소인 색, 기능, 모양, 재료를 기준으로 각각의 사물들을 규정하는 의미적 속성들을 추출하여 표에 채워 넣는다.

	타이어	도넛	연탄	눈동자	쇠똥구리
색	검은색	갈색	검은색	인종마다 다르다	고동색
기능	구른다	먹는다	태운다	본다	분해한다
모양	동그라미	동그라미	원기둥	동그라미	동그란 쇠똥
재료	고무	밀가루	석탄	생체	생물체

위의 표를 보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자.

- ① 타이어는 대부분 검은색이다. 다양한 색깔의 타이어는? 패션 타이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 ② 타이어에 구멍이 나면 위험하다. 좀 더 안전한 타이어는 없을까? 도넛의 단면처럼 기포로 만들어진 타이어는 어떨까?
- ③ 쇠똥구리가 쇠똥을 분해하듯이 페타이어를 분해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

위의 문제들을 친구들과 토론해 보자.

- (바) 적극적 자유는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적극적 자유는 ‘~를 향한 자유’로 표현되며,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됨으로써 성립하는 자유이다.
-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을 실천할 때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적극적 자유는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실천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자발적 선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실현될 수 있다. 예컨대 사회적 공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을 원하더라도, 기증자와 수혜자를 연결하는 사회적 체계가 없다면 기증을 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사) — 우리 격언 가운데 “호랑이한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 가운데 호랑이에게 물려 갔다가 요행히 살아 돌아온 이들의 생생한 증언이 전해지고 축적되면서 도출된 삶의 보편적인 원칙이 된 것이라. 그런데 문제는 과연 호랑이에게 물려 간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이다. 가령 100명이 물려 갔는데 그 가운데 80명이 정신을 바짝 차렸지만, 그 결과 살아 돌아온 사람이 5명밖에 안 된다고 하자.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모험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근거로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을 믿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입수하지 못한 정보는 나머지 죽은 사람들, 즉 정신을 바짝 차렸는데도 온 나쁘게 잡아먹힌 사람들의 증언이다.
- (아) — 양말이나 손수건의 값이 종전의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해도 소비자는 실질적인 소득이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구입하는 양말이나 손수건의 양이 얼마 되지 않아 값이 크게 떨어져도 절약되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쌀이나 채소처럼 소비자가 많이 구입해 소비하는 상품이라면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소비자는 한결 여유가 생긴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영국의 한 경제학자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조사하다가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의 관찰 결과에 따르면, 감자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수요량이 늘어 야 할 텐데,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던 감자의 경우에는 수요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가난했던 아일랜드 사람들은 빵 대신 감자를 주식으로 하였는데 감자 가격이 내리자 감자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빵 소비를 늘린 것이다.
- (자) —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陣)나라에서 채(蔡)나라로 가던 도중 양식이 떨어져 채소만 먹으며 일주일 버텼다. 걷기에도 지친 그들은 어느 마을에서 잠시 쉬어 가기로 했다. 그 사이 공자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제자인 안연은 몰래 빠져 나가 쌀을 구해 와 밥을 지었다.
- 밥이 다 될 무렵 공자가 잠에서 깨어났다. 공자는 코끝을 스치는 밥 냄새에 밖을 내다봤는데 마침 안연이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 먹고 있는 중이었다. ‘안연이 평상시에 내가 먼저 먹지 않은 음식에는 수저도 대지 않았는데 이것이 웬일일까? 지금까지 안연의 모습이 거짓이었을까?’ 그때 안연이 밥상을 공자 앞에 공손하게 내려놓았다. 공자는 조금 전에 안연이 밥을 집어 먹었던 일을 못 본 체하고 누웠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면서 안연에게 말했다. “내가 방금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뵈었네. 밥이 깨끗하다면, 그 어른에게 먼저 제사를 올리고 싶네.”
- 공자는 제사 음식은 깨끗하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안연도 알기 때문에 그가 먼저 밥을 먹은 것을 뉘우치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안연의 대답은 오히려 공자를 부끄럽게 했다. “선생님, 이 밥으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연 순간 위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선생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이미 먹었습니다.”
- 공자는 잠시 안연을 의심한 것을 후회하며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자네들은 꼭 기억해 두길 바라네.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관계 맺음 방식’의 특징을 각각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30점, 500~520자]

[문제 2] 제시문 (라)에서 사물을 명명하는 ‘남자’의 행위가 갖는 한계를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술하시오.

[40점, 540~560자]

[문제 3] 제시문 (사)와 (아)에 나타난 오류를 각각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자)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하시오. [30점, 500~520자]

평가 목표와 출제 의도

① 평가 목표

인문계열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적절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올해의 논술에서는 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논술 제시문을 선택하였고 EBS 교재에서도 일부 선택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1) 현상과 현상,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 맺음 방식'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포함된 다양한 시각들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능력과 이 논지들을 창의적으로 연계하는 능력, 2) 관계 맺음의 한계와 조건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 3) 원칙 수립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측정한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인문학적·사회과학적 제시문들의 논지와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또한 이를 명확하게 구성하고 표현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② 출제 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 [문제 1] 이 문제는 '관계 맺음 방식'이라는 하나의 공통 주제로 묶을 수 있는 네 제시문에 나타난 관계 맺음 방식의 특징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것을 분별하여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각 제시문의 일차 독해 과정에서 '관계 맺음 방식'이라는 시각에 입각해서 각 제시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주제어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과 관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 사건과 사건, 현상과 현상 사이의 상호 연쇄적 관계 맺음(제시문 가), 2)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통된 화두를 공유하며 관계 맺기(제시문 나), 3) 암호 체계 내에서 숫자 간 상호의존적 관계 형성(제시문 다), 4) 언어 명령행위를 통한 사물과의 관계 맺기(제시문 라)로 요약될 수 있는 지문의 내용을 상호 비교하고 대조하여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 [문제 2] 이 문제는 두 제시문의 논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계 맺기의 한계점을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려는 의도에서 출제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선 제시문 (마)는 '신제품 타이어 만들기'에서 타이어와 연관되는 단어를 열거하고, 타이어의 주된 속성과 연결하여 목록화 하는 과정과 같이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상호관련성을 찾아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는 점이 관계 맺음에도 필요함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시문 (바)에서 적극적 자유는 외부로부터의 강제나 방해가 없는 소극적 자유와는 달리 '~를 향한 자유'로서, 이는 총동적이거나 분별없는 행동을 자제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율적 선택에 의한 실천이 이루어지며, 그것을 위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갖춤으로서 가능할 수 있음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두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남자의 사물을 명명하는 행위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즉흥적이고 사물과 언어 간의 내적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아 이성적이거나 합리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으며, 사회가 정해놓은 언어 규약에서 벗어난 자기만 아는 자의적 언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해야 함이 출제 의도이다.
- [문제 3] 이 문제는 어떤 원칙과 법칙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시문 (사)와 (아)에 나타난 오류를 지적하고 그 보완방안을 제시문 (자)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제되었다. 제시문 (사)에서는 호랑이한테 물려갔다가 살아 온 사람은 물려간 사람 전체를 대표할 수 없으며, 이는 모집단의 특성 예측을 위한 표본 추출 과정에는 오류가 잠재함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제시문 (아)에서는 수요의 법칙이 예측하는 가격과 수요량의 상관관계가 아일랜드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과, 이론의 예측이 잠재적인 요인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제시문 (자)에서 공자는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을 가지고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사람의 ‘눈’과 ‘마음’의 판단은 늘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 (자)의 이러한 논지를 이용해 원칙이나 법칙의 수립과 적용 과정에 경험의 한계 등으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법칙의 예측 역시 빗나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정교한 이론의 확립 과정에는 표본의 대표성 확보, 이론의 예측 오류 시 숨어있는 요인 찾기를 통한 수정과 보완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 예서, 『하늘과 물』, 『고등학교 도덕』, 미래엔, 2010년.
- 제시문 (나) : 김훈, 『현의 노래』, 『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문학 A형』, 지식채널 EBS, 2013년.
- 제시문 (다) : ‘소인수분해와 정보화 시대의 암호 체계’, 『고등학교 수학 익힘책』, 천재교육, 2008년.
- 제시문 (라) : 페터 비셀, 『책상은 책상이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지학사, 2013년.
- 제시문 (마) : 『고등학교 미술』, 금성출판사, 2001년.
- 제시문 (바) :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고등학교 도덕』, 천재교육, 2010년.
- 제시문 (사) : 『EBS 수능완성 사회탐구영역 사회문화』, 지식채널 EBS, 2013년.
- 제시문 (아) : 『EBS 탐스런 경제』, 지식채널 EBS, 2012년.
- 제시문 (자) : 『여씨춘추(呂氏春秋)』,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학사, 2011년.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실린 ‘그림으로 배우는 도덕 이야기’의 일부를 인용한 글이다. 이 텍스트는 네덜란드 판화가 M. C. 에셔가 자신의 작품 〈하늘과 물〉을 설명하기 위해 쓴 글로서, 서로 다른 종인 물고기와 새, 서로 다른 공간인 바다와 하늘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이 글은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연기사상, 즉 원인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또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는 상호 연쇄적 관계 맺음 과정을 흥미로운 비유로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I 문학 A형』에 실린 김훈의 소설 『현의 노래』의 일부이다. 이 소설은 가야에서 태어나 가야금으로 일가를 이룬 우륵의 삶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발췌한 텍스트는 처참하게 몰락한 가야에서 신라로 귀부한 우륵이 이사부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작가는, 우륵과 이사부가 소리와 병창기 사이의 보이지 않는 내적 연관성, 즉 음악의 가치와 무기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을 공유하면서 공감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과정을 함축적이고 간명한 언어로 형상화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수학 익힘책』에 실린 ‘소인수분해와 정보화 시대의 암호 체계’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저자는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RSA 암호 체계는 소인수 분해 원리, 즉 소수인 비밀열쇠와 합성수인 공개열쇠 사이의 상호 관계를 토대로 구축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에 실린 스위스 작가 페터 빅셀의 「책상은 책상이다」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언어의 자의성, 즉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언어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우화이다. 주인공은 변화 없는 일상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 안의 사물들의 이름을 바꿔 부른다. 이처럼 주인공은 낯선 명명행위를 통해 사물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의 명명 행위는 언어 공동체의 규범에 반하는 자기만의 자의적인 방식이라는 특성이 있다. 주인공은 혼자만이 알고 있는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타인과 대화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과만 독백하면서 사회로부터 점점 소외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에 실린 신제품 타이어 개발과정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신제품 타이어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게 된다. 첫째, 타이어와 연상되는 단어를 나열한 후 타이어와의 연관성을 찾고, 다음으로 타이어의 4가지 주요 요소인 색, 기능, 재료, 모양을 기준으로 제시된 자료들을 연결하여 표로 만들어 분석하게 한다. 그런 다음 각 기준과 타이어를 연결하는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신제품 타이어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보다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도덕』에 실린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내용을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적극적 자유란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으로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 자유의 실현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조형모세포 기증에 대한 예시는 개인의 적극적 자유 실현이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시문 (사)는	『EBS 수능완성 사회탐구영역 사회문화』에서 발췌한 표본의 대표성에 관한 글의 일부이다. 이 글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귀납적 방법의 한계를 우리나라 격언인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 귀납적 연구 방법에서는 시간 혹은 비용의 제약으로 인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표본을 통해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제시문 (사)는 호랑이한테 물려갔다가 살아 온 사람은 물려간 사람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해 표본 추출 과정에는 오류가 잠재하며 이에 기반을 둔 결론은 반드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시문 (아)는	『EBS 탐스런 경제』에서 발췌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과 수요량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한다. 즉, 소득이 일정해도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일반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가난에 시달려 빵이 아닌 감자를 주식으로 하던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이 법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아)는 이 현상의 원인, 즉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감자 가격의 하락은 실질 소득의 향상을 가져와 정상재인 빵 소비는 늘어나고 열등재인 감자 소비는 줄어들게 된 것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 실린 「여씨춘추(呂氏春秋)」에서 발췌한 것이다. 본 제시문에서 공자는 자신이 가장 아낀 제자 안연이 자신의 밥을 한 움큼 집어 먹는 것을 보고 안연을 의심하나, 안연의 행동은 실제 흉년이든 묻은 밥을 공자에게 드리지 않기 위해 한 행동임을 알고 자신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이를 통해 공자는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을 가지고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사람의 '눈'과 '마음'의 판단은 늘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예시 답안

- [문제 1] —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현상과 현상,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이에 나타난 다양한 관계맺음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가)는 서로 다른 종인 물고기와 새, 서로 다른 공간인 바다와 하늘이 서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여기서의 관계 맺음의 방식은 원인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는 상호 연쇄적인 특징을 갖는다. (나)에서는 이사부와 우륵이 소리와 병장기 사이의 보이지 않는 내적 연관성을 공유하면서 공감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다. (다)에서는 암호 체계 내에서 임의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두 소수가 합성수를 고리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다. (라)에서는 남자가 명명 행위를 통해 실내의 사물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의 명명 행위는 언어공동체의 규약에 반하는 자기만의 자의적인 방식이라는 특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사건, 공유한 인식과 가치, 숫자, 언어 등을 매개로 다양한 관계가 맺어지고, 그 방식의 특징은 연속성과 종결성, 자의성과 논리성, 일방향성과 쌍방향성 등이다. [516자]
- [문제 2] — 제시문 (라)의 남자는 명명행위를 통해 방안에 있는 사물들과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 행위의 한계는 그가 만든 새로운 언어가 사람들에게 의해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소통방법의 사회적 수용은 사물과 이름 간에 의미적 연관성이 있을 때 높아진다. (마)에서 체계적 사고 과정을 통해 타이어를 규정하는 의미들과 타이어에서 연상되는 사물을 규정하는 의미들 간의 유사성을 찾아 도넛의 단면처럼 기포를 가진 안전한 타이어를 소비자에게 제안하는 것이 한 예이다. 한편, 의미적 유사성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남자의 행위가 자율적 의지와 결정을 바탕으로 한 실천, 즉, (바)의 적극적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에서 적극적 자유는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신의 선택이 실행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유의미하다. (나)의 남자가 시도하는 즉흥적인 자기만의 자의적 이름 붙이기는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언어규약에 반하므로 수용이 불가능하여 실제 무의미하다. 이런 행위로 인해 남자는 유패적인 자기 환상에 빠져 사회에서 소외, 고립될 수 있다. [559자]
- [문제 3] — (사)는 오랫동안 축적된 유사한 경험들에서 형성된 격언과 같은 삶의 원칙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오류는 대표성이 결여된 표본 추출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는 상품의 가격 하락은 소비 증가를 가져온다는 수요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아일랜드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오류는 감자 소비에 숨겨진 사회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사)와 (아)에 나타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에서 공자가 평소와는 다른 안연의 행동에서 성급하게 의심한 것을 깨닫고 후회했듯이, 어떠한 사건과 현상의 일부만을 보고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과일반화의 오류를 줄여야 한다. 즉, 겉으로 드러난 정황으로만 판단하여 현상의 이면에 잠재된 중요한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교한 원칙과 이론을 만들려면, 먼저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법칙에 부합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잠재된 요인을 찾고, 나아가 원칙과 이론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갖춰야 한다. [517자]

채점 기준

[문제 1]

3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00~5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pm 1 \sim 25$ 자	1점 감점
± 26 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3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관계 맺음 방식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25점): 6~25점

(가): 서로 다른 종인 물고기(바다)와 새(하늘)이 서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여기서의 관계 맺음의 방식은 원인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는 상호연쇄적인 특징을 갖는다.

(나): 이사부와 우륵이 소리와 병창기 사이의 보이지 않는 내적 연관성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다): 암호 체계 내에서 임의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두 소수가 합성수를 고리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다.

(라): 남자가 명령행위를 통해 실내의 사물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의 명령 행위는 언어공동체의 규약에 반하는 자기만의 자의적인 방식이라는 특성이 있다.

- 네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모두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20~25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15~19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10~14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의 내용만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6~9점 부여

2) 네 개의 제시문의 특징을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점): 2~5점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서론: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현상과 현상,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에 나타난 다양한 관계맺음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사건, 공유한 인식과 가치, 숫자, 언어와 같은 매개로 다양한 관계가 맺어지고, 그 방식은 연속성과 종결성, 자의성과 논리성, 일방향성과 쌍방향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 다음과 같이 제시문을 분류하여 유형화하여 결론을 도출한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 제시문 (가)와 (다), (나)와 (라)를 유형화한 경우, +2점 부여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공통점을 파악해 (가)와 (다)를 묶고, (나)에서는 소리(가야금)와 병장기 사이에 내적 연관성이 있으나 (라)에서는 언어와 사물 사이에 내적 연관성이 없다고 파악해 (나)와 (라)를 대비 시킨 경우.

※ 그밖에 참신한(기발한) 분류법으로 지문의 차이를 묶어 서술한 경우도 적절한 점수를 부여한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만점 30점 이내에서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그리고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30점)	① 각 논지의 차이점 파악 (25점): 6~25점	4개를 정확히 제시한 경우	20~25점
		3개를 제시한 경우	15~19점
		2개를 제시한 경우	10~14점
		1개만 제시한 경우	6~9점
	② 논리적 구성(5점): 2~5점	서론-본론-결론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40~56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평가한다(20점): 5~20점

– 제시문 (마)는 신제품 타이어 개발과정의 예를 통해 소통방법의 사회적 수용은 사물과 이름 간에 의미적 연관성이 있을 때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논지의 글이고, (바)는 적극적 자유란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으로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 자유의 실현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지의 글이다.

- 두 개의 제시문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한 경우, 15~20점 부여.
- 제시문 (마)의 논지만 정확히 파악한 경우, 10~14점 부여.
- 제시문 (바)의 논지만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5~9점 부여.

2) 제시문 (마), (바)의 통합적 견지에서, 제시문 (라)에서 사물을 명명하는 '남자'의 행위의 한계를 적절히 해석하고 논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20점): 5~20점

– 제시문 (라)에 나타난 남자의 명명 행위의 한계를 (마)와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i), (ii), (iii)과 같이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i) (라)의 남자는 명명행위를 통해 방안에 있는 사물들과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 행위의 한계는 그가 만든 새로운 언어가 사람들에게 의해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ii) (마)의 관점에서 소통방법의 사회적 수용의 가능성은 체계적 과정을 통해 사물과 이름 간에 의미적 연관성을 갖출 때 높아질 수 있다.

iii) (바)의 관점에서 명명 행위는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신의 선택이 실행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유의미하다.

- 3개를 모두 언급하였을 경우, 15~20점
- 2개만 언급하였을 경우, 10~14점
- 1개만 언급하였을 경우, 5~9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만점 40점 이내에서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그리고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와 (바)의 논지 파악 (20점): 5~20점	두 개의 제시문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한 경우	15~20점
		제시문 (마)의 논지만 파악한 경우	10~14점
		제시문 (바)의 논지만 파악한 경우	5~9점
	② (마), (바)의 통합적 견지에서 (라)의 명명 행위 한계 논술 (20점): 5~20점	제시문 (라)의 남자 행위의 한계를 (마)와 (바)를 통합하여 논술한 경우	15~20점
		제시문 (라)의 남자 행위의 한계를 (마)와 (바)를 통합하여 논술하지 못한 경우	10~14점
		제시문 (라)의 남자 행위의 한계만 제시한 경우	5~9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00~5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30점)

1) 제시문 (사)와 (아)에 나타난 원리 형성과 법칙 적용의 오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적하였는지를 평가한다(20점): 7~20점

제시문 (사)는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정신을 차려서 살아 돌아 온 소수의 경험을 태도로 하여 원리를 만들었으나 이에는 정신을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먹힌 다수의 경험이 포함되지 못하는 오류를 파악하고 지적해야 한다. 제시문 (아)는 주소비재인 감자가격의 하락이 감자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수요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아일랜드 사례를 통해서 주소비재의 심리적 특성이라는 숨겨진 변인에 의해서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 두 제시문의 오류를 모두 정확히 파악한 경우, 16~20점
- 두 제시문의 오류 중 하나를 정확히 파악한 경우, 11~15점
- 두 제시문의 오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7~10점

2) 제시문 (자)의 관점에서 (사)와 (아)의 오류를 해결하는 방안을 적절히 도출했는지 평가한다(10점): 2~10점

제시문 (자)는 공자가 자신이 본 안연의 행위와 그 결과만으로 안연을 이해하고자 한 것에서 자신의 눈과 머리만을 믿는 것이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과 (아)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건과 현상의 일부만을 보고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줄여야 한다. 즉 겉으로 드러난 정황으로만 판단하여 현상의 이면에 잠재된 중요한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교한 원칙과 이론을 만들려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법칙에 부합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잠재된 요인을 찾고, 나아가 원칙과 이론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갖춰야 한다.

- 제시문 (자)의 논지를 토대로 오류의 해결 방안을 3가지 이상 제시한 경우, 8~10점 부여
- 제시문 (자)의 논지를 토대로 오류의 해결 방안을 2가지만 제시한 경우, 5~7점 부여
- 제시문 (자)의 논지를 토대로 오류의 해결 방안을 1가지 이하로 제시한 경우, 2~4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만점 30점 이내에서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그리고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30점)	① (사)와 (아)의 각각의 오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적(20점): 7~20점	(사)와 (아)의 두 사례 모두의 오류를 정확히 지적한 경우	16~20점
		(사)와 (아)의 두 사례 중 하나의 오류를 정확히 지적한 경우	11~15점
		(사)와 (아)의 두 사례 모두의 오류를 정확히 지적하지 못한 경우	7~10점
	② 위의 오류를 (자)의 논지를 토대로 하여 해결방안 도출 (10점): 2~10점	(자)의 논지를 토대로 오류의 해결방안을 3가지 제시한 경우	8~10점
		(자)의 논지를 토대로 오류의 해결방안을 2가지 제시한 경우	5~7점
		(자)의 논지를 토대로 오류의 해결방안을 1가지 제시한 경우	2~4점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 기출문제

Section 03 경영경제계열

논술 문제지(경영경제계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지닌 사회에서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갓난 아이 때부터 여자면 분홍색, 남자면 파란색을 주로 입히는 것과 같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부모의 무수한 행동이 실제로 성별에 따라 해도 되는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아기에게 알게 한다. 어린이는 타고난 자연스러운 호기심으로 성별에 무관하게 다양한 새로운 행동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행동을 할 때 칭찬, 상 또는 은근한 미소로 격려를 받는 반면, 부적절한 행동은 꾸중, 벌, 무관심 등으로 제지를 당함으로써, 자신의 풍성한 잠재력의 한 부분을 일찍이 잠재워 버리게 된다.

한편 어린이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성에 따른 역할의 구분을 배우는데, 이는 주로 모델의 제공 및 선택과 관련된다. 어린이는 자기를 돌보아 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모방함으로써 사회적인 많은 행동을 배우게 되는데, 여자 어린이는 주로 어머니를, 남자 어린이는 주로 아버지를 모방함으로써 그들의 고정화된 행동을 은연중에 배우게 된다. 부모 이외에도 친척, 이웃, 친구, 교사 등 주위의 모델은 매우 많다. 그 외에 그림책, 동화, 교과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각종 광고를 통해서도 사회의 고정 관념을 암암리에 주입받게 된다.

(나) — 뜨겁고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홍합탕, 다들 한번쯤은 먹어 보셨겠죠? 이 시원한 맛을 내는 홍합이 바다에서는 폭풍우에도 끄떡없을 정도의 강한 흡착력을 보여 준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또 딱정벌레의 단단한 껍데기는 갑옷을 능가하고, 파리는 선회, 회전, 후진, 팔자 비행 등 다양한 비행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생명체들이 보여 주는 놀라운 능력을 모방해 인간 생활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내려는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생체 모방 공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체 모방 공학은 '생체'와 '모방'이란 단어의 합성어로, 살아 있는 생물의 독특한 행동이나 구조, 그들이 만들어 내는 물질 등을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전자 및 기계 분야의 학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체 모방의 모든 것은 자연에 존재합니다. 자연이 과학의 훌륭한 스승인 셈이지요.

앞서 말한 홍합의 힘은 지금까지 생물체에서 알려진 가장 센 흡착력보다 무려 네 배나 더 강합니다. 홍합이 바위에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열 개의 아미노산이 반복돼 있는 단백질 때문이지요. 국내 연구진은 홍합의 흡착 단백질을 활용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접착제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니다. 또 물에 젖을수록 더 강력한 접착력을 갖게 되는 혼합 접착제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인간에게도 안전하기 때문에 수술 후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실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의학계에 혁명과 같은 변화를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자연에서 배운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들어 널리 성공을 거둔 예로는 ‘벨크로’ 테이프를 들 수 있습니다. 일명 ‘찍찍이’라고도 부르는 벨크로는 엉겅퀴의 갈고리를 흉내 낸 것인데요. 한 면에는 고리가, 다른 한 면에는 갈고리가 있어 서로 붙이면 고리에 갈고리가 걸려서 강한 접착력을 지니게 됩니다. 오늘날 벨크로는 옷소매에서부터 무중력 상태인 우주선 안의 도구를 고정시키는 데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어 비늘을 응용한 최첨단 수영복, 연잎의 효과를 응용하여 물의 침투와 오염을 방지해 주는 스프레이, 벌집을 응용한 건축 내부 자재 등 자연을 모방한 기술은 많습니다. 자연을 모방하여 과학이 발전할 수도 있고, 과학이 발전하여 신기술로 자연을 더 보존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생체 모방 공학은 자연을 재창조하는 과정이자 이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체 모방 공학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 ————— 게리는 원어민 영어 학원 강사이다. 가끔 명품 모조 가방을 납품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한국인이다. 외모가 외국인인을 닮아서 그는 원어민 학원 강사 생활을 하고 있다. 그가 사는 신도시를 건다 보면 그를 외국인으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종종 있다. 그는 외모로 보면 완벽한 외국인이고 자신도 외국인으로 행세한다. 하지만 그가 어렸을 때부터 외국인 흉내를 낸 것은 아니다. 그는 외모 때문에 학교에서 혼혈로 오해를 받기도 했고, 이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으며 심한 따돌림을 받기도 했다. 이후 영문과에 진학한 게리는 시사 영어 잡지에서 ‘게리 워커 존슨’의 삶을 읽게 된다. 게리 워커 존슨은 미군 병사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다. 어린 시절 한국에서 멀리받던 그는 아버지의 조국인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나 정착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온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지 않는다. 그는 영어를 잘하는, 일명 ‘뉴요커’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게리 워커 존슨을 모방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도 게리 워커 존슨으로 바꾸고, 한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다. 온전하게 혼혈인이 되는 것이다.

게리는 대학 일 학년을 마치기 전 늦가을에 징집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지방 병무청을 찾아갔다. 창구 직원은 서류 두 장을 단검처럼 차례로 뽑아서 내밀었다. 게리는 서류를 받아 들고 말했다. 군인이라도 된 것처럼 괜히 긴장되었다.

(중략)

“저…… 상답을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걸 봐, 거기 나온 대로 작성하면 바로 처리되니까.”

창구 직원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게리는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한 장은 5급 제2 국민역 대상자, 즉 병역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안내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청서였다. 이미 게리는 안내장 내용을 병무청 사이트를 통해 읽고 온 길이였다.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고아, 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단, 1986년 이전 출생자는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포함)

게리는 신청서의 신상명세서를 작성했다. 신상 관계란의 성장 과정에 혼혈인, 고아, 귀화인, 북한 탈주 주민 항목이 있었다. 게리는 혼혈인에 체크했다.

(중략)

“워낙 없던 일이라…… 호적 등본이나 주민 등록 등본 사본 가져왔나?”

게리는 가족점퍼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내밀었다.

컴퓨터에 눈을 박고 한참 서류를 처리하던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올려다보았다.

“이상하네. 올해 우리 관할 신검 대상자 중에 혼혈 사유로 분류된 자원은 없는데……. 실수로 누락된 건가?”

직원은 머리를 긁적였다. 그는 계리가 건넨 주민 등록표를 사전처럼 들여다보았다.

“부 김달호, 모 오판심. 친부모 아닌가?”

“맞는데요. 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럼 양친 중에 어느 한 분이 혼혈인가?”

“아닌데요.”

“그럼 뭐야?”

“제가 아까부터 뭘 상의를 드린다고…….”

(중략)

“사실 저는 명백히 한국인 부모님한테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보셔서 알겠지만 생긴 건 명백히 혼혈 인이라 이거죠.”

창구 직원은 입을 벌린 채 의자 깊숙이 몸을 젖혔다. 그는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기가 차다는 듯 입을 비틀더니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이 친구 보게. 어떻게 자네가 혼혈인가? 멀쩡한 양친을 두고.”

창구 직원은 지금까지 부산을 댄 일이 억울한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원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목청을 높였다.

“내가 이 창구에서만도 오 년인데 혼혈로 면제를 받겠다고 온 사람은 자네가 첨이야. 전국으로 따져도 기껏해야 일 년에 열댓 명이 나올까 말까 한 경우라고. 이진 엄연히 병역 회피 행위야. 이곳에서 당장 헌병에 넘길 수도 있어, 이 친구야. 젊은 사람이 병역 의무를 신성하게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썩어 빠진 궁리나 해서 쓰겠어?”

(라) 16세기 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항로를 개척하는 동안 북유럽 국가들은 산업 기술 및 조직 형태 개발에 투자했다. 발군의 기량을 보인 국가는 네덜란드였다.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남유럽의 항해술과 조선술을 모방해서 원양 항해 능력을 터득했다. 육상에서는 풍차 기술을 발전시켜 효율적인 동력 자원으로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조정하는 다국적 기업의 역할을 했다. 동인도 회사는 4만 명에 달하는 직원을 거느린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조직으로, 아시아 무역 시장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 활약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네덜란드의 성공에 자극받은 영국은 뒤늦게 네덜란드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특히 영국의 조선업계가 네덜란드를 모방하는 데 열을 올렸는데, 그 결과 조선업계는 18세기 초에 이르러 기술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영국은 한술 더 떠서 자체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계기가 바로 증기 기관의 발명이다. 영국은 석탄을 이용하여 훨씬 더 효과적인 산업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석탄으로 움직이는 공장에서 생산된 화물이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선박에도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바람과 파도의 횡포로부터 해방되었다. 증기 기관을 배에 설치하여 바람에 의존하지 않고 언제 어디든 원하는 대로 화물을 운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 땅속에 동굴이 하나 있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동굴 안쪽의 벽면만을 바라보도록 손과 발, 목이 묶여 있다. 그들 뒤에는 동굴 안을 비추어 주는 불빛이 있다. 그들과 불빛 사이에 담장이 세워져 있고, 그 담장 위로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나 동물이 마치 자동인형처럼 지나가고 있다. 그 인형들은 실제 사람이나 동물처럼 소리를 내기도 한다. 뒤를 돌아볼 수 없도록 묶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생 보아 온 것이 실은 동굴 벽면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은 소리도 그림자가 내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어쩌다가 그들이 묶인 상태에서 풀려나 고개를 돌리고 인형을 본다고 해도 지금까지 보아 온 것이 진짜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실물 인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을 동굴 밖으로 데려가 지금까지 그들이 동굴 안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면 그들은 큰 충격에 빠질 것이다. 동굴 밖에는

실제 사람들과 동물 등이 살고 있고, 그들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은 그것들을 본떠 만든 인형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이 동굴 밖의 세계에 점차 익숙해진다면 모든 것의 원인이 태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바) — 여기 한 경험주의 철학자가 있었다고 하자. 그는 내 눈으로 본 것, 내 손으로 만져 본 것만 믿을 수 있고, 내가 직접 듣고 접해 보지 못한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굳게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를 찾아 산길을 지나게 되었다. 가다가 길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구렁이를 한 마리 발견했다. 깜짝 놀란 그는 소나무들 뒤로 몸을 숨겼다. 하마터면 구렁이에게 물려 죽을 뻔했다고 큰 숨을 내쉬었다. 얼마 후에 달리 바라보았더니 그 구렁이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 다시 몸을 숨긴 철학자는 혹시 저놈의 구렁이가 죽은 것이 아닌가 싶었다. 돌을 던져 보았더니 여전히 꼼짝 않는 것이다. 철학자는 안심하고 나와 구렁이가 있는 곳까지 가까이 가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구렁이가 아니고 썩은 밧줄이었던 것이다. 철학자는 고뇌에 빠졌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눈으로 본 것과 내 손으로 만져 본 것이라고 믿어 왔는데, 내 눈이 나를 속이면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머리를 숙인 철학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밤 깊도록 의심과 회의에 빠져 있던 철학자는 한 가지 사실만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그것은 ‘의심하며 생각하고 있다.’는 원초적인 사건이었다.

(사) —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조건이 필수적이다. 즉,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제 조건은 경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가 가능해져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다. 경제 성장은 우리의 절대적 빈곤을 줄여 주었으며, 평균 수명과 여가 기회를 늘리고 상급 학교 진학률을 높이는 등 물질적인 발전을 이루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반적으로 1인당 실질 GDP가 높을수록 평균 수명이 길고 문자 해독률이 높게 나타나며, 영아 사망률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의 수준이 언제나 삶의 질 수준과 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은 교육, 환경, 문화, 안전, 만족감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경제 성장이 이들 모두를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 과정에 수돗물이 오염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수돗물 대신 시장에서 생수를 사서 먹을 것이다. 이때 생수의 판매 가치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어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였더라도 그 성장의 결과가 일부 계층에게 편중된다면 빈부 격차의 확대와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필요하지만, 경제 성장이 항상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 ‘모방의 동기와 결과’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30점, 500~52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동굴 비유를 이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주인공 게리가 처한 상황과 행위를 해석하고, 제시문 (바)의 논지를 고려하여 주인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40점, 540~560자]

[문제 3] 다음은 두 요인 간에 양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서, ‘양(+)의 연관성’이란 한 요인의 값이 커질 때 다른 요인의 값도 커지며 한 요인의 값이 작아질 때 다른 요인의 값도 작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단계 1 — n 개의 개체에 대한 두 요인의 값을 $(X_1, Y_1), (X_2, Y_2), \dots, (X_n, Y_n)$ 이라 하자. 이때 X_1, X_2, \dots, X_n 중에서 i 번째 값인 X_i 의 순위를 R_i 라 한다. 여기서 순위는 X_1, X_2, \dots, X_n 중에서 가장 큰 값에 1, 그 다음 큰 값에 2, 이렇게 차례로 하여 가장 작은 값에 n 을 부여한다.

단계 2 — [단계 1]과 같은 방법으로 Y_1, Y_2, \dots, Y_n 중에서 i 번째 값인 Y_i 의 순위를 S_i 라 한다.

단계 3 — $i < j$ 인 모든 (R_i, S_i) 와 (R_j, S_j) 쌍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한다.

단, $i = 1, 2, \dots, n, j = 1, 2, \dots, n$ 이다.

$C = (R_i - R_j)(S_i - S_j) > 0$ 인 쌍의 개수

$D = (R_i - R_j)(S_i - S_j) < 0$ 인 쌍의 개수

즉, C 는 두 요인이 양(+)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측도이고, D 는 두 요인이 음(-)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측도가 된다.

단계 4 — $K = C - D$ 를 계산하여, K 값이 큰 경우 두 요인은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양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때 ‘ K 값이 큰 경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실제 두 요인 간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잘못 판단할 확률이 주어진 값 p 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다.

※ [단계 4]를 위하여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K 가 가질 수 있는 값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시오. 이때 n 개의 개체에 대해 고려할 경우의 수는 $n!$ 임을 참고하시오.

다음 표는 UN이 2009년에 발표한 인간 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의 일부이다.

국가	1인당 실질 GDP(\$)	초·중등학교 진학률(%)
독일	34,401	88.1
대한민국	24,801	98.5
코스타리카	10,842	73.0

두 요인 ‘1인당 실질 GDP’와 ‘초·중등학교 진학률’의 자료를 위의 절차에 따라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제시문 (사)의 논지를 찬성 또는 반대하시오. 단, ‘삶의 질’은 ‘초·중등학교 진학률’만 고려하고, [단계 4]에서 $p = 0.2$ 를 가정한다. [30점]

평가 목표와 출제 의도

① 평가 목표

경영경제계열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다양한 지식을 통합적으로 묶어내고, 이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한 독창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과서와 교재에서 발췌한 제시문들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는 독해력과 이를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력,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력 및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논술시험의 경우 '모방'이라는 하나의 주제 속에 포함된 다양한 시각들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능력과 이 논지들을 창의적으로 연계하고, 나아가 인간의 감각적 경험으로 인한 지식의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철학적 비유에 기초해 현실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 극복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복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주어진 정보를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석하고 분석하는 비판적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사회현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논리적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인문학적·사회과학적·자연과학적 제시문들의 논지와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또한 이를 명확하게 구성하고 표현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② 출제 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문제 1] 이 문제는 '모방의 동기와 결과'라는 하나의 공통 주제로 포괄할 수 있는 네 제시문의 상이한 관점과 담론들의 차이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것을 분별하여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해 내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제되었다.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제시문의 일차 독해 과정에서 '모방의 동기와 결과'라는 공통 주제를 통해 각 제시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논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를 나타내는지 정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 지문들의 내용들은 1) 선천적 호기심과 외적 보상 및 제지에 부응하려고 모방한 결과 사회화 과정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이 형성된다는 점(제시문 가), 2) 자연을 활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생활의 향상을 꾀한 결과, 과학의 발전과 기술 및 자연의 선순환 관계가 나타난다는 점(제시문 나), 3) 외모로 인한 따돌림과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려고 모방했으나, 역설적으로 주인공은 자기 정체성을 오인하고 사회 제도와의 충돌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제시문 다), 4) 유럽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다른 국가의 선진 기술과 조직 형태를 모방한 결과, 각 국가들은 기술 혁신과 산업화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점(제시문 라)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각 지문의 내용들을 상호 비교, 대조하여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문제 2] 이 문제는 제시문 (마)에서 제시된 철학적 비유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다)의 사회적 차별과 그로 인해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주인공 게리의 삶에 대입하여 살펴본 뒤, 제시문 (바)의 감각에 의존하여 취득한 경험적 지식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이성적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한 논지를 이용하여 주인공이 겪고 있는 정체성 혼란의 문제점 및 극복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의도에서 출제하였다. 우선, 제시문 (마)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우리가 오감을 통해 경험적으로 지각하는 일상의 사실들이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 있으며 진실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비유를 통해 파악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철학적 비유를 제시문 (바)의 사회적 차별로 인해 외국인의 삶을 살게 된 주인공의 현실에 대입시켜 보도록 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감각적 경험에 따른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에 대해 끊임없는 의심과 회의를 함으로써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데카르트의 철학적 비유를 기반으로 하여 (바)의 주인공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문제 3]

이 문제는 주어진 자료에 대하여, 제시된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리적 능력을 측정하려는 의도로 출제되었다. 또한, 관련된 자료의 추론을 통하여 사회적 상황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지지 또는 비판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정보의 홍수인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무분별한 수용 보다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출제의 숨겨진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답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수리적 지식의 범위는 경우의 수와 확률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이삼형 외. (2013).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Ⅱ. 지학사. 120~123쪽.
- 제시문 (나): 우한용 외. (2013). 국어(상). 두산동아. 276~277쪽.
- 제시문 (다): 조정래 외. (2011). 고등학교 문학Ⅱ. 해냄에듀. 392~396쪽.
- 제시문 (라): 함성식 외. (2013). 탐스런 경제. EBS. 70쪽.
- 제시문 (마): 박찬구 외. (2013).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142쪽.
- 제시문 (바): 이금준 외. (2011). 탐스런 윤리와 사상. EBS. 137쪽.
- 제시문 (사): 서태열 외. (2011). 고등학교 사회. (주)금성출판사. 286~288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Ⅱ(지학사) 교과서에 실린 정진경의 「양성성에 관하여」라는 글의 일부이다. 두 양성성을 지닌 존재로 보자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문제 요인들 중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에 근거한 차별대우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별 조건에 따른 편견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 고정관념이 되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수많은 남성과 여성의 삶을 제약하고 자아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성성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바는, 모든 인간이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양성성, 즉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린이가 선천적 호기심과 외적 보상 및 제지에 부응하는 것이 모방의 동기라면, 그 결과로 사회화의 과정에서 성 역할 고정 관념이 구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국어(상)」(두산동아) 교과서에 실린 「자연을 재창조하는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한 글의 일부이다. 이 교과서의 '부록 1. 힘 있는 말, 지혜로운 듣기'라는 단원의 '강의의 재구성'이라는 주제 아래 생체 모방 공학에 관한 이 글이 실려 있다. 이 글에서는 '생체'와 '모방'이란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생체 모방 공학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학문 분야는 살아 있는 생물의 독특한 행동이나 구조, 그들이 만들어 내는 물질 등을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전자 및 기계 분야의 학문을 말한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생체 모방의 모든 것이 자연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방의 시도는 자연에서 모방한 기술을 개발하여 사회적 유용성을 지닌 상품을 개발하고 과학의 발전을 꾀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생과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 II』(해냄에듀) 교과서에 실린 전성태의 소설 「이미테이션」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에서 주인공 게리는 한국인이지만 혼혈인의 외모를 가진 인물로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는 소외된 삶과 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살고 있다. 주인공은 이러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사 잡지에서 본 외국인 ‘게리 워커 존슨’의 삶을 모방하여 외국인 행세를 하지만 결국 병역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면서 다시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 (라)는	『탐스런 경제』(EBS) 교재에 실린 글이다. 이 글에 따르면, 16세기 말 네덜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산업 기술과 조직 형태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네덜란드는 남유럽의 항해술과 조선술을 모방해서 원양 항해 능력을 터득했고, 육상에서는 풍차 기술을 발전시켜 효율적인 동력 자원으로 활용했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성공을 모방하여 18세기 초 영국 조선업계는 기술 발전을 피할 수 있었고, 나아가 영국은 증기 기관을 발명하여 새로운 산업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들 사이의 선진 기술과 조직 형태를 경쟁적으로 모방한 결과, 새로운 기술 혁신과 산업화의 동력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천재교육) 교과서에 실린 플라톤의 동굴 우화이다. 플라톤은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인지한 그림자나 인형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의 허상이며, 보통의 인간의 삶은 실재보다 그림자인 현상에 더 지배를 받는다고 하였다. 오감을 통한 경험에 기초해서 보면 실재보다는 그 그림자가 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라톤은 누군가 이성을 통해 그림자의 세상인 동굴을 벗어나 동굴 밖의 세상에 있는 실체(이데아)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철학자이며, 이성을 가진 철학자에 의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제시문 (바)는	『탐스런 윤리와 사상』(EBS) 교재에 실린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 과정을 비유적으로 기술한 글 중 일부이다. 데카르트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의심할 여지없는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제시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각적인 감각을 통해 주관적으로 인식한 뱀은 결국 썩은 줄에 불과했다는 비유를 통해 철학자가 도달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지금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성적인 사고의 과정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시문 (사)는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경제 성장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인 경향이고, 경제 성장의 수준이 언제나 삶의 질 수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삶의 질이 교육, 환경, 문화, 안전, 만족감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경제 성장이 이들 모두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예시 답안

[문제 1] —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모방의 다양한 동기와 그 결과를 상이한 관점에서 보여준다. (가)에서 어린이가 선천적 호기심과 외적 보상 및 제지에 부응하는 것이 모방의 동기라면, 그 결과로 사회화의 과정에서 성 역할 고정 관념이 구축된다. (나)에서는 자연을 활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생활의 향상을 꾀한 결과, 과학의 발전과 기술 및 자연의 선순환 관계가 형성된다. (다)에서는 외모로 인한 따돌림과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려고 모방했으나, 역설적으로 주인공은 자기 정체성을 오인하고 사회 제도와와의 충돌 상황에 처하게 된다. (라)에서는 네덜란드와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다른 국가의 선진 기술과 조직 형태를 모방한 결과, 각 국가들은 기술 혁신과 산업화의 동력을 마련한다. 이와 같이 모방의 동기는 자발성과 사회적 유용성 등에서 나타나고, 그 결과는 기술 발전과 삶의 질 개선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성 역할의 고착과 부정적 사회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507자]

[문제 2] — 제시문 (마)는 사람들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동굴 속의 가상 세계를 보여준다. 이를 (나)의 주인공의 삶과 병치시켜 보면, 동굴 속에서 한쪽 벽면만을 보도록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과 실체를 모방한 인형과 그림자는, 주인공이 사회적 차별로 인해 외국인인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잡지를 통해 본 외국인 '게리 워커 존슨'의 삶, 그리고 그를 모방하여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여기서 외국인으로 행세하며 그림자(인형)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은 자신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허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이는 결국 주인공이 병역 제도라는 동굴 밖 세상의 현실에 부딪치게 됨으로써 다시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한편 감각에 의존한 경험적 지식에 대한 의심, 즉 반성적 사고를 통한 진실의 탐구를 주장한 바의 논지에 따르면 이런 정체성 혼란은 잡지 기사에 나타난 타인의 삶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방적 삶이 본질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이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560자]

[문제 3] — 독일과 대한민국,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인당 실질 GDP'와 '초·중등학교 진학률'인 $\{(X_1, Y_1), (X_2, Y_2), (X_3, Y_3)\}$ 의 순위 $\{(R_1, S_1), (R_2, S_2), (R_3, S_3)\}$ 는 $\{(1, 2), (2, 1), (3, 3)\}$ 이 되고, 이때 $C=2$, $D=10$ 이므로 $K=C-D=10$ 이 된다. 이때 $K=1$ 이 큰 값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두 요인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K 가 가질 수 있는 값에 대한 경우의 수와 확률을 계산해야 한다. $n=3$ 일 때 $\{(R_1, S_1), (R_2, S_2), (R_3, S_3)\}$ 는 다음과 같이 $3! = 6$ 가지 쌍에 대하여 고려하면 되고, 각 경우에 대한 C , D , 그리고 K 를 정의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R_i, S_i)	C	D	K
(1,1), (2,2), (3,3)	3	0	3
(1,1), (2,3), (3,2)	2	1	1
(1,2), (2,1), (3,3)	2	1	1
(1,2), (2,3), (3,1)	1	2	-1
(1,3), (2,1), (3,2)	1	2	-1
(1,3), (2,2), (3,1)	0	3	-3

두 요인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위의 6가지 경우는 동일한 확률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 경우의 발생 확률은 $1/6$ 이고, 따라서 K 의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다.

K	-3	-1	1	3
확률	$1/6$	$2/6$	$2/6$	$1/6$

위의 확률 분포에 의하면 두 요인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K=3$ 이 큰 값이라고 생각하여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잘못 판단 할 수 있는 확률은 $1/6 \approx 0.167$ 이고, $K \geq 1$ (즉, $K=1,3$)인 경우에는 $3/6 = 0.5$ 로 주어진 한계인 0.2를 넘게 된다. 따라서 $K=3$ 인 경우에만 두 요인이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세 국가에 대해 계산한 K 값인 $K=1$ 로는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 성장이 항상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시문 (사)의 논지를 찬성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문제 1] — 3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00~5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pm 1 \sim 25$ 자	1점 감점
± 26 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30점)

1) 모방의 동기와 결과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논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5점): 6~25점

(가): 어린이가 선천적 호기심과 외적 보상 및 제지에 부응하는 것이 모방의 동기라면, 그 결과로 사회화의 과정에서 성 역할 고정 관념이 구축된다.

(나): 자연을 활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생활의 향상을 꾀한 결과, 과학의 발전과 기술 및 자연의 선순환 관계가 형성된다.

(다): 외모로 인한 따돌림과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려고 모방했으나, 역설적으로 주인공은 자기 정체성을 오인하고 사회 제도와의 충돌 상황에 처하게 된다.

(라): 네덜란드와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다른 국가의 선진 기술과 조직 형태를 모방한 결과, 각 국가들은 기술 혁신과 산업화의 동력을 마련한다.

- 네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모두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20~25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15~19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10~14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의 내용만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6~9점 부여

※ 그밖에 참신한(기발한) 분류법으로 지문의 차이를 묶어 서술한 경우도 적절한 점수를 부여한다.

2) 네 개의 제시문의 특징을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점): 2~5점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만점 30점 이내에서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그리고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 표절(-5점)	한 문장 이상 표절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논지의 차이점 파악 (25점): 6~25점	4개를 정확히 제시한 경우	20~25점
		3개를 제시한 경우	15~19점
		2개를 제시한 경우	10~14점
		1개만 제시한 경우	6~9점
	② 논리적 구성(5점): 2~5점	서론-본론-결론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30~56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8점): 2~8점

- 사람들이 시각적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그림자, 인형)을 진실이라고 믿고 진실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동굴 속의 가상의 세계를 통해 진실이 다른 곳에 있음을 제시함.

- 제시문 (마)에 나타난 논지를 정확히 파악한 경우, 5~8점 부여
- 제시문 (마)에 나타난 논지를 부분적으로 파악한 경우, 2~4점 부여

2) 제시문 (마)의 동굴의 비유에 따라 (다)의 상황 및 행위를 대입하여 의미 파악(20점): 8~25점

① 제시문 (마)의 동굴의 비유

- i) 동굴 속에서 의자에 묶여 있는 상황 - 사회적 차별에 의해 주인공이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 ii) 동굴 속의 그림자와 인형 - 잡지를 통해 본 외국인 '게리 워커 존슨'의 삶과 그를 주인공이 모방하여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행위

② 의미파악

- i) 외국인으로서의 삶은 그림자나 인형의 삶으로서 허상이며 이로 인해 왜곡된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러한 삶이 병역 제도라는 현실과 충돌하면서 다시 정체성의 혼란이 생김

- 2가지를 적절히 기술하였을 경우, 16~20점 부여
- 2가지 중 하나를 적절히 기술하였을 경우, 11~15점 부여
- 2가지를 모두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6~10점 부여

3)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에서 나타난 주인공의 문제점의 원인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10점): 3~12점

① 제시문 (바)의 논지 파악

- i) 감각적 경험에 의존하여 취득한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지식에 대한 끊임 없는 의심, 생각(이성적 사고)을 통해 진실에 이를 수 있음을 제시

② 대안제시

- i) 주인공이 타인의 삶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다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타인의 삶이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이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함

- 2개를 모두 언급하였을 경우, 8~12점 부여
- 1개만 언급하였을 경우, 3~7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만점 40점 이내에서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그리고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pm 1 \sim 25$ 자	1점 감점
		± 26 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 표절(-5점)	한 문장 이상 표절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의 논리를 파악: 8점	(마)의 논지파악	2~8점
	② (마)의 비유를 이용하여 (다)의 상황과 행위를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 20점	2가지 모두 적절히 기술	16~20점
		2가지 중 하나만 적절히 기술	11~15점
		2가지 모두 제대로 기술하지 못함	6~10점
	③ (바)의 논지 파악 및 대안 제시: 12점	(바)의 논지파악 및 대안 언급	8~12점
		논지 파악 또는 대안 언급 부족	3~7점

[문제 3]

30점 만점

※ 채점기준: 30점 만점

- 절차에 제시된 [단계 1]과 [단계 2]에 따라, 주어진 자료에 대한 X_i 의 순위인 R_i 와 Y_i 의 순위인 S_i 를 부여한다.
- [단계 3]와 [단계 4]에 따라 $C=2$, $D=1$, 그리고 $K=1$ 을 계산한다.
- 가능한 6가지의 $\{(R_1, S_1), (R_2, S_2), (R_3, S_3)\}$ 쌍을 유도하고, 각 쌍에 대하여 C , D , 그리고 K 를 계산한다.
- 계산된 K 값들에 기초하여,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K 의 확률 분포를 도출한다.
- K 의 확률 분포를 근거로 ‘ K 값이 큰 경우’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②에서 계산된 K 값이 이 기준에 부합되는지에 따라 결론을 도출한다. 즉, “세 국가에 대해 계산한 $K=1$ 로는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 이 결론에 따라 제시문 (사)의 논지를 찬성한다.

참고: $\{(R_1, S_1), (R_2, S_2), (R_3, S_3)\}$ 쌍에 대하여 6가지 대신 36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R_1, S_1), (R_2, S_2), (R_3, S_3)\}$ 에서 서로 순서만 바뀌는 경우,

예를 들어 $\{(1, 1), (2, 2), (3, 3)\}$ 에서 서로 순서만 바뀌는 총 6가지,

즉 $\{(1, 1), (2, 2), (3, 3)\}, \{(1, 1), (3, 3), (2, 2)\}, \dots, \{(3, 3), (2, 2), (1, 1)\}$ 에서는 동일한 C , D , 그리고 K 를 얻는다.

따라서 R_1, R_2, R_3 는 각각 1, 2, 3으로 고정된 후 S_1, S_2, S_3 가 바뀌는 6가지 경우만 고려하면 된다.

- ①~⑥의 과정을 거쳐서 정답을 유도한 경우 30점 부여
- ①은 5점
- ②는 7점, 즉 ①과 ②에 따라 K 를 맞게 계산하면 12점 부여
- ③과 ④에 따라 K 의 확률 분포를 올바르게 도출한 경우 12점 부여
올바르게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다음의 경우 부분 점수 부여
 - ▶ K 가 가질 수 있는 값인 $-3, -1, 1, 3$ 을 언급하면 3점 부여
 - ▶ K 의 확률 분포를 구하려고 노력하면 그 내용에 따라 3~6점 부여
- ⑤는 4점
- ⑥은 2점
- 단, 계산상 실수는 과정에 부여된 점수를 감산하여 그 경중에 따라 감점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 기출문제

Section 03

자연계열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유형이 기존의 '통합형 논술'에서 '단일 교과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계열 기출문제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는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기출문제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4학년도 논술우수자 전형 입시 결과 분석

Section 03 2014학년도 논술우수자 전형 입시 결과

모집인원 및 경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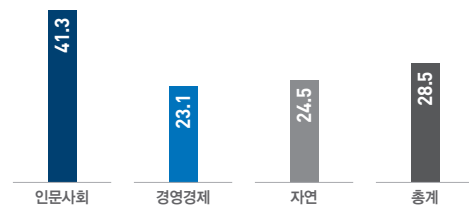
- 논술우수자 경쟁률 28.5대1(1,236명 모집, 35,232명 지원)
- 의학(181:1), 화학신소재공학(81:1), 심리학(76:1), 신문방송학(60:1) 최근 3년간 최상위 경쟁률 기록
- 경쟁률 상승 학과 주목할 필요(도시계획부동산(8:1→43:1), 국제물류학과(30:1→32:1) 서울모집, 융합공학부(43:1→55:1) 특성화학과로서 본교의 적극적 투자로 인함)

[표 1-1] 논술우수자 전형 경쟁률

논술유형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인문사회	344	14,216	41.3
경영경제	288	6,642	23.1
자연	616	15,107	24.5
총계	1,236	35,232	28.5

※ 예체능 제외(15학년도 논술전형 모집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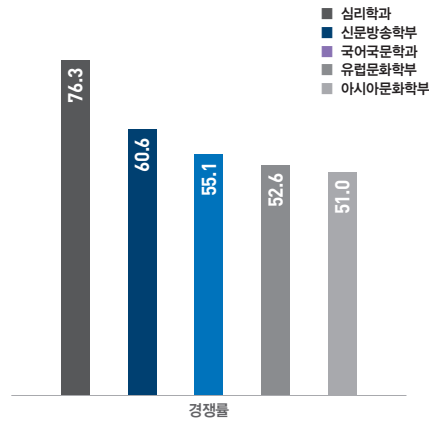
[그림 1-2] 2014학년도 논술우수자 전형 경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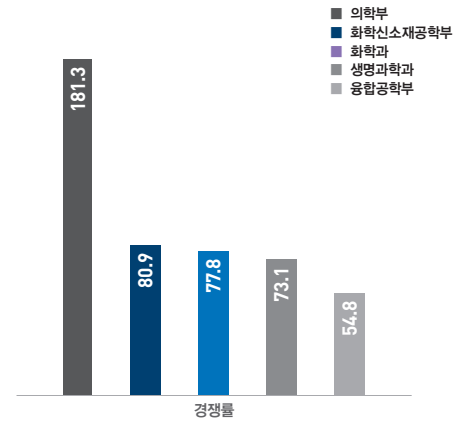
인문사회논술의 평균경쟁률은 41.3대1, 경영경제논술의 평균경쟁률은 23.1대1이다. 인문사회논술 경쟁률이 경영경제논술의 경쟁률보다 높은 이유는 전년도 수능최저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수리적논술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영경제논술에 출제되는 수리적논술형 문항은 기출문제 및 모의논술을 통해서 대비가 가능하므로 지원자는 미리 준비 해야한다. 또한 15학년도에는 수능최저기준이 전년대비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논술전형에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하다.

자연계열 학과의 평균경쟁률은 24.5대1로, 그 중 의학부는 181대1로 압도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에 안성소재 학과는 자연계열 평균경쟁률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림 1-3] 인문계열 경쟁률 상위 5개 학과



[그림 1-4] 자연계열 경쟁률 상위 5개 학과



인문, 자연계열의 경쟁률 top5학과를 분석한 결과, 눈에 띄는 점은 전년대비 인문계열의 3개 학과(국어국문학과, 유럽문화학부, 아시아문화학부)와 자연계열 융합공학부의 경쟁률이 상승한 것이다. 인문계열 3개 학과의 높은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능최저기준, 수리적논술형 문항의 미출제, 어문계열 특성에 따른 논술에 대한 자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자연계열 융합공학부는 본교 특성화학과로서 낮지 않은 수능최저기준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집중 투자와 학과선호도 상승에 힘입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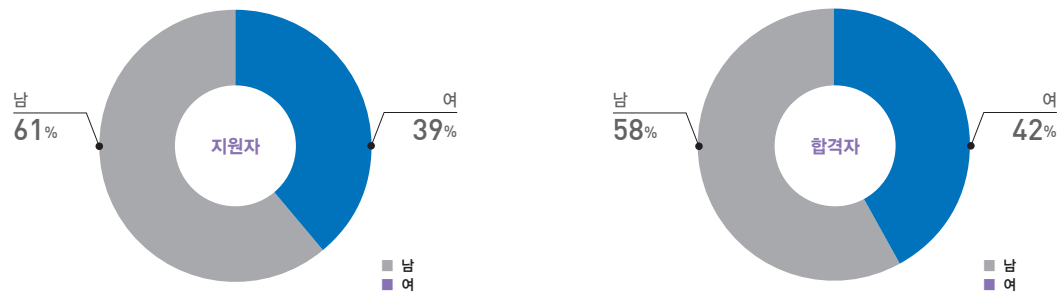
- 인문계 합격자 여학생(54%) 우세, 자연계 합격자 남학생(73%) 우세
- 지원자 및 합격자의 70% 이상 일반고 출신 학생이 차지
- 지원자 및 합격자의 약 50% 고3(졸업예정자)로 나타남(인문, 자연 합격자의 47%, 57% 고3(졸업예정자))

① 성별 분석

[표2-1] 논술우수자 지원/합격자의 성별 현황(%)

계열	지원		합격	
	남	여	남	여
인문	50.6%	49.4%	45.9%	54.1%
자연	75.4%	24.6%	73.2%	26.8%
계	61.2%	38.8%	58.3%	41.7%

[그림 2-1] 논술우수자 지원/합격자의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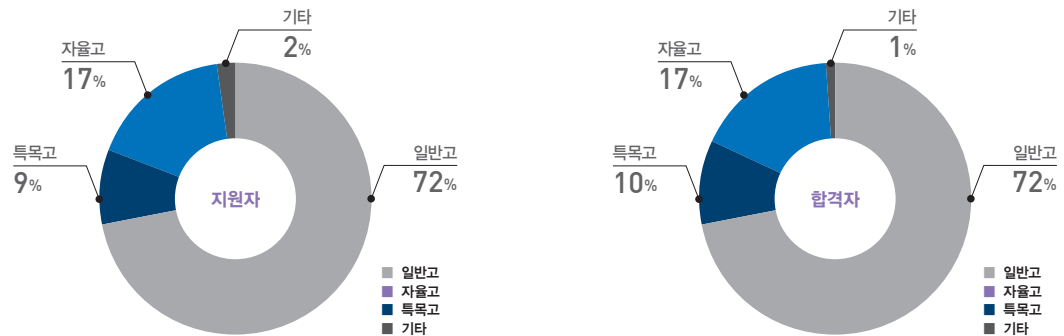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지원·합격자 모두 남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은 남녀비율이 50:50에 가까우나, 자연계열은 지원·합격자 모두 70% 이상이 남학생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이 이공계보다는 인문사회계열을 선호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② 고교 유형별 분석

[표 2-2] 논술우수자 지원/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현황(%)

계열	지원				등록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기타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기타
인문	70.9%	12.6%	13.9%	2.6%	69.5%	16.6%	12.5%	1.5%
자연	74.2%	3.2%	21.3%	1.3%	76.1%	1.2%	22.0%	0.8%
계	72.3%	8.5%	17.1%	2.0%	72.5%	9.6%	16.8%	1.2%

[그림 2-2] 논술우수자 지원/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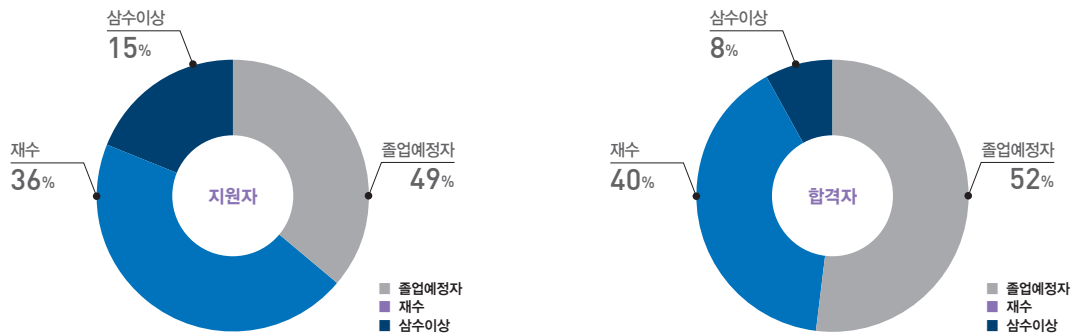
지원·합격자의 72%가 일반고 출신이며 17%가 자율고, 9~10%가 특목고 출신 학생이다. 계열별로 보면 특목고의 지원 및 합격비율은 자연계열에 비해 인문계열이 높은 편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고교 졸업시기별 분석

[표 2-3] 논술우수자 지원/합격자의 고교졸업시기별 현황(%)

계열	지원			등록		
	고3 (졸업예정자)	재수	삼수 이상	고3 (졸업예정자)	재수	삼수 이상
인문	49.7%	35.0%	14.5%	47.2%	42.9%	9.9%
자연	49.1%	35.0%	15.0%	57.2%	35.8%	7.0%
계	49.5%	35.0%	14.7%	51.8%	39.6%	8.6%

[그림 2-3] 논술우수자 지원/합격자의 고교졸업시기별 현황



지원·합격자의 약 50%가 고3(졸업예정자) 학생이다. 삼수 이상인 학생은 지원자의 15%(합격자의 8%)로 지원자 대비 합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지원자 대비 합격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자연계열에서 고3(졸업예정자) 비율이 지원자 대비 합격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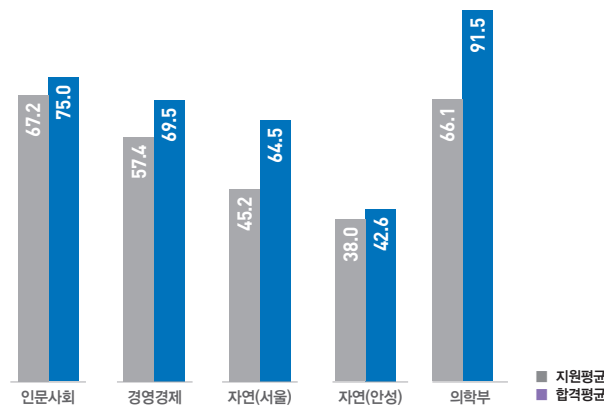
논술 성적 현황

- 합격자 논술 평균 인문사회 75점, 경영경제 69.5점, 자연(서울, 의학부 제외) 64.5점
 - 의학부 합격자 논술 평균 91.5로 아주 높아, 논술 고득점이 중요
 - 자연계열 논술유형 변화에 유의
- 전년도 통합형 논술 → 15학년도 단일교과형(수학, 과학(물, 화, 생 중 택1)) 논술로 변경

[표 3-1] 논술우수자 지원/합격자의 논술유형별 성적 현황

논술 유형 및 특성별 구분		지원자		합격자			
		평균	표준편차	우선선발		일반선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문사회논술		67.2	8.11	74.1	4.7	76.4	4.7
경영경제논술		57.4	9.51	66.6	4.4	73.9	4.6
자연 논술	서울 (의학부 제외)	45.2	15.4	62.6	10.3	67.2	9.2
	안성	38.0	13.1	—	—	42.6	12.1
	의학부	66.1	17.2	—	—	91.5	1.8

[그림 3-1] 논술우수자 지원/합격자의 논술유형별 성적 현황



계열별 논술 유형 파악이 중요하다. 인문계열은 인문사회논술/경영경제논술로 나뉘고, 자연계열은 수학,과학 위주의 논술이나 15학년도부터 논술유형의 변화가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인문사회논술은 언어논술형 3문항, 경영경제논술은 언어논술형 2문항, 수리적논술형 1문항으로 구성된다. 인문사회논술의 합격자 논술평균점수는 75.0점, 경영경제논술의 합격자 논술평균점수는 69.5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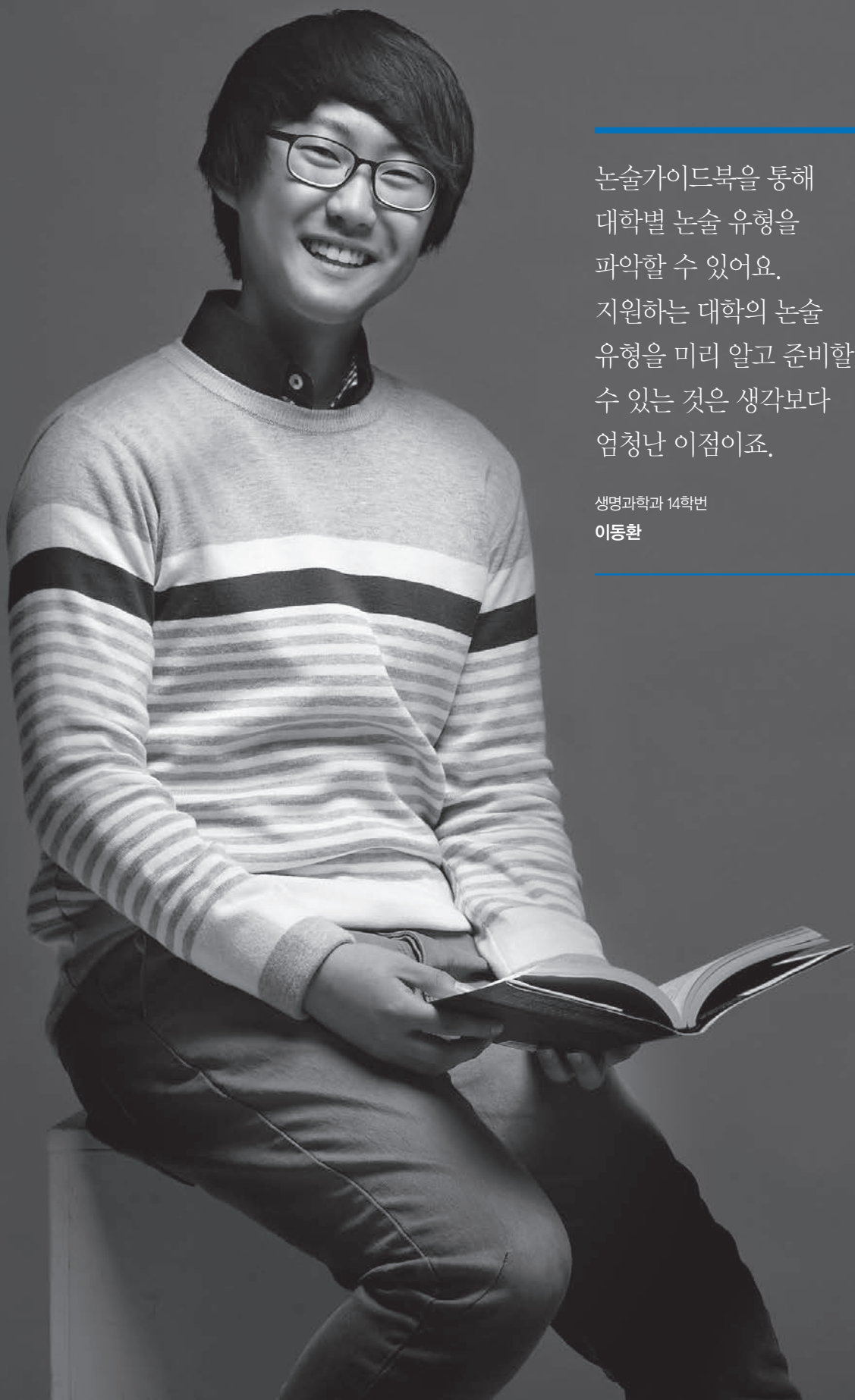
자연계열은 서울(의학부 제외)의 합격자 논술평균점수는 64.5점이나 표준편차가 인문계열 논술유형들에 비해 큰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연계열 안성소재 학과의 합격자 논술평균 점수는 42.6점, 표준편차 12.1으로 합격자의 논술성적대가 낮아, 지원자는 수능최저충족 가능성을 판단하여 도전할 필요가 있다. 의학부는 지원자의 논술평균 점수는 66점대이나 합격자의 논술평균 점수는 91.5점으로 아주 높고, 표준편차도 1.8로 작은 편이다. 의학부는 수능최저기준통과뿐만 아니라 논술성적의 고득점이 합격에 중요한 요건임을 알 수 있다.

15학년도에는 자연계열 논술유형이 변경된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통합형 논술에서 단일교과형 논술로 변경되니 유의해야 한다. 단일교과형 논술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출제되고,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택1하게 된다. 자연계열 지원자는 변경되는 논술유형에 대비하여 반드시 논술가이드북을 통해 모의논술 문항(60p 참조)을 통해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Section 04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글로벌리더 에세이





논술가이드북을 통해
대학별 논술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요.
지원하는 대학의 논술
유형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이점이죠.

생명과학과 14학번
이동환

선배들이 말하는 중앙대학교 논술

Interview 03

논술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

— 저는 ①확실한 개념 ②한 문제를 완벽히 풀이 ③시간에 맞춰 많이 풀어보기, 이 순서로 논술을 준비했습니다. 과학엔 자신이 있었기에 수학책 만들기 동아리를 만들어 개념을 보다 확실히 알기 위해 노력했으며 한 달에 한 번 부원들과 모의 논술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답을 모르는 문제라도 제시문에 유추해서 일단 답안을 작성한 후 모범답안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혼자 하는 것 보다 친구들과 한 문제를 같이 푼 후 서로의 답안을 보며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게 빠르고 정확한 방법인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동아리원들끼리 한 문제를 두고 상의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 모범답안보다 더 나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하나의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전부 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전 많은 문제를 풀며 간결하게 말만으로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담는 방법을 연습해야 해요. 시간에 제한을 두고 논술을 쓴다면 시간제한이 없을 때와 다른 느낌을 받을 겁니다. 실제로 시험을 볼 땐 시간이 많이 모자란 느낌을 받으므로 익숙해져야 실전에서 평소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논술가이드북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 각 대학교는 특유의 논술 문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논술가이드북을 통해 그 스타일들을 느껴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중앙대 논술가이드북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중앙대 입시설명회에서 기출문제를 보고 문제 유형분석을 들으면서 올해 논술 문제를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변형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제 의견을 써내려 갈 수 있었죠. 학교의 논술 스타일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어드밴티지입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 저도 1학년 때 논술 문제를 접해보기 전엔 막연한 자신이 있었지만 막상 접해보니 단답형 답안만 작성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논술이란 것을 너무 어렵게 여겨서 '어떻게 써야하지?'란 생각만 하다가 손도 못 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답안을 보고 따라 써보는 것에서 시작해 점점 글에 살을 붙일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매끄럽게 풀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논술은 많은 문제를 풀어 당황하지 않고 써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수 있는 멋진 대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주는
응원의 메시지

— 제가 후배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 길을 선택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라'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에게 맞는 길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해 나아가다 보면 주변에 '누구는 저런 것도 한다더라', '이 전형이 이번에 많이 뽑는다더라' 등의 혹 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처음 정한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올 수 있기 그렇게 꿈을 낮추지 말고 꼭 나아가세요. 힘들 땐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찾아 하루동안 미친 듯이 하세요. 다음 날 다시 힘내서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 꼭 중앙대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글로벌리더 에세이

Section 04

인문계열

2014학년도 글로벌리더 전형은 2015학년도에는 특기자(인문) 전형으로 전형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어에세이는 지문과 문제 모두 국문으로 출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답안은 기존과 같이 해당 모집단위 별 언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착오 없이 준비하기 바랍니다.

인문계열 글로벌리더 에세이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 in English. (문제 1)

"Privacy is dead. Get over it," says Scott McNealy, CEO of Sun Microsystems. Surveillance technology and the business of daily spying go on largely unnoticed. People may be occasionally annoyed, but they appreciate how much easier life is in the computer age. They unhesitatingly forgo being unobserved, anonymous, unavailable. They have no sense of having less personal freedom. They do not even see that there is something to be defended. They attach too little importance to their private sphere to want to protect it at the expense of other advantages. The erosion of privacy therefore tends to occur by quiescent accretion: through apathy, indifference, or tacit support for measures that are packaged as essential or appear innocuous. Still, we should not pretend that in our digital world the regularization of privacy-invading conduct will be unproblematic; far from it. No longer is one allowed to withdraw from society and live without being pestered. The individual cannot secretly change masks and become someone else. He can neither disguise himself nor temporarily disappear. Everything one does is evaluated and judged. Nothing escapes surveillance. However, this outlook seems to frighten hardly anyone.

[문제 1] Summarize the above passage in your own words, using examples of your choice. Write 10–15 lines. (30 points)

Read the following passages and answer the questions in English. (문제 2~3)

- (A) — Ethical consumption means buying products and services that are made ethically. This means causing minimal harm to humans, animal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money makes the world go round, and deciding how we spend our money might just help save it. To ethical consumers, spending their money is like voting every time they go shopping. For example, buying a small car instead of a gas-guzzling big one is a vote against climate change. Avoiding goods with heavy packaging is a vote against abusing natural resources. Even small, everyday purchases, such as coffee or tea are a vote for something. As consumers, we have a great deal of power in our pockets because we can change company policies through conscious buying.

- (B) — These days, people show their support for a cause with acts on social network sites such as “liking” or sharing a post or joining a page for the cause. However, the excitement may actually be masking the reality that social network sites do little to strengthen social movements and effect change. Most acknowledge that citizens are active through the Internet, but this activity is a pointless showcasing that does more to make the activists feel good about themselves than to address urgent social matters. Worries have been expressed that these activities are pointless in that they are unable to achieve social goals and can derail social participants away from the more effective forms of participation in the activist repertoire that have traditionally been used. In terms of social network sites’ ability to strengthen social movements, these technologies may in fact be promoting a form of “slacktivism” or “clicktivism” instead of activism, and do little more than promote “weak ties,” which can bring a million people to a page on social network sites but fail to mobilize a thousand people in the street to actually effect change.
- (C) — People have an ongoing interest in how others perceive and evaluate them. Each year, people spend billions of dollars on diets, cosmetics, and plastic surgery—all intended to make them more attractive to others. Political candidates are packaged for the public’s consumption. Parents stress to their children the importance of first impressions and, when trying to control public misbehaviors, may admonish them to consider “what the neighbors will think.” Millions of people become paralyzed at the prospect of speaking or performing in public because they are worried about the audience’s evaluation of them. Even in relatively mundane encounters at home, work, school, and elsewhere, people monitor others’ reactions to them and often try to convey images of themselves that promote their attainment of personal goals. Impression management (also called self-presentation) refers to the process by which individuals attempt to control the impressions others form of them. Because the impressions people make on others have implications for how others perceive, evaluate, and treat them, as well as for their own views of themselves, people behave in ways that will create certain impressions in others’ eyes.

[문제 2] Referring to the argument presented in Passage (A), support the argument presented in Passage (B) by providing an example of your choice. Do not use examples illustrated in Passage (A). Write 10–15 lines. (30 points)

[문제 3] Some may argue that people are engaged in ethical consumption for impression management illustrated in Passage (C). Refute this argument by taking the position of Passage (A). Write 10–15 lines. (40 points)

출제 의도

- [문제 1] — 1번 문항은 제시문에 설명된 주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보여주는 예를 사용하여 본인의 표현으로 요약하는 문항이다. 제시문은 Wolfgang Irfinger(2008)의 *Privacy: A Manifesto*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하였다. 본 문제는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인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과 적합한 예를 제시할 수 있는 추론 및 응용 능력을 측정하여, 언어 능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 [문제 2] — 2번 문항은 한 제시문 안에 있는 중심 주장을 내용상 연관을 찾을 수 있는 다른 제시문의 중심 주장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지지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제시문의 중심 주장을 파악하는 능력과 제시문간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는 두 개의 제시문 내용들을 통합하는 종합적 추론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제시문 (A)는 금성 출판사에서 발행한 *High School English II* (권오량 외 7인, 2009)의 독해 지문 'Becoming an Ethical Consumer'에서 발췌하였고, 제시문 (B)는 Jonathan A. Obar와 3인이 *Journal of Information Policy*에 게재한 'Advocacy 2.0: An Analysis of How Advocacy Groups in the United States Perceive and Use Social Media as Tools for Facilitating Civic Engagement and Collective Action'과 Henrik Serup Christensen이 *First Monday*에 게재한 'Political Activities on the Internet: Slacktivism or Political Participation by Other Means?'에서 발췌·수정한 것이다. 제시문 (A)에서 언급된 윤리적 소비의 능동적 사회참여와 제시문 (B)에서 언급된 어떤 사안에 대한 지지를 SNS상에서만 표현하는 소극적 행동들의 차이를 파악하도록 문항을 출제하였다. 또한, 채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답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폐쇄형 문항을 출제하였다.
- [문제 3] — 3번 문항은 제시문 (C)의 관점에서 제시문 (A)의 내용을 평가한 가상의 주장을 논박하라는 문제이다. 이 문항은 제시문 (C)의 논지를 중심으로 주어진 가상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한 후, 비판적 분석력과 종합적 추론 능력을 활용하여 제시문 (A)의 논지에서 가상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설득력있게 서술하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우선, 제시문 (C)는 Mark R. Leary와 Robin M. Kowalski가 *Psychological Bulletin*에 출판한 논문 "Impression Management: A Literature Review and Two-Component Model"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글로써, 인상 관리(impression management)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각인되는 인상에 의해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A)는 개인이 윤리적 소비라는 형태의 실천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높여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주어진 문제는 지문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 요약하는 능력을 넘어서, 제시문 (C)에 근거한 가상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해보고, 이를 다시 제시문 (A)의 논지와 연결시켜 반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문제 3은 학생들의 보다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복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예시 답안 및 번역

[문제 1]

— The passage points out that despite its importance, privacy is seriously violated in the digitalized contemporary society and that we need to be alert to this reality. With the advancements of technology, we get to enjoy revolutionary digital devices and services which have made our life easy and comfortable, but simultaneously facilitated surveillance of our daily activities. For an instance, the use of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such as Facebook and Twitter promotes to enhance personal intimacy among family and friends and expand social relationships by ‘friending’ with those with similar interests. However, SNS serve as an easy way for invasion of privacy through unintended expansion of social networking beyond personal control. For another, smartphones serve as a portable equipment combining a laptop, a camera, and a camcorder with a cellphone, which can be used anytime anywhere. We can easily take a picture or videotape, find our way by connecting to GPS, or check our email on the road. On the other hand, the ubiquitous use of smartphones signifies that you can be taken a picture of or videotaped anytime anywhere so that the personal side of your life can be exposed unknowingly, or that your location may be tracked down when you are connected to GPS. CCTVs and Blackboxes(camcorders equipped on the dashboard of a car) serve both for crime prevention and for random self-disclosure. Other digitalized systems, such as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fingerprint recognition system, computerized parking recognition system, all work both for convenience and surveillance. None the less, people indifferently accept the state of privacy invasion and surveillance without conscious awareness. Instead of just tacitly accepting comfort and convenience, we should beware of the reality that we are vulnerable to privacy invasion.

제시문은 디지털화된 현대 사회에서 사생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일상 행위들의 감시를 쉽게 만들어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혁명적인 디지털 장비와 서비스를 향유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의 사용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개인적 친밀성을 높이고, 유사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의 사회 관계망을 확장시켜 준다. 하지만 SNS의 사용은 개인적 통제를 너머 누가 의도하지 않아도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진다. 스마트폰은 휴대폰에 휴대용 컴퓨터, 카메라, 캠코더를 결합한 장비를 간편하게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것과 같아, 언제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돌아다니면서도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위치추적시스템(GPS)을 통해 길을 찾고, 쉽게 이메일에 접속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도처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이 될 수 있으며, 위치추적 장치에 접속 할 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범카메라(CCTV)나 ‘블랙박스’의 사용도 범죄 예방의 효용이 있는 만큼 무작위적 노출의 부작용을 수반한다. 그밖에 통행료 자동 지불 시스템, 지문 인식 시스템, 주차 인식 시스템과 같은 디지털화된 시스템들은 모두 편의성과 감시 두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생활 침해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수용한다. 그저 편안함과 편리함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우리가 사생활 침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

[문제 2]

— Passage (A) illustrates the positive impact of consumers' ethical and responsible purchases on society. Although these purchases are individual, small actions, Passage (A) stresses that these responsible, active participations in social issue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ociety as voting does. In line with the positive impact of individuals' active participation on social change presented in Passage (A), Passage (B) illustrates the negligible, and even negative, impact the individuals' activities of showing support for social issues on social network sites(SNS) may have on society. Specifically, Passage (B) describes such supporting activities on SNS as a type of "slacktivism," and illustrates that such activities may give individuals self-satisfaction, but they cannot make a meaningful difference because these activities may not lead people to offline participation. In support for the argument presented in Passage (B), I can take an example from a charity issue. Some people may be active on Facebook by joining Facebook pages for charitable organizations and "liking" posts which ask people to help starving children in Africa. These activities may make them feel that they have done their part to help those in need. Thus, they may neither make donations nor volunteer their time or talent to charitable organizations, and are unlikely to feel guilty about not taking such an action. Since donations of money and time are essential to charitable organizations' humanitarian work, supporting activities on SNS described here alone cannot effect change. In short, Passage (B) and the example illustrated here stress that it is doers who produce a desired effect on social change, rather than talkers.

제시문 (A)는 소비자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구매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비록 이러한 구매들은 개인적이고 작은 행동들이지만, 투표가 사회 이슈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이와 같은 능동적인 참여가 사회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제시문 (B)는 사회 이슈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SNS상에서의 여러 활동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며,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B)는 SNS상에서의 이와 같은 활동들을 "게으르고 소극적인 행동방식"의 한 종류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런 활동들이 사람들에게 자기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이들을 오프라인 상에서의 참여로 이끌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회 이슈에 중요한 차이를 만들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구호(救護)에 관한 예를 들어, 제시문 (B)에 나타난 주장을 지지하고자 한다. 어떤 사람들이 구호단체의 Facebook 페이지에 가입하고, 아프리카의 굶주린 어린이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포스팅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Facebook상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하자. 단지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내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하기에, 구호단체에 기부하지도 않고 자원봉사자로 자원하지도 않으며, 실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돈과 시간의 기부는 구호단체의 인도적 구호 활동에 필수적이기에,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만으로는 구호 관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요약하면, 제시문 (B)와 위에 언급한 예는, 사회 변화에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 3]

The argument given in Question 3 refers to ethical consumption as a mere way of managing individual impression. Such argument is grounded on the view of Passage (C) that any individual's relationship with the society is determined by the impression that he/she wants to make on others. According to Passage (C), diet or plastic surgery is a means of improving one's self-image to increase their individual values in society. This argument has its limit because self-image making is solely understood as a way to get acknowledgement from others(in society). In contrast to this, Passage (A) argues that an individual can seek for his/her own ethical value in relation to the society by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voluntarily. Viewed from this argument of Passage (A), the argument in Question 3 can lead to the danger of reducing all the social activities of an individual to a mere matter of self-satisfaction, and thus, any ethically conscious activity such as purchase of fair trade coffee can be understood as another showing-off of an individual's self image. Confronted with this issue of impression management, each individual should get over the personal obsession of being perceived and evaluated by others and cherish his/her own ethical value by voluntary engagement in various social activities.

문제 3에 제시된 주장은 윤리적인 소비행위를 인상관리의 한 방편으로 여긴다. 이러한 주장은 타인들에게 각인되는 인상에 의해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결정된다고 보는 제시문 (C)의 관점에 근거한 것이다. 제시문 (C)에 의하면, 사람들은 성형수술이나 다이어트 등을 통하여 자신의 외모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이미지를 가꾸는 행위가 단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이에 반하여 제시문 (A)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사회와의 관계에서 스스로의 윤리적 가치를 찾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윤리적 소비라는 형태의 개인적 실천을 제시하고 있는 제시문 (A)의 관점에 근거해 볼 때, 문제 3의 주장은 개인의 모든 사회적 활동을 자기만족적인 가치로만 환원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의식적인 활동 또한 구매자 자신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시선에 따라 자신의 윤리적 행동을 과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상-관리의 논점과 관련하여 볼 때, 개인은 타인들에 의해 자신의 모습이 평가됨으로써 얻게 되는 자기만족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자신의 윤리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안 분량기준(예: 10~15줄)에 맞지 않으면 3점을 감점한다.

※철자, 구두법, 문법에 오류가 있을 때에 10점까지 감점할 수 있음.

※제시문의 표현을 7 단어 이상 연속해서 그대로 쓴 경우, 원 점수에서 무조건 10점 감점함.

[문제 1]

1. 요약 부분(15점)

- 문제적 상황(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진단
- 기술발달로 사생활 침해가 용이해짐
- 사람들의 무감각 + 경각심과 비판의 필요성

1) 문제적 상황 진단

- i) 사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no sense of the importance of privacy)
- ii) 사생활 침해(invasion(violation, infringement) of privacy)

2) 기술발달로 사생활 침해와 감시가 쉬워짐

- i) 사생활 침해와 감시가 컴퓨터와 같은 기술 발달로 더 용이함(Technological advances facilitate surveillance and invasion of privacy.)
- ii) 기술적 발달이 허용한 편리성이 사생활 침해와 감시의 용이도를 고양시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We should know that digitalized technological advances will easily heighten the level of privacy invasion and surveillance.)

3) 사람들의 무감각 + 경각심 필요

- i)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무감각과 암묵적 수용(tacit acceptance of privacy invasion without conscious awareness)
- ii) (사생활 침해가 동반됨에도 불구하고) 기술발달로 생활이 용이해진 점에 더 비중을 두는 점(the indifferent disregard of privacy invasion in preference to the advantages which come with technological advances)
- iii) 사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We need to see the importance of privacy in our life.)
- iv) 사생활 침해에 취약한 상황 대한 무관심과 조용한 수용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We should beware of the fact that we are vulnerable to privacy invasion.)
- v) 기술 발달이 주는 편리함을 인식 없이 그저 받아들이면 안 된다.(We should not just accept comfort and convenience of using technological advances.)

2. 예시 부분(15점)

- 예시(8점: 제시된 예가 2개 이상이어야 함)
- 논거 제시 (7점)

1) 가능한 예들

- i)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such as Facebook or Twitter
- ii) smartphones—> used as pocket video cameras, or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 iii)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 iv) camcorder equipped on the dashboard of a car(블랙박스)
- v)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통행료 자동 지불 시스템)
- vi) fingerprint recognition system(지문인식시스템)
- vii) computerized parking recognition system(주차 인식 시스템)

2) 논거 제시의 핵심 사항

- i) 기술발달이 우리의 삶에 이중적으로 기능함을 언급해야 함
- ii)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동시에 사생활 침해와 감시를 유발하기도 함
- iii) (1)의 요약 부분과 (2)의 예시 부분의 비중을 각 15점으로 채점하되, 완성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특히 예를 열거할 때, 지문의 논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열거만 하는 경우는 감점된다.
- ▶ 30점: 논거를 위한 적합한 예를 찾아 핵심 내용을 모두 언급하며 자신의 표현으로 잘 요약한 경우
- ▶ 20~29점: 요약과 예시를 제시하지만, 전반적으로 논리적 서술이나 디테일 제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경우
- ▶ 10~19점: 요약과 예시를 제시하지만, 논리적 서술이나 디테일 제시에 있어서 불충분한 경우, 혹은 요약과 예시 중 하나만 제시한 경우
- ▶ 1~9점: 전반적으로 문제의 의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경우
- ▶ 0점: 문제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또는 백지인 경우

[문제 2]

- ▶ 30점: (1) 제시문 (A)의 중심 주장(투표가 사회 이슈에 중요한 역할을 하듯, 일상생활에서의 능동적, 윤리적 소비가 사회 이슈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주장)과 제시문 (B)의 중심 주장(SNS 상에서 사회 이슈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현하는 행동은 게으르고 소극적인 행동방식의 하나이며, 사회 이슈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두 제시문간의 연계성(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사회참여와 SNS 상에서만 지지 또는 반대를 나타내는 수동적 사회참여의 차이)을 제대로 파악하였는가? (2) 적절한 예를 들어 제시문 (B)의 주장을 뒷받침 하였는가?를 고려하여 채점하며, (1)과 (2)의 내용상 비율을 2:1 정도로 서술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술한 경우이다.
- ▶ 20~29점: 위 (1)과 (2)의 내용을 모두 서술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 서술과 디테일이 조금 미흡한 경우이다.
- ▶ 10~19점: 위 (1)과 (2) 중 한 가지 내용은 설득력 있게 기술했지만, 나머지 한 가지의 내용은 논리적 서술과 디테일한 논거가 불충분한 경우이다.
- ▶ 1~9점: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중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경우이다.
- ▶ 0점: 문제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또는 백지인 경우이다.

[문제 3]

- ▶ 40점: (1) 제시문 (C)의 논지를 적용하여 제시문 (A)에 나타난 윤리적 소비를 해석하는 가상 주장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했는가? (2) 가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 근거를 적절한 논리와 근거에 따라 제시문 (A)의 논지로부터 진술했는가? 이 두 가지를 고려하여 채점하며, (1)과 (2)의 내용상 비율을 2:3 정도로 서술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기술한 경우이다.
- (1) 제시문 (C)의 논지를 설명할 시에—a.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개인의 이미지 개선 노력 b. 인상관리의 한 방법으로 서의 윤리적 소비행위 c. 타인에 의한 인상 평가로 얻어지는 개인적 자기만족—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 (2) 가상 주장의 논점이 개인의 모든 사회적 활동을 자기만족적인 가치로만 환원시키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a. 윤리적 소비가 개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 b.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윤리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음—두 가지를 포함한다. 그 밖의 타당한 근거의 완성도에 따라 점수 부여한다.
- ▶ 30~39점: 가상 주장의 문제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박의 근거 면에서 비교적 논리적으로 기술하지만, 디테일한 기술에 있어 완성도가 조금 미흡한 경우이다.
- ▶ 20~29점: 문제점이나 반박의 근거 중 한 부분이 매우 미흡한 경우이다. 논리적 서술과 디테일한 논거가 불충분하다.
- ▶ 10~19점: 문제점이나 반박의 근거 중 한 가지에만 치중되어 문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 ▶ 1~9점: 전반적으로 문제의 의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경우
- ▶ 0점: 문제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또는 백지인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캠퍼스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02)820-5114, 6114(대)
안성캠퍼스 456-75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TEL.(031)670-3114, 4114(대)
입학상담 서울캠퍼스 입학처 TEL.(02)820-6393 <http://admission.cau.ac.kr>
장학상담 서울캠퍼스 학생지원팀 TEL.(02)820-6048, 6049
 안성캠퍼스 학생지원팀 TEL.(031)670-3392
기숙사상담 서울캠퍼스 생활관 TEL.(02)881-7042
 안성캠퍼스 생활관 TEL.(031)670-3482

Chung Ang University

서울캠퍼스 교통안내

● 버스

버스(지선버스) 흑석 5511 5517 5524 6411

버스(간선버스) 흑석 151 350 360 362 462 640 642 752
 상도 501 506 750A 750B

버스(광역 및 공항버스) 흑석 9408 6000 6016



● 지하철

9호선 흑석(중앙대입구)역 4번 출구 도보 10분 거리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중앙대 후문까지 도보 10분 거리

– 학교 셔틀버스 : 상도역 ⇨ 중앙대 후문 ⇨ 중앙대 정문

– 마을버스(01번): 상도역 ⇨ 이화약국 ⇨ 중앙대후문 ⇨ 중앙대중문 ⇨ 중앙대정문

– 마을버스(21번): 상도역 ⇨ 이화약국 ⇨ 중앙대후문 ⇨ 중앙대중문 ⇨ 중앙대정문

– 마을버스(10번): 상도역 ⇨ 이화약국 ⇨ 중앙대후문 ⇨ 중앙대중문 ⇨ 중앙대정문

1호선 노량진역 1번 출구 셔틀버스, 마을버스 이용(15분 거리)

– 학교 셔틀버스 : 노량진역 ⇨ 상도역 ⇨ 중앙대 후문 ⇨ 중앙대 정문

– 마을버스(01번) : 노량진역 ⇨ 상도역 ⇨ 이화약국 ⇨ 중앙대 후문 ⇨ 중앙대 중문 ⇨ 중앙대 정문



안성캠퍼스 교통안내

● 시외버스

• 고속버스 :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안성행 버스 이용(약 1시간 소요)

• 직행버스 :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안성행 버스 이용(약 1시간 소요)

● 자동차

• 경부고속도로 이용하여 안성(평택)IC로 진입하여 우회전
 (38번 국도, 차량으로 10~15분 소요)

젊은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열한번째 이야기

말재주가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리 밋을 내지도 않지만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니까요
행복한 사람만큼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